20 대학내일

No.783 2016.6.20~2016.6.26
ISSN 2465-7883

+

인천국제공항 100% 활용법
몰라서 못 쓰던 핵꿀팁만 모았다

내 지갑이 허락하는 클렌즈 주스 4
'나 20대인데, 내 몸 왜 이래?' 싶다면

내 마음이 제일 어려운 당신을 위해
작가 정여울

실패하지 않은 여행
여행책방 '일단멈춤' 송은정

눈밑을 밝혀주는 다크서클 컨실러 5
너의 다크함은 다크서클 때문

GIST Brightens the World
세계 초일류 이공계 대학

광주과학기술원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nk the Unthought
도전하라, CHALLENGIST!

도전적인 연구로 과학기술을 선도하며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GIST,
2015년 QS 세계대학평가(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 부문)에서 세계 2위에 오른데 이어,
톰슨 로이터 선정 세계 상위 1%의 젊은 한국인 연구자 중 절반이 GIST 출신이었습니다.
세계 초일류 이공계 대학으로 우뚝 선 GIST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성장할 인재를 기다립니다.

2017학년도 GIST 대학원 봄학기 1차전형 신입생 모집

· **주요 일정** (변동 가능)

구 분	봄학기 1차전형	봄학기 2차전형
입학시점	2017. 3. (2016. 9. 조기입학)	2017. 3.
원서접수	7. 7.(목) ~ 7. 19.(화)	10. 13.(목) ~ 10. 25.(화)
서류발표	8. 4.(목)	11. 10.(목)
구술전형	8. 9.(화) ~ 8. 10.(수)	11. 15.(화) ~ 11. 16.(수)
최종발표	8. 19.(금)	11. 25.(금)
입학등록	8. 22.(월) ~ 9. 2.(금)	2017. 1. 16.(월) ~ 1. 31.(화)
입학설명회 및 오픈랩	매 전형 원서접수 개시 한 달 여 전부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진행 (우측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 및 참가 신청)	

· **모집단위**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지구·환경공학부, 생명과학부,
물리·광과학과, 화학과, 의생명공학과, 에너지융합학제전공(신설), 문화기술융합학제전공(신설)

· **모집과정**

·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박사통합과정

· **장학제도 및 특전**

· 年 석사 1,441만원, 박사 2,328만원 지원
· 기숙사, 기혼자아파트 제공
· 차별화 된 교육환경(전과목 영어강의, 해외 연구기회 등)

· **홈페이지 및 연락처** (원서 접수, 참가 신청, 각종 공지 및 문의)

|대학원| http://admission.gist.ac.kr/g_main 062-715-2052~4, admission@gist.ac.kr
|대 학| http://admission.gist.ac.kr/u_main 062-715-2952~8, uadmission@gist.ac.kr

이 포스터의 본문에 포천막걸리체를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입니다

2016 통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통일되면 뭐할래?

www.create-unikorea.kr

참가 접수

기간 2016년 6월 16일(목) ~ 7월 15일(금) 18:00까지

방법 담당자 이메일(create-unikorea@naver.com)로 접수

*참가신청서 및 아이디어 기획안 첨부 필수(양식은 홈페이지 참고)

참가 대상

2030 청년층 누구나 (97년생부터 77년생까지)

공모 주제

통일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창업 아이템, 사업 아이디어 등 (사업분야 자유)

본선 일정

본선 진출 20팀 선정 (창작지원금 50만원 지원) ▶ **본선팀 오리엔테이션** ▶ **중간 점검** ▶ **최종 심사 및 전시회**

시상 내역

대상	1팀(명)	통일부 장관상 및 상금 500만원
우수상	2팀(명)	중소기업청장상 및 상금 각 300만원
장려상	3팀(명)	창업진흥원장상/중기중앙회장상 및 상금 각 100만원
특별상	1팀(명)	UN-HABITAT 청년 특별상 및 상금 100만원

문 의

create-unikorea@naver.com

관광
개마고원 레저플라자
산과 평지가 어우러진 지리적 환경과 기후적 환경을 활용한 초대형 레저 플라자 건립

요식업
옥류관 프랜차이즈
북한 대표 음식점인 옥류관을 통일한국에 맞게 프랜차이즈화

건축
통일한국 랜드마크
파리의 에펠탑, 런던의 런던아이처럼 통일한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건축 디자인

교통
북한 철도망 구축 계획
산업 목적으로 건설된 북한의 철도망이 대륙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재구축

IT
백두대간 정보 네비게이션 앱
백두대간 산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스포츠
북한 프로야구 구단 브랜딩
철원 백마스 등 북한 지역에 연고를 둔 야구 구단 브랜딩

주최 | 주관 통일부 후원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K-BIZ 중소기업중앙회 특별후원 UN-HABITAT FOR A BETTER URBAN FUTURE

KB금융그룹

KB손해보험

New Start,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2016년 대졸 하계 인턴사원 모집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모집부문	실습지역	채용인원	지원자격	우대사항
개인영업관리	전국	00명	– 4년제대학(대학원) 2016년 8월 또는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 전학년 평균성적 B학점 이상인 자 – 군필 또는 면제된 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전공 무관	– 직무자격보유자 (손해사정사, CFA, CPA 등) – 국가보훈대상자는 증명서 제출시 관계법에 의거 우대
법인영업	서울			
자동차보험 대인보상	전국			
경영지원	서울			

전형절차

서류전형 >> 역량검사 >> 면접전형 >> 합격자 발표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6. 21(화) ~ 2016. 7. 1(금) 24시 까지**
- 접수방법 : 당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http://recruit.kbinsure.co.kr)
- 문 의 : 당사 채용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recruit@kbinsure.co.kr)

※ 서류 합격여부는 **7월 8일(금)** 이후 채용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인턴연수 안내

- 인턴기간 : 2016. 7.25.(월) ~ 8. 26(금), 5주간
- **인턴수료자 중 임원면접을 통해 하반기 정규직 대졸 신입사원 채용 예정**
- 인턴기간동안 소정의 연수교통비 및 4대 보험 혜택

기 타

회사소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인터넷 채용 홈페이지 (http://recruit.kbinsure.co.kr) 참조

VKC (재)한국방문위원회 VISIT KOREA COMMITTEE

www.prkorea.com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Ksmile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웃어요

Heart Beating KOREA 두근두근 대한민국! 한국과 친구가 되어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재)한국방문위원회가 함께하는

글로벌한국문화관광 외교대사 14기 모집

신청기간 : 2016. 6. 1(수) ~ 6. 26(일)

선발인원: 500명
모집결과 발표: 6월 28일(화)
교육 • 발대식: 7. 1(금) 오전 10:30~오후 6:00
활동기간: 2016. 7. 1 ~ 2016. 8. 21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해

외국인에게
한국을 홍보할 자료를
무료 지원합니다!

해외 여행길에 외국의 세계지도, 교과서, 드라마, 관광책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해는 일본해, 독도는 다케시마,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표기된 오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드라마는 한국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관광책자 속 한국문화 소개 분량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 10분의 1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인에게 한국을 알리지 않았던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국가 브랜드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수조원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고, 외교관 또한 한국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재)한국방문위원회는 올 여름, 해외여행 및 연수를 떠나는 대학생 및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우리의 친절과 미소로 K스마일을 실천하여 한국을 홍보할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한국문화관광 외교대사" 5백명을 선발하여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알리고자 합니다.

한국 청년들의 열정으로 한국의 매력과 한국인의 정을 널리 알려 전 세계인에게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요!

행사대상

- 2016년 여름방학 중 외국에 방문하는 한국의 대학생,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한국을 홍보할 대학생

지원내역

- 1차 발대식 참석자 : 글로벌 한국문화관광 외교대사 250명
  한국홍보자료 기본 킷트, 반크도서, 발대식참석자 킷트, 한국홍보교육, 티셔츠, 교육참가증
  1차 발대식 미참석자 : 글로벌 한국문화관광 외교대사 250명
  한국홍보자료 기본 킷트, 반크도서
- 2차: 최고의 글로벌 한국문화관광 외교대사 50명 선정
  (2016년 8월 말, 활동미션심사 후 우수활동자 선정, 반크와 한국방문위원회에서 상장, 메달, 기념품 수여)

신청서 접수 : http://www.prkorea.com/500

문의 :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02-921-3591

공동 주최 :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재)한국방문위원회

반크 꿈날개 한국홍보자료 킷트 구성

※킷트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더 빠르고 !!
더 편리하게 !!
E-BOOK으로 출시 !!!

※眞正한 트렌-드 맛을 봐라!

엑기스만 모아봤다!
20대 트렌드에 목 마르다면,
반드시 참고해야할 필.독.서

5월 27일 대개봉!

2016 20대 트렌-드 리포트 하-프 에디숀!

2016 하반기
울-트라캡쑝
20대 예측도서 1효

아재관람가능

<주의> 본 <2016 하프-에디숀>은 이-북으로만 구입 가능
★특급 소식★ 오는 11월, <2017 20대 트렌-드 리포트>는 길거리 서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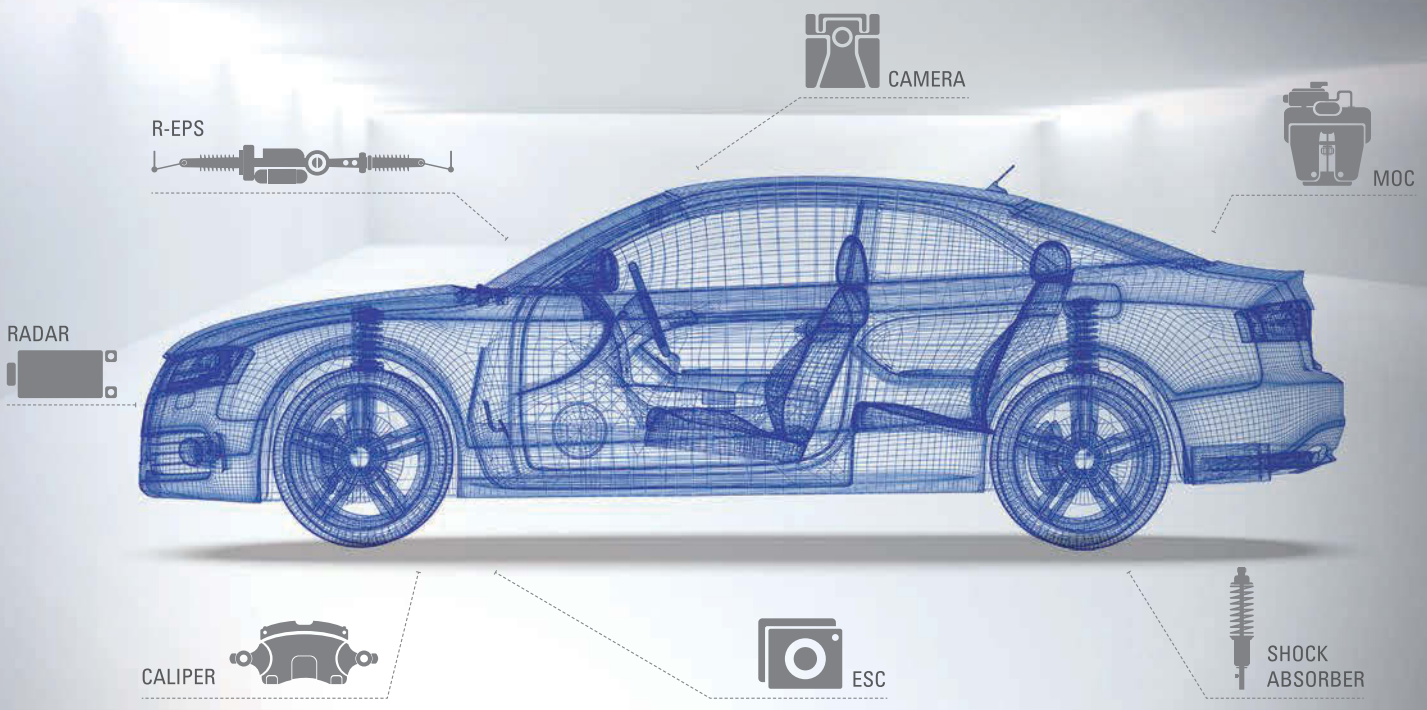
제작 대학내일 20대연구소

배급 RIDIBOOKS KYOBO 교보문고 인터파크 YES24.COM 알라딘 BOOKCUBE

Mando Corporation

www.mando.com

2016 (주)만도
대졸신입**인턴** 모집요강



모집분야

직무	학위	전공	세부직무분야	근무지	인원
R&D	석사	기계/전자전기 (해석.제어.신호처리)	개발/해석	판교	OO명
	학사	기계/전자전기/ 재료(전자재료).금속	설계/개발/해석/ 시험평가	판교/평택/원주/익산	
생산	학사	기계/전자전기/ 산업공학	생산관리/생산기술/ 생산지원	평택/원주/익산	
품질		기계/전자전기/ 산업공학	품질보증/품질관리	판교/평택/원주/익산	
구매		기계/전자전기	부품구매/부품개발	판교	
영업		기계/전자전기	마케팅전략/국내영업	판교	
경영 지원		상경	인사/노사/총무	평택/원주	
		상경	재경(재무/회계 과목 多 수강자)	평택/원주	
		전자전기	환경안전(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익산	

※ R&D의 경우, 시험평가 등 일부 근무지 평택/원주/익산임.

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직무/인성) ≫ **신체검사** ≫ **인턴사원 실습**(9~12월, 16주간)

※ 실습 종료시점에 평가 및 최종면접 실시 예정
※ 실습기간 종합평가 후 **인턴실습 우수자 한해 정규직 채용('17년 1월초 신입사원 입사)**
※ 전형 단계별 결과 발표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7월 19일(화)경 홈페이지 게재 및 문자메시지 개별 통보 예정

자격요건

- 4년제 정규대학(원)의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 졸업자
  ※ 9~12월(16주간) Full Time 인턴실습 가능자
- 전 학년 평점 B학점 이상자
- 영업/경영지원의 경우 TOEIC Speaking Lv. 6 또는 OPIc IM1 이상자, 기타 직무의 경우 TOEIC Speaking Lv. 5 또는 OPIc IL 이상자(영어권 해외대학 졸업자 제외)
  ※ 공인영어말하기시험(TOEIC Speaking/OPIc)은 최근 2년 이내 성적만을 인정(2014년 6월 이후 성적표만 유효)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군면제자
- 환경안전의 경우,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 R&D의 경우, S/W(CAD/CATIA, CAE관련(Abaqus 등), AUTOSAR, Labview 등)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 (C, Matlab, Simulink 등) 경험자/가능자 우대
- 제2외국어(중국어/독일어/포르투갈어/에스파냐어/페르시아어) 능통자 우대
- 공학교육인증제(ABEEK) 이수자 우대

지원방법

- **접수기간** : 2016년 6월 9일(목) 9:00 ~ 6월 23일(목) 24:00
- **접수방법** : 당사 홈페이지(www.mando.com) 인재채용 메뉴상 해당 공고로 들어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사진 첨부 요망)
- 석사 이상 지원자는 연구분야 요약본(MS-Word A4 용지 1매 내외)을 작성하여 입사지원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요약본 상단에 반드시 성명 및 세부전공분야 명기 요망)

기타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팀 채용담당자(mando.recruit@halla.com, 02-6244-2256)에게 연락바랍니다.

COVER MODEL

정다운 상지영서대학교 항공운항서비스과 16

Editor 이정섭 munchi@univ.me | Photographer 김재윤 Z Studio | Hair & makeup 정현영 (메이크업 아틀리에 주타)

10

중요한 질문을 하자면, 머리는 왜 숏컷으로 잘랐는가?

모델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헤어쇼 모델로 서게 됐는데 시안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바꾸며 숏컷을 하게 됐다. 사진보다 더 짧은 투블럭 금발이었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은 아주 짧은 단발 정도가 됐다. 주변에서 걸크러쉬라는 이야기도 듣고 이미지 변신을 할 수 있었다.

12

여행을 아주 좋아한다고 들었다.

어디 한군데 붙어 있는 걸 싫어한다. 시간만 나면 어디든 돌아다닌다. 외국으로 나갈 땐 숙소도 예약 안 하고 비행기 표만 끊어서 그냥 나간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숙소를 구한다. 계획에 메어 있지 않으니 마음이 자유롭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오래 머무르고,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외국어로 대화한다. 20대 때 가능한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다른 문화를 겪어보고 싶다. 20대 때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14

가장 좋았던 여행지는 어디였는가?

필리핀 세부. 바다를 좋아한다. 푸른 바다에서 수영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나와 바다만 남은 느낌이다. 세부에서 내 인생 샷도 찍었다. 날씨가 정말 좋아서 휴대폰으로 찍어도 인생샷이 나오더라. 그리고 필리핀 여행은 돈을 아끼면서 갈 수 있다. 저가 항공사 프로모션이 많아서 20만원이면 왕복 비행기 표를 살 수 있고, 현지 물가도 저렴하다. 바다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한다.

동부

동

움직일 動
동녘 東
화합할 同

마음이 동하면 몸이 동한다

2016년 동부 대학생 봉사단 동하리 2기 선발 안내

모집일정
- 서류접수 : 7월 1일(금) ~ 7월 18일(월), 오후 5시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7월 29일(금)
- 면접심사 : 8월 2일(화) ~ 8월 4일(목)
- 최종합격자 발표 : 8월 12일(금)
- 봉사단 발대식 및 장학생 캠프 : 8월 23일(화) ~ 26일(금)

지원자격
- 공통 자격
  - 학과 제한 없음
  - 국내대학(4년제) 3, 4학년 재학생(또는 휴학생)으로서 성적 평점평균 B0이상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8분위 이하
  -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며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
  - 봉사단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학생
  - CSR활동과 관련하여 아이디어와 기획력, 추진력을 보유한 학생
- 우대 자격
  -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봉사단 혹은 기자단 경험자, CSR관련 공모전 입상자
  - 컨텐츠 제작(취재, 사진, 동영상, 블로그 등) 능력이 뛰어난 학생

선발인원 ○○명

활동기간 6개월(2016년 9월 ~ 2017년 2월)

활동분야
- 국내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 동부화재 프로미봉사단과 함께 하는 대규모 사회공헌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에 참여함
- 동부문화재단, 동부그룹 관계사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여 및 SNS 홍보(월1회)
- 사회공헌 관련 기획기사 작성 및 제출(월1회)

장학금 지원 혜택
- 2017년1학기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국가 및 타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음(한국장학재단 규정 참조)
  - 2017년 1학기 휴학 시, 2학기로 이관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우수봉사자 해외연수 실시
- 우수봉사자는 본인 희망 시 3기 봉사자로 우선 선발하며, 장학 혜택과 지원자격은 동일함

문의
자세한 사항은 동부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www.dongbufoundation.or.kr
Tel. 02-3011-5544
e-mail : donghari@dongbu.com

Powerful KEPCO를 만들어 가는 Dynamic Mover

모집대상 한전을 사랑하고 전력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창의적인 대학생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미션활동이 가능한 자

지원자격 국내 대학교 재(휴)학생으로 온 · 오프라인 미션활동이 가능한 자(전공 무관)

선발인원 ▶ 서포터즈 (총 144명 선발, 48개 팀 / 팀당 3명)
- 3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 지원 (개인 지원 불가능)
* 권역별 모집 : 수도권 (강원 포함),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 아나운서 (총 6명 선발 / 개인 지원)
- 서포터즈 활동 취재 및 현장 실시간 리포팅이 가능한 자

모집기간 2016년 6월 8일 (수) ~ 6월 24일 (금)까지

최종발표 2016년 7월 5일 (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발대식 7월 11일 (월)~12일 (화) 예정. 불참 시에는 선발 취소

활동기간 2016년 7월~11월 (5개월)

지원방법 KEPCO 서포터즈 홈페이지 참조 (http://www.kepco.co.kr/supporters/)

활동혜택
- 매월 소정의 활동비 지급
- 매월 우수 활동팀 문화체험 기회 제공 및 최종 우수팀 포상금 지급
- 우수활동자 체험형 인턴 지원 시 서류심사 면제 및 면접 전형 가점

활동내용 ▶ 서포터즈
- 전력 서비스 모니터링 체험, 아이디어 제안
- 월별 미션수행 및 온/오프라인 서비스 홍보활동

▶ 아나운서
- 서포터즈 활동 취재 및 현장 실시간 리포팅

문 의 처 서포터즈 운영사무국 T) 070-5080-5984
한국전력 CS부 T) 061-345-4541,4544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포터즈 홈페이지 공지내용 참조

Myvlar®

수험생의 하필, 그날?

모델 홍진영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광고심의필 1334-1101]
장기 사용할 경우 주기적으로 병의원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No.783

Beauty Item
18
이주의 모델 정다운씨의 뷰티 아이템

Out Campus
19
기업 입사 시 도움되는 대외활동 BEST 4

Info graphics
20
츄파춥스

Toon
21
난희난희 망난희

About Food
22
아이스크림에 대한 아주 사소한 궁금증 5

Sentence
24
밥벌이의 무게

Critic
26
노래뿐인 음악 예능

Camera
28
야옹이를 부탁해

App
30
스마트폰 노래방 앱 비교

Place
32
오늘은 핑크핑크

Taste
34
나를 키운 성장소설 5선

40
+Weekly Choice
ISSUE
인천국제공항 100% 활용법
핵꿀팁만 모았다!

44
ISSUE
내 지갑이 허락하는 클렌즈 주스 4
야무지게 골라서 3일 동안 비워 봐

Best Seller
46
나쓰메 소세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편

Beauty
50
눈 밑을 밝혀줄 컨실러 5종

Univ20
52
방전된 자들을 위한 갭이어

Interview
55
작가 정여울

Geek
60
여행책방 '일단멈춤' 송은정

Think
62
운명의 반쪽따위는 없어

Puzzle
64
기명균의 낱말퍼즐

20's Voice
66
가장 인간적인 인간

Ask Anything
74
진지충이라서 고민입니다

EDITOR'S LETTER

+

Staff

editor in chief

전아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기분이 몹시 좋습니다. 이 기분을 어떻게든 지면으로 전해드리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아마 여러분만큼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방학이니까요!

방학은 새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오들을 리셋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고, 이제부터 무엇이라도 이룰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기죠. 「대학내일」도 방학 기간 동안 4번의 휴간이 있어서 주간 마감 시스템에 허덕이던 심신을 리프레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는 뭘 할까?' 마음 설레곤 하죠. (참고로, 「대학내일」은 7월 11일, 7월 25일, 8월 1일, 8월 15일에 휴간합니다.)

우선, 잠시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어떤 주말에는 책에 빠져 지내는 셰익스피어 배케이션을 만끽하고 싶고요. 늘 숙제처럼 여겨지던 운동도 시작해야겠습니다. 알음알음 독학해오던 일본어도 본격적으로 배워도 좋겠죠. 그러고 보니 아직 이사한 집도 제대로 꾸미질 못했는데….

계획을 세우려고 보니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이것저것 일정에 우겨넣어봤자, 쉽게 지치기만 할 뿐이겠죠. 이때야 말로 의지를 발휘할 때입니다.다. '포기'하기 위해서요.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을 포기하고 있었다. 시간을 포기하고, 돈을 포기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한 다음,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결국 인생은 어떤 것을 포기하는가의 문제다."

김중혁 작가가 그의 산문집 『뭐라도 되겠지』에 쓴 문장들입니다. 사실 저는 포기를 참 못합니다. 뭐든 다 끌어안고 있죠. 하하. 그래서 저 말이 더 와 닿았습니다. 이제는 '포기를 못하는 것'도 제 성격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올여름에는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겠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일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포기하는 겁니다. 긴 여행도, 여름밤 술자리도, 운동도, 어학 공부도… 일단은 가을로 미뤄두려고요.

다가오는 여름방학에는 우리 모두 포기하는 힘을 발휘해봅시다! 조금 이상한 말이기는 하네요. 유혹에 흔들리는 게 특기이자 취미인 저보다 여러분이 더 성공적인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대학내일」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방학도 「대학내일」과 함께해요!

Contents Team

+

발행 · 편집인 김영훈 batcong@univ.me

팀장 이정섭 munchi@univ.me

Brand Journalism Part

+

부팀장 정문정 moon@univ.me

에디터 김초롱 rong@univ.me
주태환 joo@univ.me
박정욱 wook@univ.me
김수현 soo@univ.me
김준용 dragon@univ.me

사원 이승은 lidy@univ.me

Magazine Part

+

편집장 전아론 aron@univ.me

에디터 김신지 sirin@univ.me
기명균 kikiki@univ.me
이민석 min@univ.me
조아라 ahrajo@univ.me
김슬 dew@univ.me

교정교열 차은선
디자인 팀장 김해정 kiko@univ.me
디자인 남미가 miga@univ.me

Digital Media Part

+

에디터 조웅재 woongja1@univ.me
홍승우 sseung@univ.me
김혜원 hyewon@univ.me
백수빈 bin@univ.me
김효은 hihyo@univ.me
양주연 chuu@univ.me
강민상 ninsan@univ.me
김상구 hosijora@univ.me

매니저 김가언 kge@univ.me

사원 김지현 uujuinn@univ.me
유승서 lizyoo@univ.me

STAFF

공동 대표 유영기 김영훈
이사 김창배 이태영

마케팅 전략본부
본부장 김창배
팀장 박배길 탁귀영
수석 이수이 박지호 황정은
책임매니저 이수지 임영화
책임에디터 김효선
파트장 박종남
매니저 김규태
사원 김다희 배용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본부
본부장 이태영
책임매니저 신가은
책임에디터 신청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조인천
책임매니저 김지혜
매니저 김예림 신예지 유리나 박미소 손유리 송태광 조하니 양현정
사원 이혜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2팀
팀장 김우준
책임매니저 신현정
매니저 김영현 홍보미 육혜진 한희진 이재우 이인재
에디터 황혜원 김민정
사원 백소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3팀
팀장 김부진
수석 안길상
책임매니저 나현아 문왕기 이지연 조소라
매니저 허이슬 손기석 권오태 김동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4팀
팀장 김종원
책임매니저 박준하 홍성우
파트장 유제문 유진혁
매니저 신재영 최규성 김형민 이준호
사원 서창호 안창민 정기현 정희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5팀
팀장 이성진
수석 정진현
책임매니저 김동주
매니저 양상범 명범준 박정은 송승화 홍선아 손혜지
사원 권민희 박상헌 최은원

디지털커뮤니케이션본부 크리에이티브센터
본부장 이수호
센터장 조민형
책임매니저 이윤경
매니저 전단비
사원 탕예

디지털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김범준
부팀장 김현승
매니저 남승혁 강희은 우병조 김현주
사원 고민지 김동규 김찬우 이상복

디지털커뮤니케이션 2팀
팀장 차정기
매니저 권가람 권예빈 김민주
사원 서해지

디지털커뮤니케이션 3팀
팀장 방수진
책임매니저 이진희 이교영
매니저 홍새봄 김애리
사원 신예지 박소영 황주랑

디지털 콘텐츠팀
팀장 이성진
매니저 김채현 정진복 서준원 이연제 양준호 권예슬
사원 최현정 신수림 이경민 황미나

디지털 디자인팀
팀장 이혜정
매니저 유호정 박지성 김다은
사원 김유진 오선정 오은정 조현상 전계은

공공커뮤니케이션팀
팀장 박강두
수석 진우경
책임매니저 강국현
매니저 김민아 박윤희
사원 최수지 송정훈 이상엽

20대연구소
소장 박진수
수석연구원 김영기
책임연구원 호영성 문송이 송혜윤
연구원 이재흔 임희수 이은혜
에디터 남민희
사원 임다정

SNS전략제안연구소
소장 정은우

이비즈(E-Biz)팀
팀장 권판진
수석 임남훈
책임매니저 고은영 김부록 하윤희 강주빈
매니저 이은주 김상호 심재운 김진의
사원 박혜진 신수진

경영지원팀
팀장 김운선
수석 김소연 박옥인
매니저 김주은

인재경영팀
매니저 김이슬 김예지

인턴 위지영 유아연 박찬호 임지혜 조혜림 송준한 김나영 이재명 송미경 배소영 서정화 강유진 강지인 조희원 김하린 천지수 홍혜원 김태연 배진희 오희영 강은지 정민하 서지운 공민정 이유라 김지후 김혜민 이아름 이정은 이주연 신호영 최소혜 심지현 유경주 김경민 정다원 정연문 정은미 김소연 이나윤 이세진 이은경 김승규 한은지

마케팅리베로 김경진 김나래 김나영 박민준 윤길주 이혜수 정다은 최은진 송준한

유니피알팀 김민우 김보라 김수민 김윤경 김은진 박세영 박혜린 신수진 유한솔 임지영 지희원 현영호

인쇄 프린피아
대표번호 02-735-3800
팩스 02-735-0005

등록번호 서울다 05909
등록일 1999년 7월 9일
주소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43, 인성빌딩

(주)대학내일 홈페이지 http://univ20.com/
20대 연구소 홈페이지 www.20slab.org

BEAUTY ITEM

표지모델 인생템

Editor 이정섭 munchi@univ.me

건강한 매력을 가진 다운씨의 뷰티 아이템

18

Beauty Item

맥틴트 버시컬러 스테인 에너지샷

맥

피부가 어두운 톤이라 핑크 계열이라면 멀리하는데 이 제품은 립 메이크업이 끝난 후 위에 발라주면 자연스럽게 블렌딩되면서 색이 오묘해져요. 남자친구가 선물해준 제품인데, 우리나라에선 구하기 힘든 컬러라고 들었어요. 피부가 까맣든 하얗든 다 잘 어울리는 베이비핑크립이에요.

오 마이 래쉬 밀착카라 볼륨&컬

에뛰드하우스

일상생활 화장을 할 때 아이라인은 안 해도 마스카라는 꼭 하는 편이에요. 다른 브랜드 제품을 많이 써봤는데 뭉치기도 잘 뭉치고 번졌어요. 이 제품은 솔이 얇아서 아래 속눈썹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팁을 드리자면 마스카라를 살짝 굳힌 후 쓰시면 번지는 게 조금 덜 해요.

보테니컬 케익 아이브로우

네이처리퍼블릭

이 제품으로 눈썹뿐만 아니라 코, 애굣살, 턱 쉐딩까지 같이 해요. 주위에서 어느 쉐딩 제품 쓰냐 할 정도로 효과가 좋은 제품이에요. 가격도 아주 저렴해서 학생들이 쓰기에도 좋아요.

산소수 라이트 선 젤

식물나라

가볍고 산뜻한 느낌이 매력적인 선 젤이에요. 촉촉한 젤 타입이라 번들거림이 없이 피부에 스며들고 수분감이 풍부해요. SPF50+에 PA+++라 자외선에서 피부를 충분히 지켜주면서도 파라벤, 미네랄오일, 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타르색소가 없어 피부에 순해요. 데일리 선제품으로 추천해요.

OUT CAMPUS

기업 입사 시 도움되는 대외활동 BEST 4

Editor 캐미언니 outcampus01@naver.com

재미는 덤, 우수 활동자가 되면 취업에 도움되는 꿀 대외활동 추천!

그래 바로 너!

+

취업에 도움되는 활동 말고 뭣이 중한디

01

CGV 공채 및 인턴십 지원 시 도움되는 활동

영화 보러 갈 때 CGV 영화관만 가는 친구는 집중하자! CJ CGV 극장 모니터링과 최근 마케팅 이슈에 대한 트렌드를 조사하는 꿀잼 대외활동이 있어. CGV TOC 9기가 되면 매월 20회 영화 관람을 지원받고 CGV 마케터들의 생생한 마케팅 멘토링도 받는다는 사실! 우수 활동자가 되면 해외 연수부터 CGV 공채 및 인턴십 지원 시 가산점도 받을 수 있대. 영화 마케팅에 관심 많은 너에게 강력 추천!

주최 CJ CGV
기간 2016년 6월 23일(목) 마감
주의 CGV 극장을 내 집처럼 사용할 수도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www.cgv.co.kr

02

SK그룹 공채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인 활동

나는 죽어도 SK그룹에 들어가고 싶다는 친구는 집중하자! SK그룹 채용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활동이 있어. SK Careers Editor 4기가 되면 콘텐츠 작성법 특강도 받고, SK 관계사 채용 담당자를 직접 만나 취업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대! 활동 수료 후 SK그룹 공채 및 인턴십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 지원해볼 만하지 않아? SK그룹에 뼈를 묻고 싶은 너에게 강력 추천!

주최 SK그룹
기간 2016년 6월 30일(목) 자정 마감
주의 너무 몰입해 입사 전에 SK그룹 관계자와 호형호제 할 수도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www.skcareersjournal.com

03

현대제철 신입사원 채용 우대인 활동

재활용이 몸에 배어있고 버릴 물품을 다시 써서 새 생명을 만들어 내는 친구는 집중하자! 해피예스에서 재활용품에 나만의 디자인 감각을 더해 활용도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 시켜봐. 힘들기만 한 봉사활동이 아닌 재미있는 봉사활동이 될거야! 해피예스 수료 시 현대제철 신입사원 채용 우대와 해피무브 홍보단 파견 기회까지 주어진대! 일상생활이 친환경적인 너에게 강력 추천!

주최 현대제철
기간 2016년 6월 26일(일) 자정 마감
주의 업사이클링 장인으로 세상에 알려질 수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http://bit.ly/28Dy4VX

04

한국전력공사 체험형 인턴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인 활동

홍보활동에 일가견이 있는 친구는 집중하자! 전력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온 · 오프라인으로 한국전력공사를 홍보하는 서포터즈, 그리고 그들을 취재하고 실시간으로 리포팅하는 아나운서가 되어봐. 우수 활동자는 포상금도 받고 한국전력공사 체험형 인턴 지원 시 서류 전형이 면제, 면접 전형 가산점도 있대! 공기업 입사에 관심 많은 너에게 강력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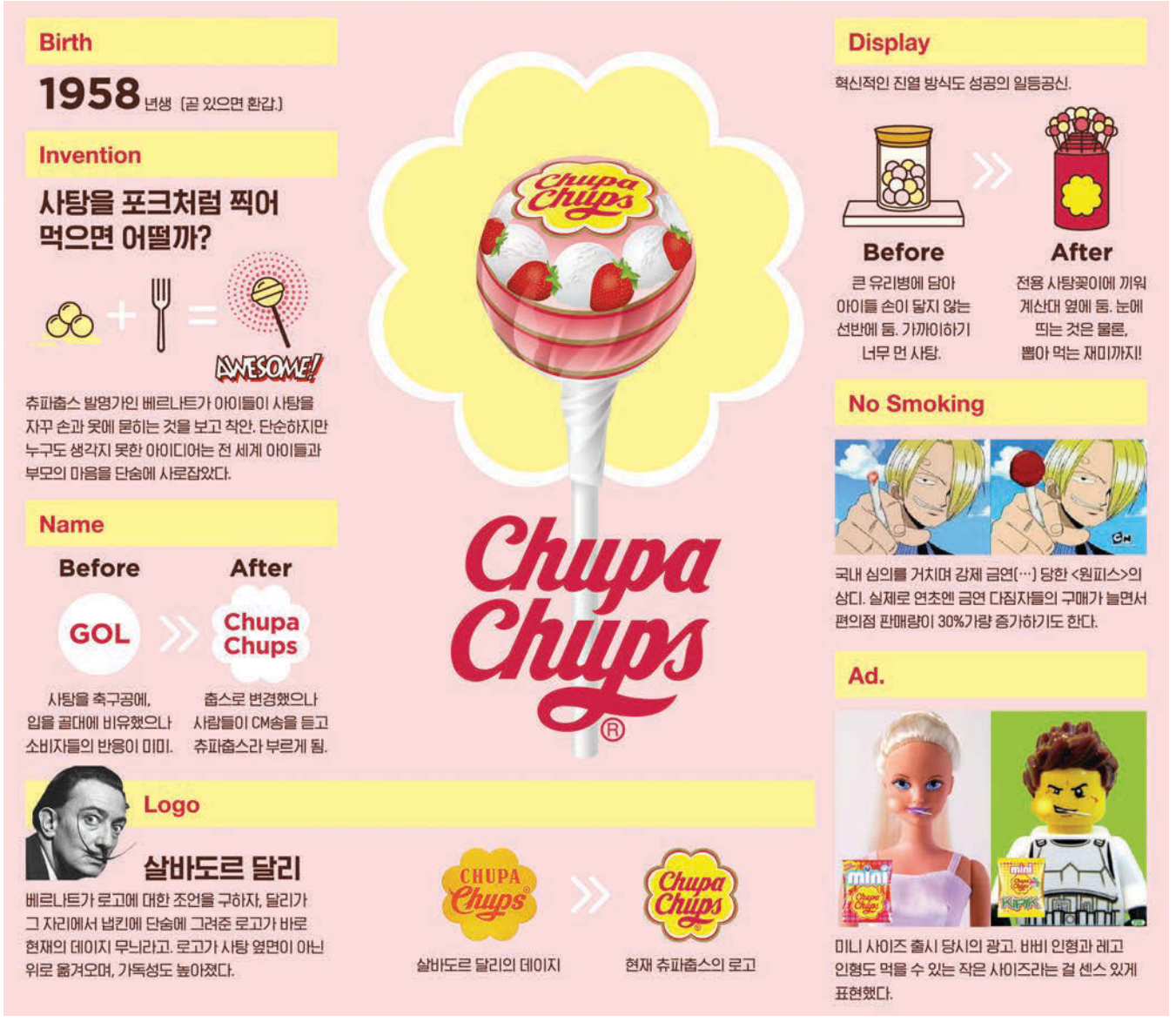
주최 한국전력공사
기간 2016년 6월 24일(금) 마감
주의 온 · 오프라인 홍보에 너무 몰입해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www.kepco.co.kr/supporters

INFO REVIEW

20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막대사탕

Editor 김신지 sirin@univ.me | Illustrator 김지현

츄파춥스 딸기크림 맛



심각할 필요 없잖아? Life Less Serious

어린 시절,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삼십 분 정도 됐다. 아이에겐 더 멀게 느껴졌을 그 길을 오갈 때 내 입에는 늘 막대사탕 하나가 물려 있었다. 달달함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사탕을 물고서 타박타박 걷는 길은, 지루하지도 외롭지도 않았다. 하기 싫은 숙제에 대한 부담도, 낮에 들은 친구의 말에서 느낀 서운함도, 줄어드는 사탕과 함께 점점 작아지고 작아지다 사라져버렸다. 뽕! 남은 건 하얀 막대뿐. 웬만한 일은 다 별거 아닌 걸로 만들어주던 마법. 한동안 그 마법을 잊고 살다가, 몇 해 전 편의점에서 츄파춥스를 한 움큼 사온 친구 덕에 다시 사탕을 입에 물었다. 달달함이 입안에 천천히 퍼져갈 때 새삼 떠올랐다. '심각할 필요가 없잖아?' 싶어지던 그 기분이. 스페인에서 만든 츄파춥스 캐릭터 '척'은 광고 영상 속에서 뭐든 열심인 사람들 틈에 앉아 평온한 표정으로 오물오물 츄파춥스만 먹는다. 괜히 심각했던 게 약간 무안해질 정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열심인데다 너무 자주 심각하기까지 하므로, 츄파춥스의 이 슬로건은 옳다. Life Less Serious! 명수옹도 야무지게 말하지 않았던가. "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콤해진다.

난희난희 망난희

글/그림 난희

대학교 학점의 법칙

21

ABOUT FOOD

아이스크림에 대한 아주 사소한 궁금증 5

Editor 김슬 dew@univ.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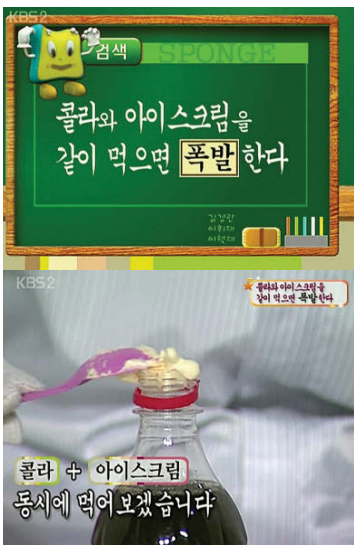
잠깐 떠올랐다가 아이스크림과 함께 녹아버렸던 의문들

Q1 아이스크림은 진짜 유통기한이 없어?

가끔 포장을 뜯었는데 모양이 아주 자유분방하다거나, 모양은 그대로인데 왠지 모르게 오래된 듯한 아이스크림을 만날 때가 있다. 잠깐 찜찜한 마음이 스쳐 가지만, '얼린 건데, 뭐' 하며 쿨하게 입속으로 직진. 언제 만들어졌는지, 먹어도 되는 건지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사실 문제될 것은 없다. 현행법상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니까. 생산부터 유통, 보관까지 모두 냉동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대신 '제조일자'를 표기하는데, 아무도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는 게 함정. 그러나 한 해 아이스크림의 변질, 부패, 이물질 등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는 80~120여 건에 이른다. 처음 언급했던 사례들에 대해 유추해볼까. 모양이 제멋대로인 아이스크림은 여러 판매처를 전전하며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세균이 무럭무럭 자라났겠지. 오래돼 보인다고? 긴 시간 팔리지 않아 후임들을 다 내보내고도 남아 있는 냉동고의 고참일 것이다. 만들어진 지 1년이 넘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아이스크림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개월. 그 기간이 지났다면 당신은 이미 오래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것이다.

Q2 아이스크림과 콜라를 같이 먹으면 진짜 폭발하나?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필수적인 것 중 하나가 '공기'다. 공기를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에 따라 식감이 달라지기 때문. 콜라와 아이스크림을 한꺼번에 먹으면, 콜라의 이산화탄소가 아이스크림의 미세한 공간에 들어가 급작스럽게 부피가 팽창한다. 그래서 뿜게 되는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입 밖으로 흘러나오더라. 폭발하듯이 팍 터지는 게 아니라 뭉글뭉글한 탄산이 계속 차올라서 안 뱉고는 못 배기게 된달까. 힘들게 폭탄주 탈 필요 있나? 앞으로 술자리 벌칙은 너로 정했다…☆



Q3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어그로?

길을 가다 마주치는 수많은 소프트 콘 가게들. 목장에서 직접 짜온 우유 등을 강조하며 '프리미엄'이란 단어를 걸어놓는 집이 많다. 당연히 '겁나 맛있는'과 비슷한, 광고성 형용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 존재하는 것이었다. '프리미엄'뿐만이 아니다. 유지방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에 따라 아이스크림의 레벨도, 명칭도 달라진다.

셔벗

무지유 고형분 2% 이상

유지방이 없어서
아삭아삭

젤라또

유지방 함량 5~7%

제작할 때 공기를 적게
주입해 쫀득한 맛을 낸다

아이스밀크

유지방 2% 이상,
무지유 고형분 5% 이상

EX. 편의점 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유지방 6~10%
무지유 고형분 10% 이상

EX. 투게더, 호두마루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유지방 12% 이상

크림이 많아 보드랍고
칼로리가 높다.

EX. 배스킨라빈스, 하겐다즈

Q4 아이스크림의 조상님은 누구?

새롭고 힙한 아이스크림 가게가 우후죽순 생겨나도, 내 마음의 베이스캠프는 늘 '뽕따'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코흘리개 시절을 함께해주었으며, 지금도 '아이스크림'이란 단어를 읊으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아주 오래된 아이스크림들. 지금까지 냉동고 한 켠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아이스크림의 조상님들을 회상하다 궁금해졌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진짜 조상님은 누구인지.

1970년 부라보콘

무려 46세!
새내기들의 아빠뻘

1974년 투게더

1976년 바밤바

1981년 빠삐코

1983년 돼지바

2003년 설레임

23

Q5 아이스크림 먹으면 숙취가 없어져?

술이 얼큰하게 올라왔을 때, 벌게진 얼굴로 아이스크림을 골라본 적 있을 것이다. 본능적으로 그랬겠지만 잘한 행동이다. 술을 마시면 이뇨 활동이 활발해져 몸의 수분이 많이 배출되는데, 아이스크림이 이를 보충해주기 때문. 달달한 맛이 당분을 챙겨줘 정신 줄을 붙잡아주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차가운 기운이 밀려들어오면서 더러워진 간을 씻어 내는 그 느낌을 좋아한다.

견뎌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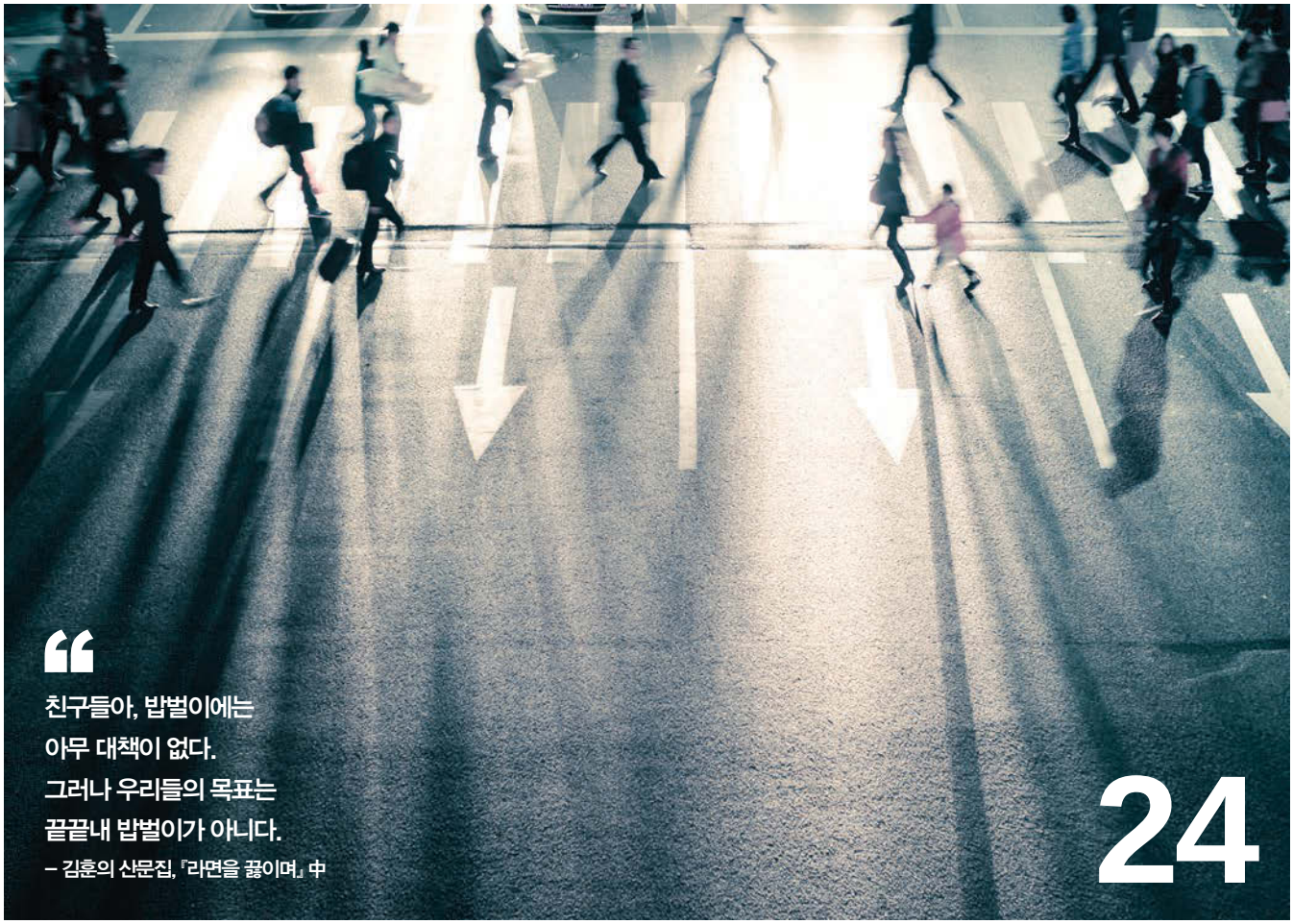
'위드미'에서 출시한 세계
최초 숙취 해소 아이스크림.
겉은 상큼 쌉싸름한 자몽
맛인데, 두 입 깨물면
헛개나무 농축액이 딱! 삼천만
꽐라들을 위해 이런 제품을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 귀엽다. 요번 불금은
이걸로 숙취를 견뎌볼까.

SENTENCE

밥벌이의 무게

Editor 김준용 dragon@univ.me

사회에선 그 어떤 일도 소중하다. 다만 그 일이 나에게도 소중한가.



"아, 밥벌이의 지겨움!!" 담백하고 마른 글을 쓰는 작가 김훈이 느낌표를 두 개나 쓰면서 강조할 정도로 밥벌이는 네버엔딩이다. 밥은 한두 끼를 먹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먹어야 한다. 우린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밥을 벌어먹어야만 하는 운명인 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우리들이 끝끝내 밥만 벌어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한다. 밥벌이 때문이 아니라면, 우린 왜 아침마다 일터로 나서야 하는 걸까. 가만히 생각해본다. 숱하게 밤을 새우며 공부하던 취준생 시절, 내가 얻고자 했던 게 정말 밥벌이만이 아니었나? "이것을 벌기 위하여 이것을 넘길 수가 없도록 몸을 부려야 한다면 대체 나는 왜 이것을 이토록 필사적으로 벌어야 하는가." 허공에 던진 작가의 물음이 내게 꽂혔다.

얼마 전 취업에 성공한 친구를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취업 성공 스토리를 들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까지 듣고 나서 한 잔을 꺾었다. 그러곤 자연스럽게 '얼마'로 넘어갔다. 언제부턴가 당연해진 취준생의 육하원칙. 왜 대신 얼마가 들어간 순간, 일은 밥벌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됐다. 그런데 우린 그 지겨운 밥벌이조차 쉽지 않다. 밥벌이만 할 수 있다면 구직의 늪에서 허덕이는 것보단 나을 것이다. 그 일이 단지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의 한자리를 차지하는 일이라 해도. 이런 때에 우리의 목표가 밥벌이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향하며 나는 작가의 물음을 다시 썼다. '사회에선 그 어떤 일도 소중하다. 다만 그 일이 나에게도 소중한가.' 그 소중함에서 밥벌이의 무게를 가늠해본다.

English is my life!

L사 영업총괄팀 안지선

미국 유네스코와 포스코 베트남 지사에서 인턴 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L사 영업총괄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돌아보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준 중심에는 바로 '영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새로운 길에 도전하기에 앞서 늘 맞닥뜨려야 했던 영어 면접. 오늘은 그때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한 건 대학 입시 준비와 함께였어요. 재수를 했는데 영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영어 특기자 전형을 노렸거든요. 주변에선 '외국 살다 온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느냐'고 만류하는 사람들뿐이었어요. 그런데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영어를 잘하지 않았을 뿐 정말 좋아했으니까요. 재수생 시절, 책 살 돈이 부족해 무료 온라인 토익 자료나 토익책 1권을 3~4번씩 다시 보며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진단이 필요할 땐 토익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 토익 시험을 보며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도 분석했고요. 토익책 뒤에 붙어있는 듣기용 CD를 하루에 10시간 정도씩 들은 것 같아요. 같은 대화 내용을 계속 듣다 보니 그 안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1년간 열심히 토익 공부를 한 결과 점수가 900점 대 중반까지 나왔고 영어특기자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죠.

입학 후엔 스피킹 공부를 병행했어요. 원어민 과외를 받은 적은 없지만 한국으로 카우치 서핑을 오는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떠는 일이 잦았어요. 토익 공부가 튼튼하게 바탕이 돼있었던 상황이라 스피킹 실력도 함께 늘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스피킹이 대세라 거기에만 몰두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토익과 같은 영어 시험 공부를 통해 기본 실력을 쌓아두면 보다 상황에 맞는 풍부한 어휘로 격이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3학년이 됐을 때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났고 유네스코 인턴에 도전했어요. 당시 면접관이 아프리카 분이셨는데 면접은 비교적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죠. 주로 제가 살아온 경험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어요. 준비한 것들 100% 다 쏟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노력한 시간은 배반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후 포스코 베트남 지부에서 다시 인턴을 하게 됐는데 주어진 문장을 영어로 얘기하는 수준이라 사실 걱정했던 것만큼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무를 시작한 뒤 업계 용어를 정확히 번역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멘붕에 빠졌죠. (웃음)

귀국 후 취업 준비를 하며 또 다시 토익 공부를 시작했어요.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당시 영어 면접 질문이 '요가 할 줄 알아요?', '이 신문 기사를 읽고 한 줄로 요약해 보세요'와 같은 일상적인 것들이었어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평소 해온 영어 공부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대답한 결과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죠. 궁극적으로 영어 면접을 잘 준비한다는 건 평소에 영어와 그 문화권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그것을 생활화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안지선 씨가 말하는 영어 면접 준비 TIP

하나,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 보세요

영어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 뒤 그것을 찬찬히 읽으며 녹음해 보세요. 녹음한 내용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떤 발음이 부정확한지, 답변 시간은 적당한지 체크할 수 있어 단기간에 실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돼요.

둘, 영어 면접 스터디를 활용하세요

영어 면접 스터디는 꼭 참여해 보세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얻는 정보가 꽤나 쏠쏠하거든요. 같은 질문에 대한 내 답변이 친구들 것보다 흥미로운지 그 표현 방식은 적절한지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셋, 다양한 외국인 친구를 사귀세요

외국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참석하세요. 아무리 작은 경험이라 해도 그게 모이면 결국 외국인을 만나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 결과적으로 영어로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줄 테니까요.

WHY ENGLISH MATTERS
Presented by ETS TOEIC

CRITIC

노래뿐인 음악 예능

Editor 기명균 kikiki@univ.me

'다른 동네' 음악대장들도 보고 싶어요.

> 다시 음악 예능의 전성기다.

tvN 〈슈퍼스타K〉 이후 오디션이 쏟아졌고, MBC 〈나는 가수다〉는 실력파 가수들을 방송 무대에 세웠다. 그 뒤로는 아이디어 싸움이었다. '모창'을 키워드로 JTBC 〈히든 싱어〉가 만들어졌고, SBS 〈판타스틱 듀오〉나 MBC 〈듀엣 가요제〉는 '조화'를 부각시킨다. 연일 화제가 되는 MBC 〈복면가왕〉의 묘미는 '재발견'이다. 이처럼 예능 제작자들은 포인트만 바꿔가며 집요하게 시청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결과는 성공적이다. "음악 예능 지겹다"던 시청자들도 어느새 임창정 · 김범수 · 태양이 함께 부르는 '눈, 코, 입' 영상을 공유하고, '우리 동네 음악대장'의 다음 노래를 목 빠지게 기다리게 되었으니.

프로그램들의 제목을 보면 제작진들이 음악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지 감이 온다. 복면'가왕', 신의 '목소리', 판타스틱 '듀오', 히든 '싱어'까지 노래 부르는 사람에 집중돼 있다. 제작진의 선택은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부담 없이 노래방에 가듯 음악의 가장 친숙한 요소 역시 '보컬'이니까. 그러나 이만큼 다양한 음악 예능이 제작되고 있음에도 음악의 다른 부분이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 음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작곡가'나 '세션'들은 음악 예능에서 엑스트라에 가깝다. 한 줄 자막으로라도 짧게 소개되면 다행이고 대부분은 조명 없는 그늘, 무대 뒤가 그들의 자리다. 작 · 편곡과 악기 연주도 노래 못지않게 재능과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그들의 작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얼마든지 완전히 새로운 음악 예능을 만들 수 있다. 파일럿 방영을 거쳐 정규 편성이 확정된 tvN 〈노래의 탄생〉처럼.

악보 한 장이 공개된다. 처음 듣는 가사와 처음 듣는 멜로디. 누가 쓴 곡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김형석, 윤상, 윤도현 등 프로듀서는 악보만 보고 40분 안에 노래를 완성해야 한다. 15분만에 냉장고를 털어 요리 한 접시를 만드는 것도 신기한데, 악보 한 장으로 40분 만에 무대를 꾸미라니. 다행히 스튜디오에는 국내 최정상의 세션들이 대기하고 있다. 프로듀서는 편곡 방향을 고려해 기타, 드럼, 베이스, 브라스 세션, 스트링 세션, 특수 악기까지 '드래프트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보컬도 편곡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악기' 중 하나다. 오랫동안 가요계에서 함께 일해 온 프로듀서와 연주자들은 눈빛으로 얘기한다. 척 하면 척. 맡은 파트를 소화하는 동시에 전체의 조화를 생각하는 태도에서 내공이 느껴진다. 프로듀서별로, 연주자별로 성향이 다르니 같은 악보를 보고도 40분 뒤엔 전혀 다른 노래가 두 곡 탄생한다. 시청자들은 '얼마나 잘하나'보다 '어떻게 해석하나'를 비교하게 된다.

밴드 공연의 감동 중 하나는 보컬이 멤버들을 소개하는 순간이다. 맡은 역할과 이름을 외치면 해당 멤버는 수줍은 듯 흥분을 감추며 짤막한 솔로 연주로 화답한다. 한 명 한 명을 모두 소개받고 나면 밴드의 음악이 새롭게 들린다. 시크한 베이스, 꼼꼼한 드럼, 자유로운 기타. 음악은 보컬만으로 탄생하지 않는다. 이제 TV에서도 보컬 외에 어떤 사람들이 노래를 함께 만들고 있는지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됐다. 음악 예능은 이미 충분해 보이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음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작곡가'나 '세션'들은 음악 예능에서 엑스트라에 가깝다.
한 줄 자막으로라도 짧게 소개되면 다행이고
대부분은 조명 없는 그늘, 무대 뒤가 그들의 자리다.

2016 SUMMER

직·업·탐·방

덕담파티

너님이 무슨 직업을 원하는지 몰라 다 준비했다!

현직자 16명의 취업 경험이 담긴 덕담 투척!

무적 멘토들과 함께하는 한여름 밤의 덕담 릴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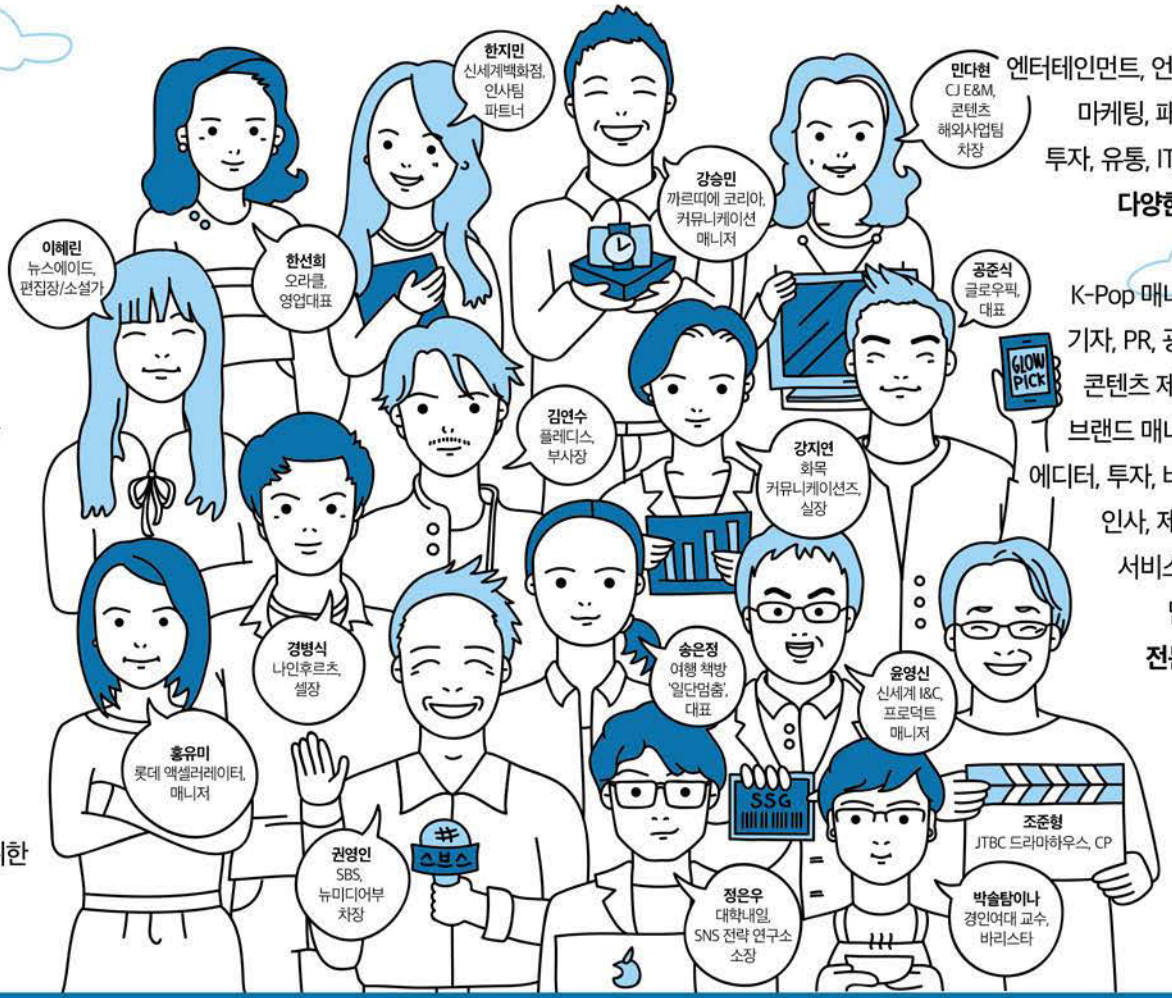
참여대상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아직 모르는
대학생

남들이
준비하는대로
따라하고 있는
취준생

사직서 던질
상상만 하는
사회초년생

그리고 지금
이 포스터를
보고 있는
바로 너님을 위한
P.A.R.T.Y!



엔터테인먼트, 언론, 광고, 마케팅, 패션·뷰티, 투자, 유통, IT,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K-Pop 매니지먼트, 기자, PR, 광고기획, 콘텐츠 제작·수출, 브랜드 매니지먼트, 에디터, 투자, 바리스타, 인사, 제품 기획,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모였다!

7/6 수 – 8/27 토

매 수요일 19:30
주 토요일 19:00

북촌 백상정사 야외마당

우천시 변경될 수 있음

6월 23일(목)부터 접수
자세한 사항은
대학내일 20대연구소 홈페이지 **20slab.org** 공지사항 참고

주최 대학내일 20대연구소 / 비웨이브 커뮤니케이션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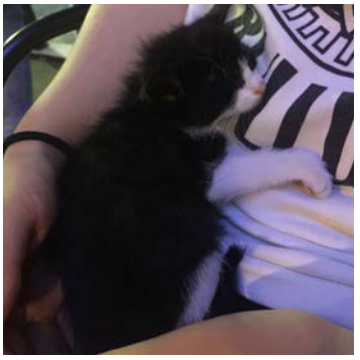
야옹이를 부탁해

Editor 조아라 ahrajo@univ.me

한양대와 고려대에는 고양이 집사들이 있다.

한양대 '십시일냥'

※ 사진 출처: 한양대 '십시일냥'
한양대 공대 사진동아리 '빛담' 최남정



귀여워만 말고 잘해주라옹

며칠 전, 집 앞에서 고양이가 그르렁거리고 있었다. 흑설탕 솜사탕처럼 복실복실한 아이였다.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도도하다고 하던데, 그 녀석은 달랐다.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내 쪽을 향해 곧장 걸어왔다. 누군가가 야옹야옹 소리에 마법의 가루라도 탄 걸까? 귀여운 소리에 홀린 나는 그쪽으로 총총 걸어갔다. 야옹이는 금방이라도 내 다리에 몸을 부빌 기세였다. 내 입에선 혀 짧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오구오구 이리 온~" 우리 사이의 불꽃을 본 친구가 냉정하게 얘기했다. "넌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간택당하면 안 돼. 나중에 고양이가 속상해해." 그렇다. 사실은 친구 말이 맞다. 우쭈쭈 쓰다듬고 애정하는 것과, 한 생명을 보듬으며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다. 그러나 만약 귀여워하는 에너지를 '돌봄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면? 한양대에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십시일냥'은 이렇게 탄생했다.

예뻐도 귀여워도 냥줍은 노노하다옹

"아기 고양이가 불쌍해 보여도, 무작정 데려가서는 아니 되옵니다!" 한양대 '십시일냥'이 캠퍼스에 붙인 벽보의 제목. 아래에는 '어미는 아기를 위해 먹이를 구하러 간 거예요'라는 설명이 덧붙었다. '십시일냥'은 뭘 하는 동아리일까? 정민수(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 09) '십시일냥' 대장 집사가 답했다. "학교 안 길고양이 20마리 정도를 돌보고 있어요. 학교 안에 급식소 5곳을 놓았죠. 급식소를 담당한 회원들이 틈틈이 사료를 주고 있고요. 특히 봄이 되면 아깽이(아기 고양이)들이 많이 태어나요." 학교에서 본 벽보 이야기를 꺼냈다. "가급적 냥줍(고양이 데려가기)은 안 하려고 해요. 사람 손을 타면 엄마 고양이가 버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다만 엄마 고양이가 죽거나 아기를 유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아깽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주지요. 지금까지 2마리를 입양 보냈습니다."

인권만 있어? 동물권도 있다옹!

올 3월에 생긴 따끈따끈한 '십시일냥'. 어떤 마음으로 이 모임을 만들었을까? 정민수 대장 집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동물권에 관심이 많았어요. 학교에서는 길고양이들의 인기가 높은데, 돌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어요. 이 인기를, 돌보는 에너지로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사료 값이며 병원 치료비는 어떻게 충당하는지 궁금했다. "병원 검사비가 14만원 정도예요. 지금은 회원 한 명당 1만 5000원씩 회비를 걷고 있죠. 다행히도 4월에 서울시 청년허브 프로젝트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게 됐어요. 물품을 후원해주는 분들도 계세요." 얘기를 듣다 보면 꼭 동물 애호가여야만 참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저도 스스로 동물 애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동물권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공익적인 단체가 참 많은데, 사람을 위하는 동아리가 절대 다수잖아요. 생명의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면 좋겠어요."

29

고려대
‘고양이 쉼터’

※ 사진 출처: 고려대 ‘고양이 쉼터’

냥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정희영(고려대 정치외교학 14) 학생은 지난해 말 학교에서 고양이를 돌보는 소모임 ‘고양이 쉼터’를 만들었다. “2015년 12월에 시작된 단체예요. 그해 겨울은 정말 많이 추웠거든요. 때마침 학교에서 녹색당이 활동하는 모습을 봤어요. 캠퍼스의 길고양이를 위해 겨울 쉼터를 설치하고, 사료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우리도 고양이에게 해줄 일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50명 정도가 활동하는 큰 모임이 됐다. 정 학생에게 ‘고양이 쉼터’을 만든 계기를 물었다. “물론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고양이가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시작하진 않았어요. 도시에는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 외의 다른 생명체도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고통 받는 친구들이 길고양이고요. 이 친구들의 생명권을 보장해주고, 사람과 함께 잘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배 부르다옹 잠이 온다옹

“처음에는 우리 활동에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었죠. 처음 ‘고양이 쉼터’를 만들었을 때였어요. 학교 커뮤니티에선 비난도 나왔거든요. 길고양이에게 왜 밥을 주느냐? 다 보호소로 보내버리지 등등. 하지만 활동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확실히 줄었어요. 그리고 길고양이는 어디에나 있어요. 지금 이곳의 고양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학교는 넓고 뒤에는 산도 있어요. 우리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길고양이는 무조건 이 공간으로 유입되지요. 요즘은 지나가는 고양이들 보면, 하루가 다르게 모질(털의 질)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음식도 잘 못 먹고 썩은 물을 마시다 보니 상태가 안 좋았는데…. 고양이들이 건강해진 모습을 보면 뿌듯하죠.” 페이스북 페이지 ‘고려대 고양이 쉼터’에는 재학생들이 제보한 고양이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때론 슬픈 날도 있지만…

힘든 날도 있다. 「대학내일」과 통화한 날, 정 학생은 자신이 구조한 아기 고양이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현재 ‘고양이 쉼터’는 절대 고양이 구조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어요. 다만 일반 학우의 입장으로 간혹 구조하곤 해요. 며칠 전 학생에게 제보를 받아 아기 고양이를 구조했는데요. 고양이가 설사를 하고, 영양 상태도 정말 좋지 않더라고요. 결국 오늘은 묻어주러 갔어요….” 구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다. “피부를 가볍게 다친 고양이들은 직접 치료할 수 있지만, 넓은 캠퍼스 전역의 고양이들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예산 문제도 있고요. 게다가 어떨 때는 도와드리고 다른 때는 안 도와드리면 곤란해지기도 하고요.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 전에는 축제 때 에코백을 만들어서 팔았고, 물품 후원도 받고 있어요.”

A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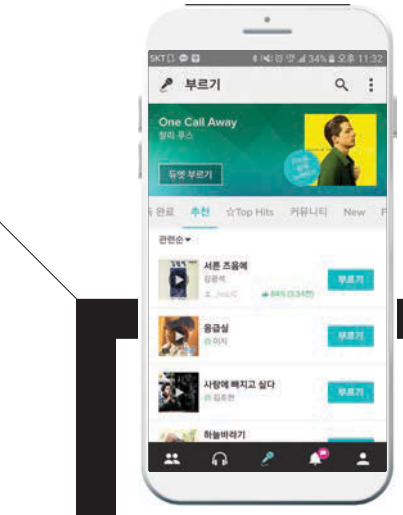
노래를 못 하면 **장가를 못 가요?**

Editor 박소연 parksoyeon7@gmail.com

코인노래방보다 싸고, 남 눈치 볼 필요 없으며, 이불 속에서도 즐길 수 있는 노래방이 있다. 스마트폰 노래방 앱이다. 기본적인 노래방 기능은 물론 다른 이용자나 가수와 듀엣을 하고 노래를 녹화해 공유할 수도 있다. 세상 많이 좋아졌네?

가격

처음 한 곡만 무료라 점심 메뉴 고르듯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음부턴 알짤 없이 광고 하나 보면 주는 5크레딧 모아 노래를 사야 한다. 보통 광고 7개 봐야 노래 하나 부른다. 빈 병 주워 콜라 사 먹던 어린 시절로 타임슬립한 느낌이다. 무제한 이용권은 한 달에 3600원. 스윙칩 간장치킨맛에 맥주 한 캔 사면 그 정돈데, 노래 전엔 술이 필수잖아? 난 아마 안 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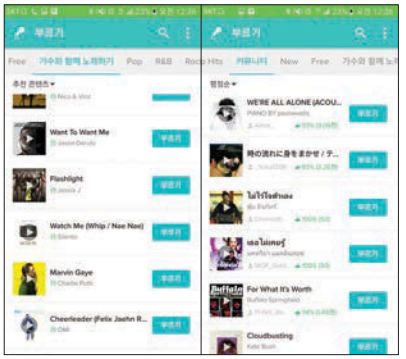


SING! 가라오케

개발사
Smule(스뮬)

총평

① 음정, 박자 맞춰주고 칭찬 듬뿍 주는 천사표 교생 선생님 느낌.
② 한국 노래가 별로 없어 외국 노래 부르다 혀 꼬이기 십상.
③ 돈 쓴 만큼 즐길 수 있다.



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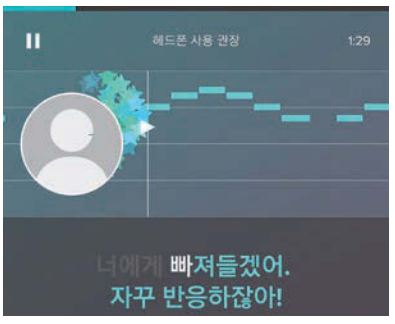
노래방 앱에 명성이 웬 말이냐 싶지만, 이쯤 되면 자랑할 만하다. 'Sing! 가라오케'는 5천만 이상의 유저를 보유한 세계 1위 모바일 노래방 앱이다. 미국 「뉴욕 타임스」, 영국 「가디언지」에도 소개됐다. 이제 「대학내일」에도 소개됐으니 삼관왕 달성이다. 축하한다. 올 초까지만 해도 YG엔터테인먼트와 오디션을 진행했다. 좀만 일찍 알았어도 YG 구내식당에서 먹방 찍을 수 있었는데. 기약 없는 오디션 재개를 기다려보자.

Sing!가라오케 아이콘
매직마이크XXL 정도는 될 듯한 큼직한 사이즈의 마이크 뒤로 미러볼이 번쩍인다. 뛰어가 마이크를 낚아채면 비온세가 돼 슈퍼볼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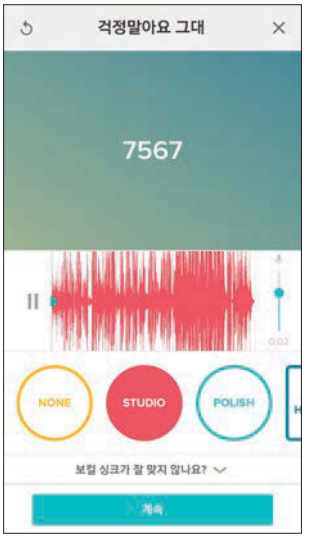
기능

멜로디 반주 지우면 점프 버튼 누르기 급급한 노래 존못들의 구원자가 나타났다. 리듬 게임처럼 화면에 음정, 박자가 표시돼 그것만 따라가도 기본은 한다. 애초에 구사가 불가능한 박정현st. 바이브레이션이나 음악대장st. 고음에 욕심 내지 말고 무난한 음역대의 쉬운 곡을 선정하면 18번을 새로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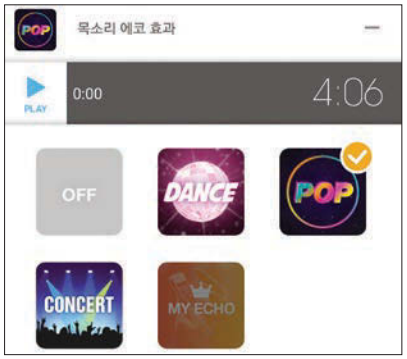


점수

목 터져라 불러도 70점 넘기기 힘든 노래방 기계와 달리 대충 불러도 5천 점은 주는 혜자 같은 앱이다. '무슨 노래를 불러도 동요처럼 들린다'는 평을 받는 에디터도 이 앱으로 7,500점 가뿐히 찍었다. 단, 높은 점수 나왔다고 우쭐해 썸남 데리고 노래방 가진 말자. 망신당하고 썸 깨지는 거 한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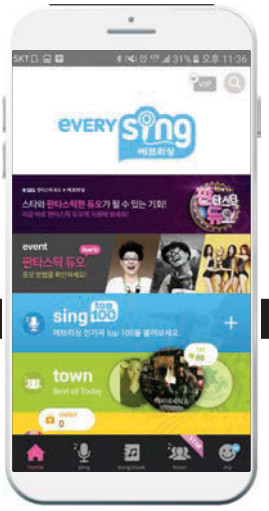
31



명성

명실공히 한국 최고의 노래방 앱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곡이 많고 듀엣 라인업에 SM 아이돌을 비롯한 한국 가수들이 포함 앞바다 과메기만큼 널려 있는 게 특징이다. KBS 예능 프로그램 〈판타스틱 듀오〉와 앱 제작사 SM이 오디션을 진행한다. 국적부터 성별, 나이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오디션계의 이순재. 왕년에 조용필 뺨 좀 쳤다는 할아버지 폰에도 깔아드리자. 할아버지가 EXO 후배 되면 카이 사인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에브리싱 아이콘
앱 리스트 내리다 지나쳐 다시 올라가게 되는 평범한 디자인이다. 그래도 동해 바다에서 어제 먹은 우럭의 쌍둥이 동생을 찾는 것보다는 쉬우니 됐다.



에브리싱

개발사 SM엔터테인먼트
그룹 에브리싱코리아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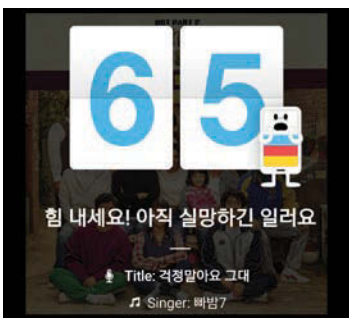
① 데뷔의 꿈을 심어주곤 짠내 나는 점수로 산산조각 낸다.
② 태연이랑 듀엣 부를 기회, 흔치 않다.
③ 이제 노래방에 돈 안 써도 된다. 만세!

가격

VIP 특별 이용권이 한 달에 2860원. 코인노래방에서 10곡 부르고 풍선껌 한 통 사 씹을 수 있는 돈이다. 혜택은 광고 제거, 보관함 기능 제공, 동요 무제한 이용 등 삼둥이 데려다 드림콘서트 열 거 아니면 딱히 필요 없어 보인다. 이미 3만 여 곡이 무료인데 뭘 또 돈을 쓰나. SM이 돈 벌려고 이 앱 내놓은 건 아닌 게 확실하다. 이수만 선생님의 눈동자에 치얼쓰.

점수

'Sing! 가라오케'하다 '에브리싱' 넘어오면 상처 받는다. B사감처럼 깐깐한 점수 시스템 탓이다. 10곡 넘게 불렀는데 한 번도 80점을 못 넘겼다. 당신도 마찬가지라면 절대 우울해하지 말자. 노래를 못 해서가 아니라 에브리싱의 심사 기준이 높기 때문이다. 이승철 앞에서 노래 부르는 〈슈퍼스타K〉 참가자가 된 기분이다. "제 점수는요!"



기능

고퀄 미디 라이브 반주음이 양 고막을 두드려 팬다. 여기에 목소리 에코 효과까지 더하면 여기가 바로 제주 만장굴이다. 막귀 에디터는 구분하지 못했지만 VIP 유저에겐 SM 음악 전문가가 세팅한 다양한 효과가 추가 제공된다. 그럴 리 없겠지만 구글 크롬캐스트가 있다면 TV와 연동해 집을 노래방으로 만들 수 있다.

PLACE

오늘은 핑크핑크

Editor 김슬 dew@univ.me

'분홍분홍'한 것들을 보면 왠지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린다. 볼 위로 피어나는 홍조, 부끄러워 내비치기 힘든 진심 같은 것들이 연상돼서. 그래서였을까. 분홍색으로 곱게 칠한 '기욤'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다양한 모양의 선물 상자들이었다. 멋스럽게 쓰인 로고에 차분한 핑크색, 열어보기도 전에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릴 것 같은. 하지만 더 기분 좋은 건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든 실망하지 않을 거란 사실이다. 프랑스인 기욤이 진짜 프렌치 디저트를 선보이고 싶단 마음으로 내놓은 빵과 마카롱, 에클레어가 반겨줄 테니까. 고소한 아몬드가 꽉 들어차 있는 '크로아상 오 자망드'가 베스트 메뉴. 바삭하고 촘촘한 크루아상 위에 산딸기 필링이 수놓인 '프레셔 프랑보아즈'도 돌아서면 생각나는 마성의 디저트다. 카페를 나서는 길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만 먹긴 아쉬워서 두 가지 빵을 신중하게 골랐다. 청순한 종이 백에 담긴 나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 크로아상 오 자망드 3800원, 프레셔 프랑보아즈 3000원, 레몬 에끌레르 5900원.

ADD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86 한성빌딩
TEL
02-792-6701
HOUR
07:30~22:30 명절 휴무

32

가장 분홍의마음을 너에게 줄게 기욤

+
Editor 김슬 dew@univ.me
Photographer 이서영

네니켈거아ㄷ응 금ㄹ 나 ㄱ러ㄷ응

사는 게 참 핑크핑크하네 빈티지보니

+
Intern 이유라 ura@univ.me
Photographer 이서영

익선동의 골목길, 우연히 지나던 발길마저 붙잡는 공간이 있다. 핑크핑크한 기운이 넘치는 이곳은 빈티지 마니아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빈티지보니'다. 개성 강한 두 모녀가 함께 운영 중인 곳으로, 한 편에는 작가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직접 외국에 나가 구입해 온다는 옷과 소품들은 이곳이 아니면 구경하기도 힘든 희귀품들. 가지런히 걸려 있는 원피스들은 만져보고 입어보며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다. 단,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이라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하자. 장바구니엔 못 담아도 마음엔 담을 수 있으니 너무 서운해 말자구.(찡긋) 시선이 닿는 곳마다 가슴 뻐근하게 귀여운 것들이 가득해 탄성을 자아내는 곳. 사는 게 무미건조한 흑백 화면 같다면, '빈티지보니'에 한번 들러보길. 온통 핑크 빛인 작은 세상이 사랑스러움을 옮겨줄지도 모르니까.

ADD
서울 종로구 수표로28길 21-17
TEL
070-4281-6248
HOUR
매일 12:00~21:00
월요일 휴무

33

오징어도 화보가 되는 스탠다드 러브 댄스

Intern 이유라 ura@univ.me
Photographer 이서영

'막 찍어도 화보' 연예인들의 셀카를 찬양하는 기사들을 슥슥 넘기다 충동적으로 카메라를 켰다. 화장기 없는 얼굴, 머리띠로 야무지게 드러낸 광활한 이마에 나도 모르게 "으어!" 하…. 비둘어지려는 찰나 나도 막 찍어도 화보가 되는 곳이 있다는 걸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렸다. 연남동의 핑크 파라다이스, '스탠다드 러브 댄스'. 처음엔 카운터에 서 있는 주인장을 보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감각의 남자라니!' 반할 뻔 했지만, 알고 보니 사장님의 여자 친구이자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로 사랑받는 이공 작가의 디렉팅으로 탄생한 공간이라고. 핑크로 물들인 공간만큼이나 음식도 매우 사랑스러운데, 그중에서도 시선을 잡아끄는 건 단연 마시멜로우 스모어다. 순정만화에서 첫 데이트 때 먹을 법한 비주얼로 잠자던 소녀 감성을 톡 건드린다. 눈과 입 그리고 마음까지 달달하게 하는 이곳에서 인생사진을 찍어보자. 준비는 끝났다. 티니 마시멜로우 스모어 6500원, 스탠다드 목살 스테이크 정식 1만 8000원.

ADD
서울 마포구 연희로 37

TEL
010-8218-2684

HOUR
평일 16:00~24:00
주말 14:00~24:00
화요일 휴무

채도가 다른 걸스 나잇 더티핑크

+
Intern 공민정 gong@univ.me
Photographer 이서영

고백하건대 난 어린 시절부터 쭉 소녀처럼 행동하길 거부해 왔다. 거기엔 분홍색을 좋아하지 않는 일도 포함됐는데, 최근에 맘을 바꿔 먹었다. 핑크에도 '더티'가 붙을 수 있단 걸 알았기 때문이다. '더티핑크'는 평소 우리가 '분홍' 하면 떠올리는 색보다 채도와 명도가 낮은 분홍을 표방한다. 테이블마다 관능적인 향기의 초들이 놓여 있고, 가게 안을 채우는 음악도 약간은 끈적한 프랑스 샹송이다. 연남동에서 가장 많은 수의 스파클링 와인을 취급하는 펍답게 안주나 술도 2차로 먹기 좋은 가벼운 것들이 많다. 취재하는 내내 나의 오랜 친구들과 자유분방하게 입고 앉아 먹고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나이가 든 후에, 퇴근하고 나서 이런 펍을 어색하지 않게 방문하는 어른이 되고 싶단 다짐도. 지난겨울 문을 열었기에 테라스 자리를 개방하는 것은 처음이다. 평소와는 색다른 걸스 나잇 아웃을 즐겨보자. 크림치즈 플레이트 1만 1000원, 더티핑크주 1만 5900원, 자몽주스 4500원.

ADD
서울 마포구 동교로 262-13

TEL
010-7220-3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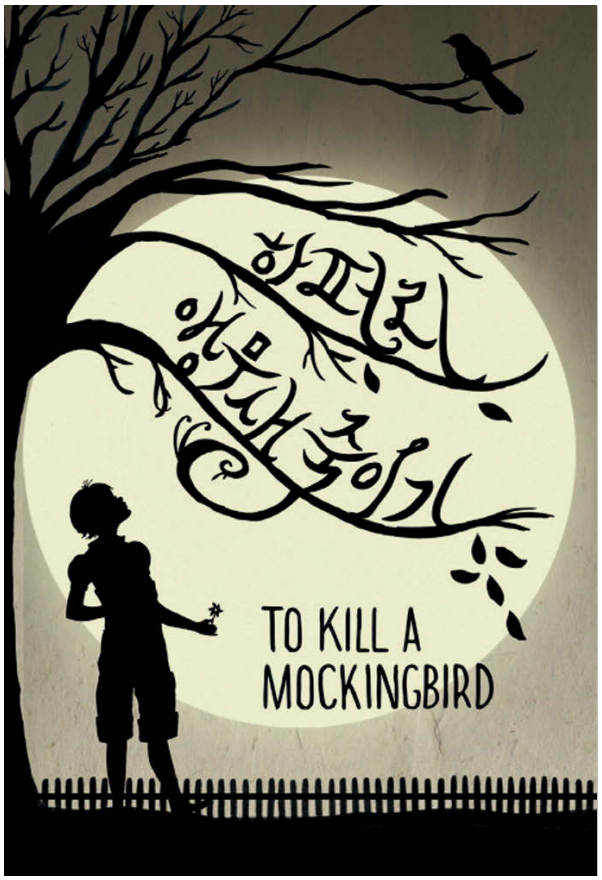
HOUR
평일 18:30~02:00,
주말 16:00~03:00

TASTE

나를 키운 **성장 소설 5선**

Editor in chief 전아론 aron@univ.me

이상한 일이다. 책의 첫 장과 마지막 장 사이에서, 내가 이만큼이나 자랄 수 있다는 게.



34

다시 읽을 시간

+
Intern 김슬 dew@univ.me

Item
+
앵무새 죽이기

도덕 시간에 선생님이 물었다. "넌 '난 사람'이 되고 싶니? '된 사람'이 되고 싶니?" 욕망은 복합적이었지만, 『앵무새 죽이기』을 읽었을 땐 후자에 가까웠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남들의 '카더라' 말고 내 눈을 믿는 사람, 어렵더라도 부당한 것에 맞설 줄 아는 어른이 되고 싶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강간죄를 뒤집어쓴 톰 로빈슨을 변호한 스카웃의 아버지처럼. 나 역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새 죄 없는 앵무새를 죽이게 되는 건 아닐까? 늘 마음 한구석에 이 질문이 자기 검열 장치처럼 따라다녔다. 하지만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게, 간혹 '삐' 소리를 내며 날 돌아보게 했던 그 장치는 점점 제 기능을 잃고 침묵하기 시작했다.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던지는 기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대화에 거부감 없이 합류하고, 남의 일에 고민 없이 입방아를 찧어대는 사람이 되어간 것이다. 삶의 질은 악착같이 챙기는 주제에 사람의 질은 이렇게 흐려질 때까지 방치하다니. 스무 살 때 끼적였던 『앵무새 죽이기』의 감상평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언제부터 그 바람을 잃어버렸던 걸까? 오늘은 서점에 가야겠다. 다시 내 안에 무언가를 심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으니.

이건 슬픈 자기소개서

+
Editor 이민석 min@univ.me

Item
+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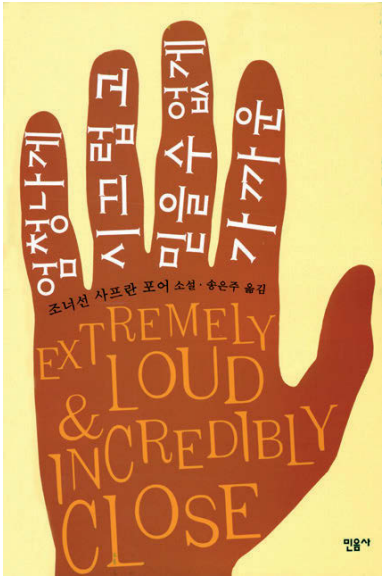
누구나 그렇겠지만 난 예쁜 사람이 좋다. 어릴 때부터 그 정도가 유난히 심했다. 당연히 '외모지상주의'라는 손가락질을 호되게 받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내 마음이 그런 걸 어떡하겠는가. 그러다 우연히 읽게 된 이 책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 책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멀쩡한 남자가 엄청나게 못생긴 추녀를 사랑한다.' 아니, 어떻게 추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란 내 마음처럼 주인공도 처음엔 이 사실을 부정한다. 하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침내 인정하게 된다. 흔히 알려진 우화 속 이야기처럼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는 눈이 생겨 사랑하게 된 게 아니다. 말투, 성격, 콤플렉스, 웃음소리 그리고 외모까지. 한 인간으로서 가진 모든 점을 매력으로 느껴 그녀를 사랑하게 됐다. 남자 주인공에 완전히 몰입돼 소설 말미엔 나도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많이 오그라들지만… 주인공과 나는 소설 속에서 함께 성장했다. 사람을 순수하게 사람으로 보고 느끼는 법을 배웠다. 그 어떤 사람과도 진심으로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도 분명한 건… 지금도 여전히 예쁜 사람이 좋다. 좋은 건 좋은 거다.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우리들의 이야기

+

Editor 김신지 sirin@univ.me

Item
+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으로 아빠를 잃은 소년에게, 세상은 너무나 불가해한 곳이다. 엉망이 된 소년의 마음을 따라 걷는 동안 알았다. 이제껏 나는 상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갑작스런 죽음이 닥친 순간, 못 산 삶에 대한 미련이나 잘못 산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닌, 오직 한 사람에 대한 걱정만이 남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보다 절박한 마음이 있을까. 그러니 먼 길을 돌아 소년은 마침내 알았으리라. 죽은 이의 절박함이, 남은 이를 살게 하기도 한다는 걸. 그러니 지금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빠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라는 것도. 소중한 무언가를 잃고서도 우리는 살아간다. 그것은 일찍이 우리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일러준 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때 켜진 빛들이 내 안에 아직도 반짝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불빛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힘껏, 산다. 때로 그것을 누군가의 몫까지 사는 일이라 부르기도 하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실 앞에서 삶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장한다. 그것을 성장이라 불러야 하는 것은 여전히 아플지라도.

35

이 종이책 속에 나의 절친이 있어요

+

Intern 조아라 ahrajo@univ.me

내 자식을 살해한 원수의 자식을 사랑할 수 있을까? 『빙점』의 줄거리는 김치싸대기, 아니 여느 아침 드라마 못지않다. 배경은 1950년대 일본 홋카이도. 전쟁이 막 끝난 터라 뒤숭숭한 세상이다. 그러나 젊은 병원장 게이조는 남부러울 것이 없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 나쓰에와 귀여운 남매가 있다. 하지만 게이조의 병원에 고용된 안과 의사가 나쓰에와 밀회를 나누는 사이, 세 살배기 딸이 살해당한다. 그리고 살인범의 딸 요코가 게이조의 집에 입양되는… 줄거리만 봐서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폭풍 같은 막장 드라마의 서막이 오른다. 사실 요코는 나의 어린 시절을 함께해준 소중한 친구였다. 양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도, 양어머니가 괴롭혀도 요코는 언제나 꿋꿋하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내심 '요코만큼만 견뎌보자', '요코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곤 했다. 나는 지난해 요코의 고향 홋카이도에도 다녀왔다. 삿포로 역에서 기차에 몸을 싣고 눈 쌓인 들판을 달려, 요코가 다녔던 대학에도 가봤다. 멋진 일이었다. 현실에서 상상 속 친구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길은.

Item
+
빙점

잃어버리기 위한 시간

+

Editor 기명균 kikiki@univ.me

한동안 인생은 '얻기 위한 시간'인 것처럼 보인다. 일단 태어나면서 이름과 가족을 얻는다. 근육이 단단하게 자리 잡는 동안 여러 번 넘어지며 지혜를 함께 배운다.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중 몇몇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친구가 된다. 그러나 삶에는 반드시 '잃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한 번 잃은 것을 되찾는 것은 대개 불가능하기에 며칠 밤을 자책하고 후회하다 결국은 그런 자신을 받아들인다. 그제야 우리는 한 뼘 자란다. 그래서 모든 성장은 비극이다. 주인공 아미르를 낳으며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바바)는 아들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대신 그의 곁에는 항상 하산이 있었다. 하인 신분의 하산은 아미르를 '도련님'이라 불렀지만 같은 젖을 먹고 자란 둘은 친구처럼 지냈다. 아미르는 하산에게 책을 읽어줬고 하산은 아미르의 연을 쫓아 달렸다. 하지만 둘은 1975년 겨울에 일어난 가슴 아픈 일 이후, 서로를 잃게 된다. 아미르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하산은 그런 친구를 그리워하며 성인이 된다. 『연을 쫓는 아이』는 비극이다. 그럼에도 읽으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건 아미르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방법" 앞에서 예전처럼 망설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미르는 다시 한 번 많은 것을 잃지만 덕분에 한 사람의 '얻기 위한 시간'이 무사히 시작된다.

Item
+
연을 쫓는 아이

입대하는 동생을 위한 준비물

feat. 예쁜 누나

괜히 이것저것 가져가봤자 다 도로 돌아온다.

시계

군인 필수품인 시계.
무조건 튼튼하고, 방수되고,
라이트 기능이 있어야 함.

화장품

평소 로션, 선크림 안 바르더라도 군대 갈 때 꼭 챙겨줘야 함.
휴가 때 못 알아볼 수 있음.

지갑

군인이 무슨 지갑이겠냐 싶겠지만 요즘 PX가 그렇게 좋다더라.
잃어버려도 타격이 크지 않은 저렴이로 구입.

나라사랑카드

동생님은 하도 오래전 신검을 받아서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를 갖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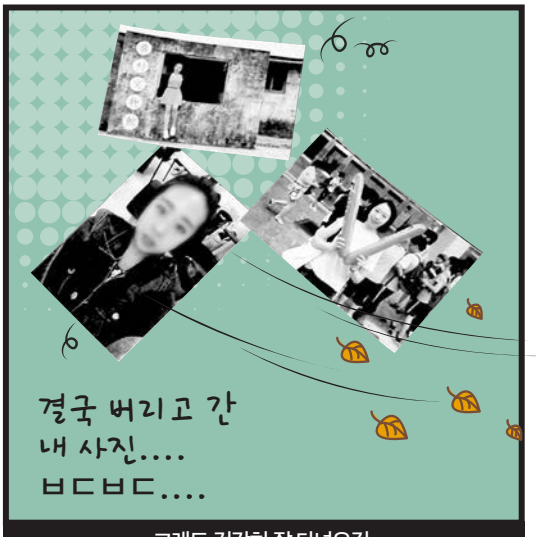
2015년 말부터 은행이 변경됐는데 현재 발급 중인
KB와 IBK 나라사랑카드가 혜택이 더 좋아졌다고 해서 새로 신청함.

가족&예쁜 누나

마지막으로 회심의 '예쁜 누나' 사진 준비. 넌 이제 군 생활 탄탄대로(짱긋★)

입대 당일, 점차 웃음을 잃기 시작한 동생의 낯빛이 어두워짐.
신병들만 교육을 받으러 사라진 뒤....

다들 똑같이 생겨서 가족들 단체 멘붕.
입대하는 날은 무조건 튀는 옷 입도록 합니다.



그래도 건강히 잘 다녀오길.
국군 장병 여러분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최강의 혼맥용 감자칩은 무엇?

최근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20대 혼맥족의 맥주 및 안주 소비 트렌드'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혼맥에 가장 어울리는 편의점 과자'로 47.6%가 O사의 모 감자칩 과자를 꼽았다. 이 감자칩과 스테디셀러 감자칩 2종을 섞어 심층 비교했다.
과연 어떤 감자칩이 최고의 혼맥 안주 자리를 차지했을지, 당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길.

[과자 포장지]

스윙칩 간장치킨맛

#371d1c	#9c1511	
#cf261f	#aa931f	#d1cfb8

식욕을 자극하는 붉은색이 노동당 대회 카드섹션처럼 강렬하게 시각중추를 자극한다. 간장과 치킨을 상징하는 버건디, 골드 컬러가 마치 컨버스 위에 흩뿌려진 잭슨 폴락의 페인트처럼 뒤섞여 있다. 혼맥용 안주를 꼽는다면 이는 필시 왕이 될 상이다.

포카칩 오리지널

#002a74	#007cc6	
#d6231e	#cdc301	#e3e3e3

식욕을 떨어뜨리는 파란색 포장지 때문에 입에 물고 있던 장충동 족발을 내던질 뻔했다. 오리지널 포카칩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쭉 이 색인데 그래도 감자칩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나. 어차피 잘 팔리니 오리온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예감

#815028	#2b8019	
#cb1418	#e5c115	#d5d5d7

황색 계열은 식욕을 촉진시키고 포만감이 잘 들지 않게 한다. 저녁을 배불리 먹고 가볍게 맥주 한잔하고 싶다면 노란색 위주인 예감을 고르는 것도 좋다. 아니면 예감을 흘끗 보고 빨간 스윙칩을 고르게 되겠지….

[내구성 테스트 (by 장난감 총)]

스윙칩 간장치킨맛

총알이 7시 방향을 관통하다 휘어졌다. 가운데 감자칩이 물결무늬 방향을 따라 쪼개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바삭한 만큼 부스러기가 가장 많이 날렸다.

포카칩 오리지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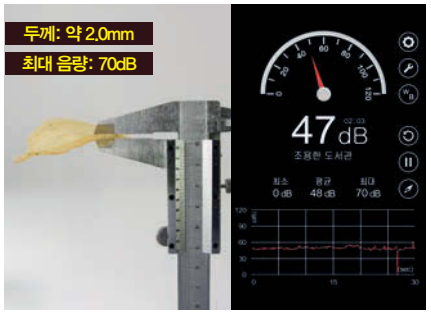
총알이 중앙을 뚫고 일직선으로 통과해 신혼방 창호지같이 깔끔하게 구멍만 남았다. 그 정도로 얇다. 술안주로 먹을 땐 두 개 이상씩 집어 먹을 것을 추천한다.

예감

총알이 1시 방향을 맞고 튕겨 나왔다. 이가 조금 나갔을 뿐, 다른 부분은 멀쩡하다. 다섯 겹 정도 엮어놓으면 군에 방탄조끼로 납품해도 괜찮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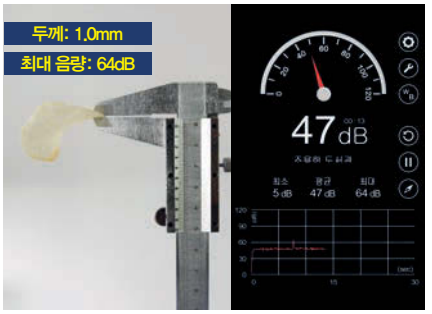
{ 씹는 소리 테스트 }

스윙칩 간장치킨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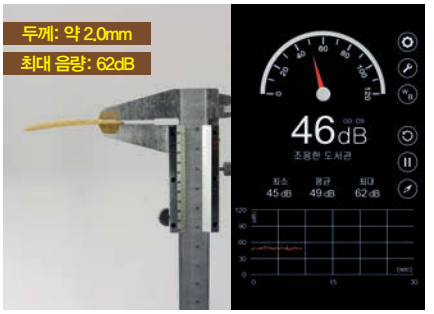
두께는 포카칩의 약 두 배 정도. 한 입 무는 순간 아사삭 하는 경쾌한 소리가 난다. 그 음역대는 흡사 3옥타브 솔을 넘나드는 전성기 김경호의 샤우팅을 방불케 한다. 감자칩 3종 중 가장 두껍지만,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 덕에 맥주가 술술 들어간다.

포카칩 오리지널



감자를 능지처참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얇게 포를 썰었다. 감자 하나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재현할 만한 기술이다. 한 개만 씹으면 존재감이 희박해 술안주로서 식감 운운하기엔 좀 아쉽다. 잘 씹으면 입에서 아이유 3단 고음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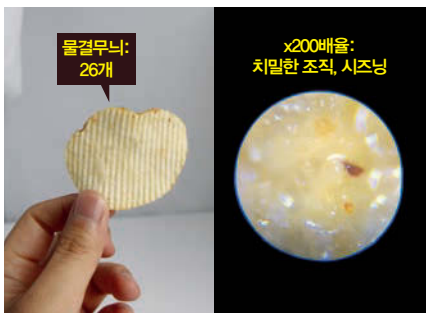
예감



스윙칩과 두께는 같지만 그 묵직함은 브록 레스너도 혀를 내두를 정도라 술안주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식감이다. 감자가 이렇게 단단한 먹거리였나?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나는 소리도 낮고 감미로워 감자칩이 아니라 김동률 CD를 씹고 있는 기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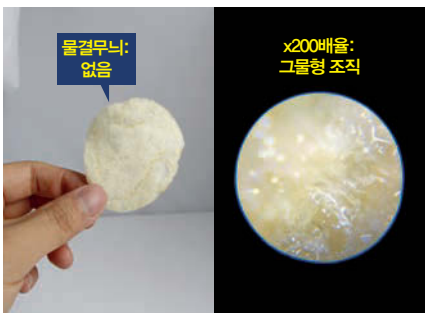
{ 양념 }

스윙칩 간장치킨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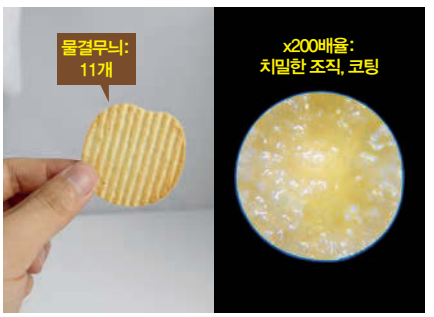
생감자칩의 형태를 띠면서도 물결무늬가 있다. 포카칩과 예감을 합쳐 놓은 듯. 물결무늬 사이사이에 박힌 양념 입자가 보일 정도로 양념이 많이 배어 있다.

포카칩 오리지널



생감자칩답게 모양과 크기가 제멋대로다. 특별한 무늬도 없고 육안에 비친 양념의 존재감이 황광희 수준이다. 대신 가장 깊은 감자 맛을 느낄 수 있으며 그물형 조직 덕분에 바삭하다.

예감



자로 잰 듯 과자 모양이 전부 똑같다. 다른 감자칩과 달리 표면에 식감을 살리는 물결무늬가 있다. 조직이 치밀하며 반짝거리는 것으로 보아, 양념이 한 겹 코팅되어 있는 느낌.

총평 / 결과

스윙칩 간장치킨맛

포장지	★★★★
내구성	★★
식감	★★★★
양념	★★★

포카칩 오리지널

포장지	★★
내구성	★★
식감	★★★
양념	★★★

예감

포장지	★★★
내구성	★★★★
식감	★
양념	★★

핵꿀팁만 모았다! 인천국제공항 100% 활용법

출국 심사 전

셀프 체크인

너무 일찍 왔다면 알아서 체크인하자

웬일로 일찍 도착했는데 아직 발권 시간이 아니라면? 체크인 카운터 줄이 너무 길다면? 셀프로 발권하고 유유히 면세 구역으로 입장해보자. 비자가 없는 나라(일본, 홍콩, 괌, 동남아 국가 등)로 출국 시 가능하며, 좌석도 직접 화면을 보고 고를 수 있다. 수하물 역시 '자동 수하물 위탁' 카운터에서 셀프로 부치면 된다. 3층 출국장 곳곳에 발권기가 있으며, 항공사마다 가능 국가와 시간이 다르므로 확인은 필수.

자동출입국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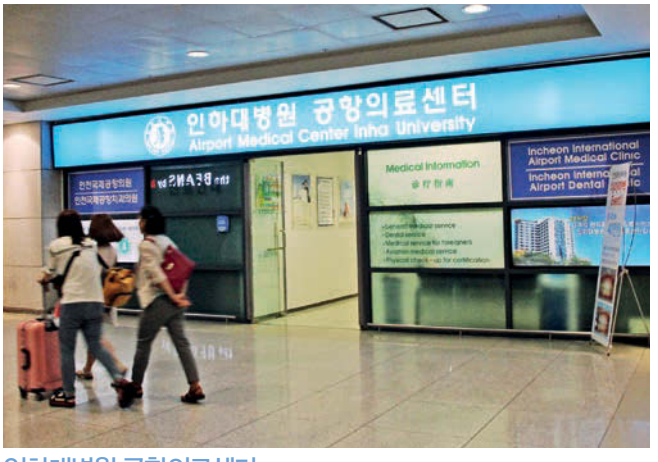
더 이상 줄 서지 않아도 되는 기쁨

아직도 출입국 심사 시 긴 줄에서 차례를 기다리는지? 그럴 필요 없다.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전철 개찰구처럼 찍고 나갈 수 있기 때문. 자동판독기에 여권 찍고, 지문 찍고, 카메라 한 번 쳐다보면 무사통과! 공항의 하이패스라 할 수 있다. 등록 후 바로 쓸 수 있으니, 아직 등록 전이라면 3층 F 카운터 근처 제1, 2 등록 센터(운영 시간 06:30~19:30)를 찾아가보자.

세탁소 & 수하물보관소

짐 되는 외투는 맡겨뒀다 찾아가기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팁. 겨울에 따뜻한 나라로 여행 갈 땐, 두꺼운 외투를 맡길 수 있다. 지하 1층 'Clean up air'와 맞은편 '크린토피아'(공항철도 개찰구 오른편)에서는 1만원에 일주일간 옷을 맡아준다. 대한항공 이용객은 겨울 시즌에 3층 한진택배에서 외투를 5일간 무료로 맡길 수 있다. 반입 금지된 짐이나 가져갈 필요 없는 짐이 생겼다면, 3층 한진택배, 대한통운에서 택배를 보낼 수도 있다.



인하대병원 공항의료센터

여행 가서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여행 가기 전에 아파도 서럽고, 아픈 몸으로 귀국하게 돼도 서러우니 미리미리 알아두자. 여객터미널 지하 1층 동편 외환은행 옆에 인하대병원이 있다. 응급 진료는 24시간 연중무휴라서 급한 환자가 있을 때 찾을 수 있고, 각종 진료와 처방, 여행자 건강 상담 및 국제예방요법 안내, 시차 적응 클리닉까지 해준다. 진료 과목 및 시간은 홈페이지(www.inha.com/air) 참고.

배낭여행의 계절, 여름방학이 돌아온다. 늘 허둥지둥 가서 비행기 타기에 바빴다면, 올해는 좀 여유 있게 도착해서 인천공항을 제대로 만나보자.
구석구석, 당신을 위한 시설들이 이렇게나 많다.

출국 심사 후

릴랙스 존

공항에서 내 방처럼 눕고 싶은 당신을 위해

출국 수속도 면세점 쇼핑도 다 마쳤으니 이제 좀 쉬고 싶다……면, 북적이는 게이트 앞을 벗어나 한 층만 위로 올라가보자.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4층 환승편의시설(면세구역 2층)이 신세계다. 'Relax zone', 'Rest Area' 등에 맘 놓고 뒤로 젖힐 수 있는 푹신한 의자가 있고, '뉴스&무비 존'에서는 편히 누워 뉴스나 영화를 시청할 수도 있다. 탑승 시간이 많이 남았거나 새벽 비행기를 기다려야 할 때 시간 때우기 좋은 곳.

샤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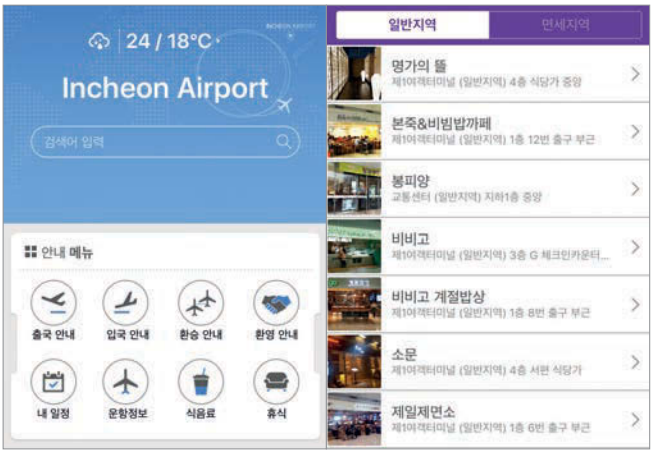
개운하게 씻고 출발해볼까?

여러분, 공항에서 샤워도 할 수 있다! 지방에서 공항으로 올라온 경우나 새벽 비행기 이용 시, 혹은 장거리 비행을 앞두고 땀 흘린 몸이 찝찝할 때 이용하면 좋다. 환승객은 무료, 일반 이용객은 1000원만 내면, 칫솔, 치약, 수건 등 간단한 샤워 키트가 제공된다. 안쪽엔 샴푸, 보디워시, 헤어드라이기 등이 있으며, 꽤 넓고 쾌적한 것도 장점. 라운지 근처(Gate 11, 43 위쪽)에 있으며, 이용 시간은 7:00~21:30.

인터넷 카페

바우처 인쇄도 하고, 여권 사본도 만들고

4층 환승편의시설에 위치한 'Internet zone'에서 무료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3층 게이트 근처 곳곳에 'Internet cafe by 카페베네'가 있다. 자리마다 노트북이 설치되어 있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프린트와 복사, 팩스도 가능하다. 호텔 바우처나 개별 투어 바우처, 항공권 e-티켓을 프린트하고 싶을 때, 여권 사본을 준비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공항 가이드 앱

새벽에 문 연 식당을 찾아 헤맨다면

일반 구역 1층엔 본죽&비빔밥, 비비고 계절밥상, 롯데리아, KFC, 뚜레쥬르+투썸커피, 크리스피 도넛, 3층엔 롯데리아, 버거킹, 크리스피 도넛, 출국 수속 후 면세 구역 3층엔 롯데리아, 던킨도너츠, 스타벅스, 빚은&사누끼보레가 24시간 운영한다. 그러나 어차피 기억 못 할 것이므로, '인천공항 가이드 앱'을 다운 받아 위치와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그 외의 정보들도 은근 쏠쏠한 앱이다.

공항에서 놀다 가기

한국문화거리 & 전망대

이렇게 잘해놓은 줄 알았으면 진작 가볼걸

이제껏 일반 구역 4층(체크인 카운터가 있는 3층 바로 위)에 비싼 한식당만 있을 거라 여기고 올라가보지 않았다면 좀 억울할지 모른다. 4층엔 '한국문화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입구에선 커다란 나무 정자에 앉아 출국장을 내려다볼 수 있고, 안쪽에선 유리창 너머 면세 구역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며, 더 안쪽에서는 평상에 앉아 뜨고 내리는 비행기를 조망할 수도 있다. 북적이는 3층보다 훨씬 쾌적하고 한산하다. 일부러 비행기 보러 오는 사람도 있다규.

1년간 무료인 자기부상열차

친구 배웅 왔으면, 너도 놀고 가야지

공항까지 왔는데 그냥 집에 돌아가기 아깝다면? 지난 2월에 개통해 1년간 무료로 운영되는 자기부상열차를 타보자. 8mm가량 공중에 떠서 무인으로 운행되는 아담한 열차는 이미 철덕들 사이에서 인기다. 공항에서 용유역까지 12분이므로, 왕복 30분이면 충분하다. 양옆으로 시원스레 펼쳐지는 영종도의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도착. 용유역엔 칼국수 맛집이 많으니 후루룩 먹고 와도 좋다. 9시부터 18시까지 15분 간격으로 운행(막차 17시 45분).

공시엔승 '도삭면'

공항 음식은 맛없다는 편견을 깨주마

공항에는 마땅히 밥 먹을 데가 없다고 투덜거렸던 당신을 맛집으로 안내한다. 작년 겨울 〈테이스티 로드〉에서도 다녀간 곳! 바로 지하 1층 교통센터의 '공시엔승'이다. 이곳에선 중국 6대 국수 중 가장 쫄깃하다는 '삼선차우면'을 맛볼 수 있다. 직접 반죽해 하루 동안 숙성시킨 다음 칼로 대패질하듯 썰어낸 '도삭면'을 사용해 면발이 확실히 탱탱하다. 풍성한 해물과 야채, 청양고추를 넣은 매콤한 소스가 입맛을 사로잡는다.

스케이트장 & 영화관

이쯤 되면 그냥 하루 놀러와도 되지 않을까?

♪공항에 가면, 스케이트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공항철도에서 내려 인천공항 지하 1층까지 이어지는 곳을 '교통센터'라 부르는데, 이곳에 사계절 실내 스케이트장이 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면서 한 번쯤 보았을지도? 무료로 운영되니, 한번쯤 까르륵 까르륵 웃으며 스케이트를 타보자. 바로 옆엔 CGV도 있는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2관만 있는 작은 영화관이고 손님도 적은 편이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집중하며 영화를 볼 수 있다.

대학내일 표지모델 신청 방법!
covermodel@naver.com으로
연락처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보내주세요!

◇◇◇

필요한 사진은?
전신 사진 2장 이상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얼굴 사진
4장 (프로필 사진 제외)
+@끼를 뽐낼 수 있는 사진
얼마든지!

◇◇◇

어떤 일을 하는지?
1 대학내일 표지와 내지를
장식하는 촬영 진행
2 짧은 인터뷰
3 '뷰티 인생템' 4가지 소개
4 그 외 대학내일 행사 참여

대학생이라면,
대학내일의
커버모델에
도전하세요!

20 대학내일

Find Cover Model

내 지갑이 허락하는 *클렌즈 주스 TOP4

***클렌즈 주스?**
첨가물을 일절 넣지 않고 야채와 과일만 착즙하거나 갈아서 만든 주스. 풍미상 혹은 효능상 잘 어울리는 재료들을 2개 이상 조합해 만든다. 프로그래밍된 순서로 주스를 마셔 몸에 쌓여있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단기 프로그램이 흥하고 있다.

	올루스	웰니스 팩토리
① 배송	스티로폼 박스에 보냉 팩 꽉꽉 넣어 3일치 주스가 한꺼번에 배송된다.	스티로폼 박스에 보냉 팩 꽉꽉 넣어 3일치 주스가 한꺼번에 배송된다.
② 유통기한	냉장 보관 시 수령일로부터 10일.	냉장 보관 3일, 냉동 보관 시 2달. 받으면 바로 마시는 게 좋겠다.
③ 하루 몇 병?	210ml 주스 5병.	200ml 주스 6병. 병에 순서대로 숫자가 적혀 있다.
④ 가격	3일 집중 클렌즈 프로그램 6만 8000원. 100ml당 2160원꼴.	3-day 200ml 프로그램 9만원. 100ml 당 2500원꼴.
⑤ 먹는 방법	오전 9시, 오후 12시, 3시, 6시, 9시 순으로 시간당 정해진 주스를 마신다.	오전 7시, 10시, 오후 1시, 4시, 7시, 10시. 정해진 시간에 주스에 적힌 숫자 순서대로 마신다.
⑥ 주스 종류	파슬리 사과(9시), 양배추 망고(12시), 파프리카 파인애플(3시), 베리베리(6시), 케일 청포도(9시)	1번 릴랙스 주스(파프리카, 토마토, 레몬), 2번 디톡스 주스(토마토, 당근, 양배추), 3번 퓨어 블러드 주스(당근, 사과, 큘), 4번 링클 주스(파프리카, 사과, 마, 큘), 5번 리부팅 주스(케일, 오이, 레몬), 6번 퍼플 에너지 주스(포도, 적양배추, 사과)
⑦ 베스트 주스	케일 청포도. 청포도 맛이 대부분이고 케일은 거들 뿐. 그래서 맘에 든다.	4번 링클 주스. 파프리카와 마가 속을 감싸주면 사과와 큘이 상큼함을 담당한다.
⑧ 하드코어 주스	베리베리. 가장 기대했던 주스인데 정작 가장 먹기 힘들었다. '베리' 하면 떠올리는 학습된 달콤함이 아니라 밍밍하고 텁텁한 식감의 진짜 베리라서…. 처음으로 한 병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	2번 디톡스 주스. 뚜껑을 열었는데 시큼한 냄새가 확 올라와서 처음엔 상한 줄 알았다. 막상 마셔보니 괜찮았지만 톡 쏘는 맛은 먹어도 먹어도 적응이 안 되더라.
⑨ 맛 총평	★★★☆ 모든 주스에 기본적으로 사과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첫날엔 '시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전날엔 못 느꼈던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 마지막 날엔 전체적으로 맛있게 먹었다.	★☆☆☆ 성분을 읽어보니 브로콜리, 양파 등의 야채가 주스의 베이스가 되는 듯했다. 몸에 좋은 게 덜 맛있다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인가봐….
⑩ 포만감	★★☆☆ 밤 9시에 먹는 주스가 끝이다. 후딱 자지 않으면, 12시쯤 배고파서 뒤척이는 나를 발견. 야행성들은 힘들 수 있다.	★★★★ 첫날엔 좀 힘들었는데 다음 날부턴 주스를 마셔야 하는 시간을 잊을 정도였다. 물리적으로 배가 부른 느낌은 아니지만 속이 든든하달까.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먹을 수 있게 짜여진 구성도 든든함의 일등 공신.
⑪ 3일 후	자극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3일간 거의 야채와 과일만 먹었더니 혀가 예민해지는 기분. 첫째 날 참지 못하고 죽 몇 숟갈을 먹었는데, 평소라면 딱 좋아했을 죽의 간이 굉장히 짜게 느껴졌다. 확실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더라. 매일 의자에 앉아 있어 슬금슬금 불러오던 배가 살짝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아, 오늘 황금X을 보았음.	올봄부터 오후 4시만 되면 간식을 찾고, 폭식하는 경우가 잦았다. 그런데 3시간마다 다른 종류의 주스를 마시니까 간식에 대한 식탐이 줄고 식사량도 예전으로 돌아가게 됐다. 한번 망가진 습관을 빡세게 잡아줬다고 볼 수 있겠지.

Editor 김슬 dew@univ.me

Editor in Chief 전아론 aron@univ.me

학교 앞 중국집과 술집을 뻔질나게 드나든 지 ○년. 기름때 낀 자동차처럼 매일 찌뿌둥하고, 꾸룩꾸룩 속은 더부룩하다. 나 20대인데, 내 몸 왜 이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3일 동안 건강한 주스를 마셔 독소를 빼낸다는 '클렌즈 프로그램'을 알아보았다. 아… 황금을 갈아 넣었나. 범접할 수 없는 가격에 화가 나 폭풍 검색으로 네 가지 업체를 찾아냈다. 광고를 많이 내걸진 않지만 알찬 구성을 자랑하는, 내 지갑이 허락하는 합리적인 클렌즈 주스들을! 알바로 힘들게 번 돈 얼마나 중한지 알기에, 직접 마셔보고 샅샅이 비교 분석했다.

juicy	풀무원
평소에도 쓸 만한 예쁜 아이스박스에 3일치 주스가 한꺼번에 온다.	3일 동안 매일 아침 전용 보냉 가방에 당일치가 배송된다.
냉장 보관 3일, 냉동 보관 시 일주일.	14일로, 수령일 기준 유통기한이 최소 5일 이상 남은 제품이 온다.
250ml 주스 4병.	3종류의 주스가 2병씩, 하루에 6병(한 병당 170ml)을 마신다. 3일짜리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서 1day용을 3개 주문했다.
STAY FRESH 3일 프로그램 8만 2000원. 100ml당 2730원꼴.	3일치를 구매하면 7만 2000원. 100ml 당 약 2100원.
7시~9시, 10시~12시, 오후 2시~4시, 5시~7시 사이에 정해진 주스를 마신다. 6종류의 주스가 도착하는데, 2회차 '더블 빈즈'만 고정돼 있고 나머지 순서는 3일 모두 다른 주스로 구성된다.	오전 9시부터 2시간 단위로 1병씩 마신다.
올 그린(케일, 샐러리, 오이), 민 그린(시금치, 샐러리, 오이), 스위트 그린(케일, 사과, 파인애플), 로열 큐어 (당근, 생강, 사과), 비츠 유(비트, 당근, 생강), 더블 빈즈 (검은콩두유, 서리태, 흑임자)	레드비트&당근(오전), 케일&시금치(점심), 코코넛 밀크&진저(저녁)
더블 빈즈. 두 종류의 콩이 갈려 있고, 새콤한 두유 같은 풍미. 뚜껑을 닫고 흔들면 가라앉아 있던 건더기들이 올라와 포만감도 챙겨준다. 3일 클렌즈 프로그램의 단비 같았던 주스.	레드비트&당근. 당근과 비트 자체가 원래 달달한 맛은 아니니까…. 개인적으론 개운한 맛과 찹찹 씹히는 섬유질이 좋았다.
민 그린. 청피망과 샐러리라는 낯선 채소들 때문인지 한 입 먹으면 얼굴에 "?"가 떠오른다. 향도 맛도 낯설고, 빈속에 먹었더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속에서 그 향이 올라오는 기분….	케일&시금치. 시금치, 샐러리, 케일 등 녹색 채소 싫어하는 초딩 입맛에겐 피하고 싶은 관문 같았다. 그 와중에 재료가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던 건 함정.
★★★★ 각 재료들의 맛이 살아 있고, 그들의 조합이 매우 좋았다. 굳이 클렌즈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사 마시고 싶은 의향이 있다. 음, '민 그린'은 빼고.	★★☆☆ 점심시간만 바라보며 하루를 버티는 스타일인데, 주스만 먹는 3일 동안 사실 조금 힘들었다. 케일&시금치 주스에는 눈곱만큼이겠지만 스피루리나 분말도 들어가는데! 왜 몸에 좋은 걸 기쁘게 먹지 못하니…. 흑흑.
★★★ 더블 빈즈를 제외하고는 모두 에센스 타입이라 포만감을 느끼긴 어렵다. 하지만 점심에 먹는 더블 빈즈가 한 줄기 빛…☆	★★★☆ 클렌즈 프로그램을 체험 중인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3일 내내 주스만 마시면 씹는 행위 자체가 그리워진다고 하더라. 풀무원의 클렌즈 주스들은 섬유질이 가득해 씹는 맛이 있다. 마시기보다 뭔가를 먹는다는 기분이 들어 덜 우울했다.
화장실을 매우 자주 가게 됐다. 액체들이 빈속을 타고 흘러 안 좋았던 노폐물들이 한 번에 정리되는 기분.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적극 추천한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늘 부어 있는 편이었는데, 붓기도 많이 빠졌다.	만성적으로 느꼈던 위의 더부룩함이 사라졌다. 음식이 쌓이질 않으니 당연한 건가. 속이 가벼워 더욱 꿀잠을 잔 것 같기도…. 무엇보다 위가 확 줄어들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준 것 같다. 소식하는 버릇을 들여 올여름엔 꼭 비키니 입어야지.

Intern 공민정 gong@univ.me

Intern 이유라 ura@univ.me

에디터들의 총평

착 한 가 격

1. 풀무원
2. 올루스
3. 웰니스 팩토리
4. juicy

맛

1. juicy
2. 올루스
3. 풀무원
4. 웰니스 팩토리

포 만 감

1. 웰니스 팩토리
2. 풀무원
3. juicy
4. 올루스

+

애묘가라면 한 번쯤 읽어봐야 할 고전이다냥

김혜원의 베스트셀러 겉핥기

나쓰메 소세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편

나는 고양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

story 1:

고양이는 나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길에서 우연히 고양이를 만났을 때. 눈이 마주친 그 순간 후다닥 도망가지 않고, 묘한 눈빛으로 날 응시하는 고양이를 보며 항상 떠올리는 소설이 있어요. 나쓰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의 화자는 고양이입니다. 마치 사람처럼 관찰하고 생각할 줄 아는 고양이. 그가 중학교 영어 교사의 집에 눌러살기 시작하면서 소설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 몸'이라고 부르는 이 거만한 친구는, 기본적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를 자기 아래로 봐요. 냉소적인 데다가 통찰력도 있어서 하는 말 하나하나가 명언이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혹시 우리 고양이도 이런 생각 하는 거 아니야?'하며 흠칫할 거예요.

> 나를 보면서 팔자가 저 정도면
> 얼마나 좋으랴 하고 말하는 이도 있는데,
> 아등바등하라고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니까
> 좋아 보이면 그렇게 하면 될 일이다.
> 감당도 하지 못할 만큼 멋대로
> 일을 만들어 놓고 괴롭다, 힘들다
> 투덜거리는 것은 제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 활활 때면서 덥다고 야단하는 격이다.
>
> –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219p

story 2:

재미있는 부분만 골라 읽으세요

이 소설은 일본 대문호 나쓰메 소세키의 데뷔작입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긴 소설이에요. 게다가 일정한 스토리도 마땅한 결말도 없습니다. 애초에 작가가 소설을 쓸 생각으로 쓴 글이 아니에요. 그의 집에 드나들었던 길고양이를 모티브로 쓴 글을 묶은 것인데, 형식으로 치면 (고양이의) 일기에 가깝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일본에 살던 고양이가, 자신의 집에 오는 사람들을 관찰해 남긴 일기를 묶은 책. 시대 차이가 나서 이해 안 가는 구절이 있고, 곳곳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거야!'하고 덤볐다간 몇 장 읽다 말고 포기하기 딱 좋은 책이죠.
완독해야만 의미 있는 소설도 있지만,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는 훌훌 넘겨 가며 재미있어 보이는 부분만 쏙쏙 골라 읽어도 좋은 책입니다. 고양이가 좋아서 읽기 시작한 독자는, 고양이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건너뛰고, 고양이가 나오는 장면들만 따라가며 읽으세요. 이번 베스트셀러 겉핥기에서는 '고양이 눈에 비친 인간은 어떤 모습인지'. 그 풍자와 해학을 중심으로 읽어볼게요.

명확한 스토리가 없는 작품
페이지를 훌훌 넘겨 가면서
재미있을 것 같은 에피소드만 읽어도 된다.

story 3: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고양이는 알고 있다

흔히 고양이를 요물이라고 말합니다. 평소엔 아는 척도 안 하다가, 주인이 우울해하면 귀신같이 알아챈대요. 그럴 때 보면 사람 마음을 읽나 싶죠. 소설의 주인공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는 아예 대놓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독심술을 터득한 고양이'라고. 털을 인간의 배에 대고 살며시 비비면, 찌르르 전기가 통하면서 그의 심중에 들어 있는 생각을 읽을 수 있다나 뭐라나.
죽을 때까지 이름을 지어 주지도 않았고, 딱히 친밀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소설 속 주인은 이 고양이를 꽤나 사랑했음이 분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슬픈 소리를 읽을 줄 아는 고양이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사실 주인인 영어 선생은 작가 나쓰메 소세키를 모델로 창작된 인물이에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했던 작가는, 실제로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주인공의 모티브가 된 고양이로부터 큰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 주인이 무능한 사람이기는 하다.
> 그러나 지금 세상에 유능하다는 사람을 보면,
> 거짓말로 사람을 낚고, 눈감은 사람 코를
> 베어 가고, 허세를 부려 사람을 위협하고,
> 사람을 꾀어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사람뿐이다.
> (중략) 이런 자는 유능한 사람이라 할 수 없다.
> 무뢰한이라고 해야 한다.
> 이런 놈팡이들에 비하면 주인은
> 훨씬 나은 인간이라 할 수 있다.
>
> –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402p

story 4 :
인간들은 대체 왜 그래?

독심술을 익힌 고양이지만, 그는 인간의 심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본 인간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내 스스로 괴로워하는 존재."
날것으로 먹으면 될 것을 굳이 굽고 익히고. 생존과 상관없는 잡다한 것을 피부 위에 걸치고. 가만히 두어도 될 털 모양을 굳이 바꾸고. 그렇게 일을 만들면서 항상 바쁘다고 투덜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고양이는 비난합니다. 자기처럼 단순하게 살 수는 없느냐고요. 이 고양이님(?)의 기준에서 보면 인간이란 참으로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존재예요. 분한 건 그가 하는 말이 따지고 보면 다 맞는 말이라서 반박 불가하다는 점이죠.

> 세상에는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자신은 한없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자신하면 당사자의 마음이야 편하겠지만, 남이 처한 공경이 그 편한 마음 덕에 소멸되지는 않는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184P

소설은 별 볼 일 없는 고양이의 의미 없는 넋두리처럼 가볍게 서술되어 있지만, 인간의 부조리함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가 곳곳에 숨어 있기도 해요. 농담 속에 숨은 통찰. 그것을 찾는 것이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읽는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고양이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단순하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울 때는 죽어라 하고 운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35p

어차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다.
뭐든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경험해 둬야 한다.
죽고 나서 '아아 안타깝다'하고 무덤 속에서
억울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512p

story 5 :
어차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 뭐든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스포일러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인공 고양이는 맥주를 훔쳐 먹고 얼큰하게 취해 휘청거리다 물독에 빠져 죽어요. 재미있는 건 죽음을 앞두고도 이 고양이가 참 한결같다는 거예요.
우선 맥주를 훔쳐 먹으면서, 고양이는 이것이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챕니다. 하지만 이내 단순하게 생각해버려요. "인간은 이걸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던데! 고양이라고 그러지 못하란 법은 없지!" 참 그다운 생각이죠.
처음엔 "이 맛없는 것을 인간은 뭐하러 먹나"고 투덜대더니, 좀 취했는지 맥주 두 잔을 싹싹 비워요. 그러곤 거나하게 취하죠. 졸고 있는 것인지, 걷고 있는 것인지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그만 커다란 물독에 빠져요. 물이 턱 밑까지 차서 숨이 막히고 괴로운 와중에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내 다리는 10cm도 안 된다. 뜬 곳에서 있는 힘껏 앞발을 뻗는다 해도 10cm가 넘는 항아리 아가리까지는 발톱이 닿지 않는다. 1백 년 동안 몸이 바스러져라 애를 써 봐야 나갈 수 없다.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나가려 하는 것은 억지다. 억지를 부리려 하니까 괴로운 것이다. 무모하다. 자청하여 괴로워하고 즐겨 고민을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514p

그러곤 허우적거리기를 진짜로 그만둡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대신에 죽음을 택한 거예요.

story 6 :
우리도 고양이처럼 살 수 있을까?

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고양이 독백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고양이처럼만 살면 편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처럼 단순하게 사는 건 보통 내공이 아니면 이룰 수 없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시니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내공!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면서 산다. 다만 그렇게 살다가 언제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다. 그 정도 배짱은 되어야 고양이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은, 앞으로 이제까지처럼 살 겁니다. 사소한 일에 연연하고,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 내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그래도 이제부터는 낮잠 자는 고양이를 부러워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 배짱도 없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억지고. 억지를 부리려고 하면 괴로울 테니까요.

(주) 롯데리아 트렌드리포터 10기 모집

(주)롯데리아 트렌드리포터란? ㈜롯데리아 브랜드를 체험하고 트렌드 콘텐츠를 만들어 알리는 브랜드 통합 서포터즈

1. 지원자격
- ㈜롯데리아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 자
- 대외 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희망하는 자
  (단, 블로그 운영 및 SNS활동이 활발한 자)
- 콘텐츠제작 및 디자인활용 능력 뛰어난 자,
  UCC영상 제작 가능자 우대

2. 지원방법 ㈜롯데리아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 양식 다운로드 후 지원서 작성하여 lotteriatree@naver.com로 메일로 접수

3. 모집기간 2016.06.15(수)~ 2016.06.30(목) 자정까지
(30일 23:59:59) (E-mail발송시간기준)

4. 활동인원 총 40명 (대학생 및 일반인)

5. 활동기간 2016.07 ~ 2016.10(약 4개월) / 07.13(수) 발대식

6. 활동내용
- ㈜롯데리아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 크림 도넛, TGI 프라이데이스, 나뚜루팝, 빌라드샬롯) 브랜드 체험
- ㈜롯데리아 오프라인 행사 참석
- 미션주제에 따른 개별 온라인 포스팅
- 콘텐츠 기획 및 음식사진 Tip 등 특별 교육

7. 활동혜택 ㈜롯데리아 브랜드별 제품교환권 지급, 브랜드 MD용품 제공, 브랜드 오프라인 행사 참석기회, 각종문화혜택제공, 최종 우수활동자 상품권 증정, 수료증 지급

8. 문의사항 ㈜롯데리아 트렌드리포터 10기 운영사무국 (02-6959-1765)

*위 일정 및 혜택, 활동내용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트렌드리포터로 선발되면 발대식 및 오프라인 미션에도 참석하셔야 합니다.
*비수도권 거주자도 활동가능합니다.

+
다크서클만 가려도 제 나이로 보일 거야. univ20.com

검붉은 다크서클
메이블린 뉴욕 에이지 리와인드 컨실러
6ml, 1만 5000원

귀찮아서(또는 바빠서) 다크서클 커버에 오랜 시간 공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일명 '붕 컨실러'로, 보송보송한 어플리케이터가 달려 있다. 다이얼을 돌리면 텍스쳐가 조금씩 나온다. 기본 베이지에 핑크 빛이 살짝 도는 컬러로, 검붉은 보랏빛 다크서클을 잘 가려준다. 눈 밑에 대충 바르고 잘 펴주면 다크서클 커버 끝! 마무리감이 산뜻하며 지속력도 높은 편이다. 부피가 작아 들고 다니기 간편하다. 파우치에 넣어 다니면서 수정 화장하기에 좋다.

푸른 다크서클
캔메이크 컬러 스틱
2g, 1만 2000원

남들과 달리 눈 밑이 푸르댕댕하다면? 요즘 핑크 립스틱으로 다크서클을 커버하는 방법이 화제다. 하지만, 막상 립스틱을 눈 밑에 발라 보면 끼임 현상이 심하고, 적당한 색감을 내기 어렵다.
차라리 핑크 빛이 도는 컨실러를 사용하는 게 간편하고 좋다. 캔메이크의 컬러 스틱 7호 애프리코트는 코랄색 컨실러다. 일반 컨실러보다 핑크와 오렌지 빛이 많이 돌아 푸른 다크서클 커버에 효과적이다.

너의 다크함은 **다크서클** 때문이야

나이가 +3살 이상 더 들어 보이고, 아무리 화장을 해도 안색이 칙칙하다? 그건 바로 눈 밑, 다크서클 때문이다. 눈 밑만 제대로 커버해도 어려 보일 수 있다. 다크서클 컨실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바로 본인의 다크서클 컬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다크서클은 크게 붉은 다크서클, 까만 다크서클, 푸른 다크서클로 나눌 수 있다. 당장 거울을 보자. 그리고 여기 제품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자.

까만 다크서클
나스 래디언트 크리미 컨실러
6ml, 4만원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다크서클 컨실러는 나스! 라고 말한다. 촉촉함과 커버력, 두 가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나스 컨실러 중 추천하고픈 컬러는 바로 커스터드와 바닐라 컬러다. 동양인의 베이스 컬러에 잘 맞다. 나스 컨실러는 전체적으로 까만 다크서클을 잘 가려준다. 바닐라 컬러는 21호와 그보다 밝은 피부, 커스터드 컬러는 22호 이상의 피부에 잘 맞다. 까무잡잡한 사람이 바닐라 컬러를 사용하면 눈 밑만 뜰 수 있으니 참고하자. 저렴이 다크서클 컨실러를 바르면 건조해서 눈 밑 주름이 마구 생긴다면, 비싼 값 하는 나스 컨실러를 사용해보자.

붉은 다크서클

어퓨 다크서클 브라이트너

5g, 8000원

다크서클 중에 눈 밑 피부가 매우 얇아 눈 밑 핏줄이 비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붉은 다크서클. 이런 다크서클을 효과적으로 가리기 위해서는 보색 컬러의 컨실러를 바르는 게 좋다. 붉은색을 없애려면 연둣빛 브라이트너를 사용하자. 어퓨의 다크서클 브라이트너 4호 민트는 붉은 다크서클 잡는 귀신이다. 또한, 홍조 커버에도 좋다. 자신의 피부색에 비해 조금 밝다면, 평소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을 믹스해 바르면 된다.

모든 종류의 다크서클

캐트리스 올라운드 컨실러

6g, 6500원

내 다크서클은 푸른빛이 돌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게다가 까맣다고? 그럼 여러 가지 컬러의 컨실러를 사용하면 그만이다. 캐트리스의 올라운드 컨실러는 컨실러 팔레트다. 연둣빛, 코럴, 베이지, 부분 섀딩에 좋은 어두운 베이지 컬러까지 다 있다. 만능 컨실러인 셈. 대신 컨실러 브러시를 사용해 세심하게 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살짝 매트한 질감이라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촉촉하게 한 후 바르는 것을 추천한다.

방전된 자들에게 권합니다
휴학 말고 갭이어

– 파리 여행 중 갑작스럽게 내린 비, 우산 대신 봉투를…

갭이어는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 23살 남정원

Q 갭이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학교를 이대로 더 다니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학사경고까지 받았으니 말 다했죠. 그땐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저 자신을 못 믿게 되더라고요. 그 시기를 극복하는 첫 단추가 갭이어였어요. 나를 믿고, 하고 싶은 일을 쭉 해보기로 한 거죠. 정말 철저히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았어요. 후회는 없어요. 버킷리스트에 있던 일들을 가장 많이 지워나갔던 시기거든요.

Q 파리 민박집에서 일하면서 갭이어를 보냈다고 들었어요.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떠나기 전, '갭이어코리아'라는 기관의 '그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어요. 파리에서 민박집 일을 도우며 두 달 동안 지냈는데, 일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과 인생까지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학교 다니면서 연남동 게스트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어요.

Q 갭이어가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경기의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23년밖에 안 살았지만, 갭이어를 기점으로 인생의 전후반이 나뉜 기분이에요.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뭔가 '큰' 결심이 필요한 일들에 대담해진 것 같아요. 저에 대해 관대해지기도 했고요. 모든 책임은 온전히 제게 있겠죠. 하지만 전보다 더 '나'의 삶을 사는 느낌이 들어요.

Q 갭이어 한 번 더 콜? 완전 나이스죠. 사실은 졸업하고 영국이나 아일랜드 쪽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고 싶어요. 아예 한곳에서 오래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기회가 된다면 학교를 더 알아보고 싶기도 해요. 뭐가 될진 모르죠. 그냥 그 순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있겠죠. 하하.

Q 정원씨의 갭이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탈의실. 갭이어를 통해 온전히 저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이 솔직해졌어요. 밑바닥에 있는 제 모습에 대해서까지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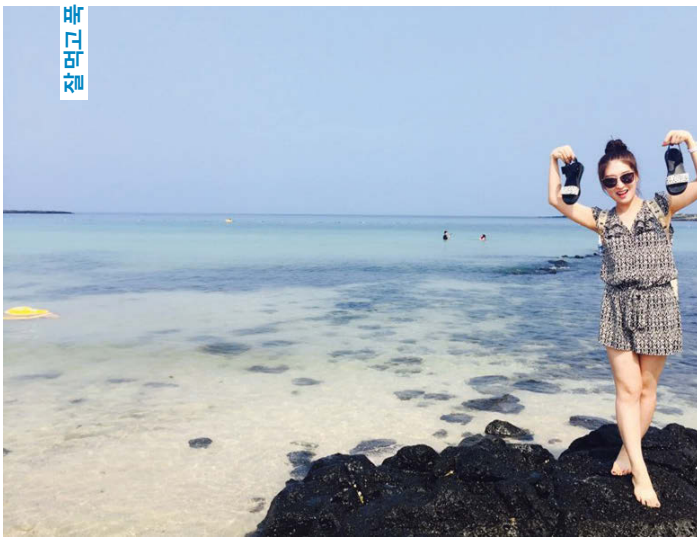
잘 먹고 푹 쉬었습니다 + 25살 이정림

Q 갭이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바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어요. 집순이인 제가 집을 떠나 생활을 하는 게 많이 외롭기도 하고, 학교생활도 쉽지 않더라고요. 지치고 힘든 내 일상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위한 휴식이 필요했어요.

Q 그래서 계획대로 잘 쉬었나요? 완전 푹 쉬었어요. 우선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날씨가 좋은 4월에는 엄마랑 둘이 제주도 여행을 떠났어요! 보통 4월은 중간고사 기간이라 제일 날씨가 좋은데도 못 즐기는 게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취미 활동도 꾸준히 했어요. 필라테스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향초를 직접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선물하기도 했어요. 직접 재료를 고르고 만드는 시간은 그 자체로 힐링이었어요.

Q 갭이어가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힘들고 지친 나날을 겨우겨우 버티고 나서 찾아온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도 반대하셨지만, 학교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기꺼이 허락해주셨고요. 복학하면 적응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남은 학교생활을 잘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Q 정림씨의 갭이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



– 휴식을 찾아 떠난 제주도, 월정리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나. '딱 1년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쉬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반복되는 학업에 지쳐 모든 의욕은 방전되어 버린 지 오래이고…. 누군가 '짠' 하고 휴식을 선물해줬으면 싶은 순간. 그런 시간을 서양에서는 '갭이어(gap year)'라 부른다.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딸이 대학 입학 전, 1년간의 갭이어를 갖는다고 해 화제가 됐다. 갭이어는, 해석하자면 연(year) 사이의 틈(gap), 쉴 틈, 인생의 틈을 주는 뭐 그런 거다. 사전적으로는, 고교 졸업 후 또는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봉사, 여행 등의 경험을 쌓는 기간을 말한다. 휴학과 비슷하지만, 스펙 쌓기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점이 다르달까. 우리나라에도 갭이어를 떠난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만나봤다. 열심히 달려온 자신에게 삶을 돌아볼 기회를 주고 싶었다던 대학생 4인.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태국의 섬,
석양이 아름다운
코창에서

지금은 세계 여행 중 + 23살 조예진

Q 갭이어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새 학기의 설렘, 중간고사 전날 새벽 4시의 쫄깃함, 끝이 없지만 끝을 내고야 마는 과제의 카타르시스…. 모두 소중한 순간이었지만 언젠가부터 권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대학 너머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느끼며 '대학 사회'에 갇혀버린 생각의 한계를 깨려고 갭이어를 선택했어요.

Q 지금 세계 여행 중이라고 들었어요. 5주간의 동남아 여행을 끝내고 지금은 인도에 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인도의 바라나시예요. 갠지스 강가 화장터에서 타고 남은 뼈를 뿌리면 옆에서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고, 어른들은 빨래를 해요. 죽음도 삶의 한 장면이 되는 그곳에서, 죽음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Q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세계 일주라는 꿈을 이뤘으니까요. 여행하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아 진짜 행복하다' '진짜 꿈같다'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늘 꿈꾸던 세계 일주를 하는 게 지금도 가끔 믿기지 않습니다.

Q 여행(갭이어)이 끝나고 나면 뭐가 변했을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은 그대로일 것 같아요. 그래도 권태에서 벗어나 신입생의 마음으로 학교에 컴백할 수 있을 테니 좋아요. 또, 깨끗한 물, 편리한 대중교통 같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고요. 이번 여행이 끝나면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예정이에요. 복학하고, 운영하던 페이스북 페이지도 재개하고 무엇보다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번엔 이번 여행에서 못 간 북미 대륙에 도전할 거예요!

Q 예진씨의 갭이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학교 너머 세상 전격 체험!

Q 갭이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찬란한 시기의 내게 1년이라는 휴식을 주고 싶었어요. 그동안 못 해봤던 일,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Q 갭이어를 하는 동안 어떤 일을 했어요? 버킷 리스트를 실천했어요. 지리산 · 설악산 종주, 아버지와 함께했던 자전거 국토 종주, 그리고 필리핀 팔라완 무인도에서 4박 5일간의 생존 체험을 했어요. 말을 하다 보니 갭이어를 참 보람차게 보낸 것 같네요. 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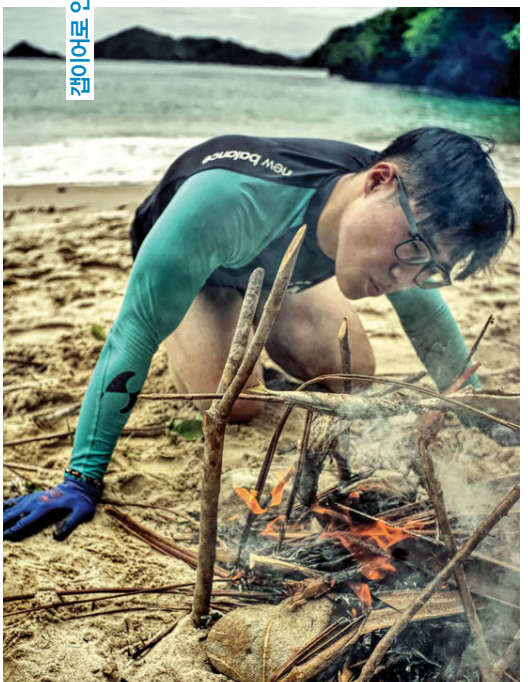
Q 무인도는 어떻게 가게 됐나요? 어릴 때부터 영화 〈캐스트 어웨이〉나 〈정글의 법칙〉을 보고 꼭 한 번 무인도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무인도 탐험대 모집 공고를 보게 됐고, 바로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7월에 4박 5일간 다녀왔어요. 무인도에 떨어졌으니 모든 걸 제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게 힘들었어요. 불도 직접 피워야 하고 배가 고프면 작살을 들고 바다에 뛰어들어 생선을 잡아와야 했으니까요.

Q 갭이어로 꿈을 찾았다고 들었어요. 지리산 · 설악산 종주, 철인 3종 경기 등을 경험하면서 내가 활동적인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어서 아웃도어 액티비티 상품기획자라는 꿈을 갖게 됐어요. 꿈이 또 변할지도 모르지만, 현재 내가 가진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Q 병학씨의 갭이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침반'이라고 할까요. 우왕좌왕하던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거든요.

–
불아,
붙어라!

갭이어로 인생의 방향을 찾았다는 + 29살 김병학



20대 라이프 가이드 매거진, 대학내일.
20대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

개인 배달 서비스

대학내일은 개인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담되지 않게
배송료만 받겠습니다.
학교 밖 어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서 대학내일과 만나세요.

◇◇◇◇◇◇◇

배송 비용

6개월 개인 배달 서비스 총
20여권 (방학 중 격주 발행)
배송료 1만 5천원.

◇◇◇◇◇◇◇

특별 할인

현역 군인이나 동아리 단위의
신청은 1만원. 단, 배송지를
동아리 방 및 군부대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

◇◇◇◇◇◇◇

신청 방법 및 문의

univ20.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좌측에 정기구독 클릭.
Tel 02-2287-2300
Email verygood@naeil.com

20 대학내일 × 정·기·구·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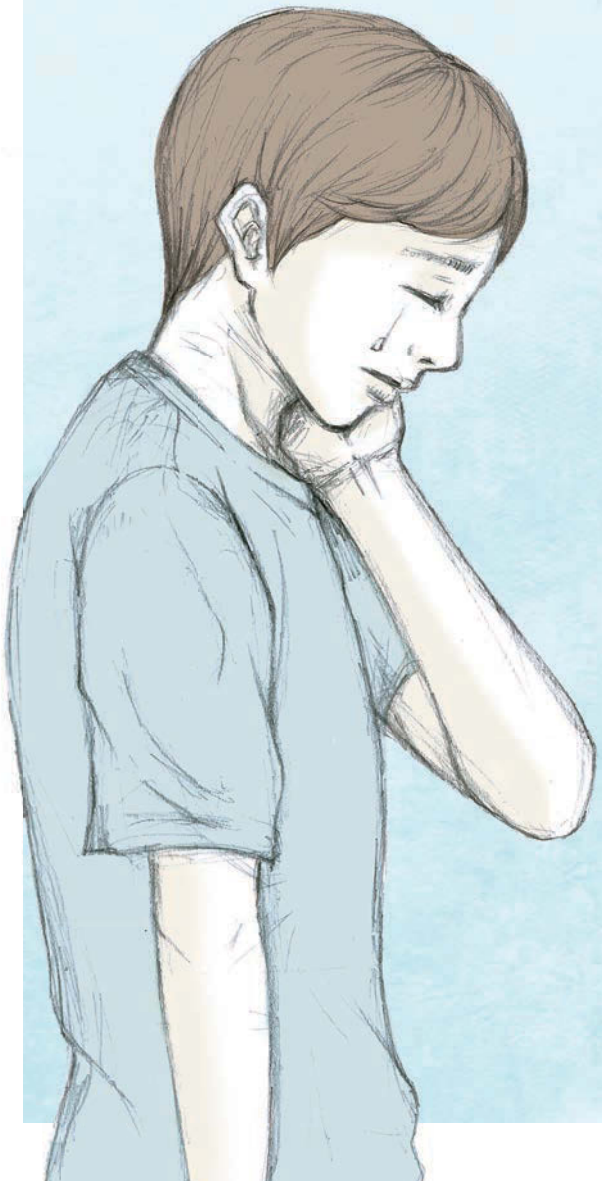
Editor 조아라 ahrajo@univ.me | Illustrator 유승서 |

당신을 위해 내 마음이 제일 어려운

작가 — 정여울

마음이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한다. 슬픈 소식에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펑펑 울다가도, 몇 시간 뒤에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 웃는 나라는 사람. 아침에는 내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어깨를 쭉 펴고 문밖으로 나섰지만, 자기 전 침대에선 '아까 왜 그랬을까?'라며 소심하게 움츠러들기도 한다. 열 길 물속보다도 어려운 내 마음속. 책 『공부할 권리』를 쓴 정여울 작가를 찾아가 우리가 자주 겪는 감정에 관해 물었다. 슬픔, 외로움, 열등감, 자기애…. 내가 지금 이 감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

마음껏 슬퍼할 권리



책 『공부할 권리』에서 이렇게 쓰셨죠. "현대인은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슬픔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왠지 촌스러운 일이 되어 버렸죠."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현대인만의 문제인가요?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나요?

농경 사회에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살 수 없었어요. 평생 동안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비슷했죠. 외교관이나 예술가 말고는 외국에 나갈 일도 없었고요. 어떤 동네에 태어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었죠. 이쪽 마을에 가면 정씨만 살고, 저쪽 마을에는 김씨만 사는 집성촌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이런 마을에서는 다들 오지랖이 넓을 수밖에 없겠죠. 서로에 관해 다 알고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오픈된 사회였기 때문에 내면과 행동의 거리가 멀지 않았어요.

슬픔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왜 부정적인 일이 되었지요?

현대인은 자기 고향을 떠나와서 살아요. 도시가 고향인 사람들은 고향의 노스탤지어를 느끼기가 어렵고요.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거나 철없이 행동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이죠.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 넘어가는데, 진짜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막 판단할까 두려워지고요. 내 마음이 못났든, 이상하든, 울퉁불퉁하든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도 타인의 감정을 받아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외로움은 더욱 가속화되고, 정직한 자기표현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자기표현에 솔직한 사람들도 많아요.

다들 자기표현을 잘 하죠. 하지만 그것은 주로 홍보나 마케팅을 위한 자기표현이에요. 진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을 위해서, 자기를 PR하기 위해서 진짜 자기 자신은 소외되어 가는데도요. 그래서 현대인이 훨씬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책에는 안티고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녀는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협 앞에서도 꿋꿋하게 오빠의 장례를 치르며 슬퍼하지요. 슬픔을 마주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먼저 개인적인 존엄과 사회적인 존엄이 있어요. 개인적인 존엄은, 내가 나의 존엄을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 학교 앞에서 택시를 탄 적이 있어요. 승차 거부를 두 번이나 당하고 나서 다음 택시를 탔더니, 택시 기사님이 "아가씨는 왜 그걸 따지지 않고 가만히 있었느냐"고 묻더라고요.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계속 묵인하기만 한다면, 내 개인적 존엄을 지킬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존엄도 지킬 수 없지요. 사회적 존엄은 내가 당한 일이 아닌데도 내 일처럼 슬퍼하는 것이에요. 얼마전 강남역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해 포스트잇을 붙이며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감수성이 없다면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겠어요.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려는 마음이 용기의 시작인 것 같아요.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모두들 행복할 권리를 말할 때, 안티고네는 불행할 권리를 지키려 합니다." 행복이 마치 사명이 된 것만 같은 요즘인데, '불행할 권리'라는 말이 낯선 독자가 많을 것 같아요. '불행할 권리'란 무엇인가요?

슬픔만이 가진 힘이 있어요. 슬플 땐 마음껏 슬퍼하는 게 좋지요. 인간은 결코 쿨한 동물이 아닌데, 쿨한 척하려다 보니까 자기감정을 왜곡해요. 가족이 사라졌는데 빨리 출근해야 하는 일도 생겨나고요. 안티고네는 혈통이 좋아요. 공주로 태어나 왕비가 돼요. 이처럼 탄탄대로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목숨을 걸고 오빠의 장례식을 치르죠. 왕은 안티고네에게 오빠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명령해요. 반대파를 단속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지요. '국민이 될래? 인간이 될래?'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기도 해요. 국민이 되는 것은 왕의 말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짜 인간다운 권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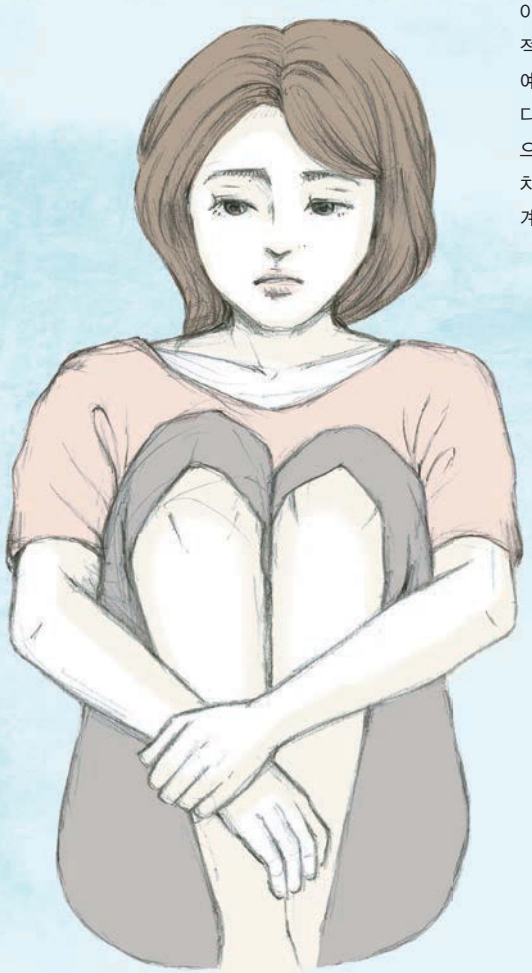
혼자가 될 권리

우리에게 외로움은 왠지 부정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학창시절 때부터 혼자 있으면 부모님도 걱정하시잖아요. 내 자식이 따돌림 당하거나, 잘 적응하지 못할까봐서요. 왜 외로움은 나쁜 것으로 여겨질까요?

외로움은 분명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하지만 외로움 앞에서 가장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현대인 같아요. 혼자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성장하는 시간인데도 말이에요.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자유로운 상상도 많이 하고…. 사실은 혼자 있을 때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연락이 끊어진 친구라든지, 아니면 세상을 떠난 작가들이라든지. 지금 내 옆에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을 떠올림으로써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정말 소중한 감정이거든요.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가장 나다워질 수 있어요.

혼자 지내기를 좋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겠죠?

그럼요. 우리는 지금 내 옆의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한다는 압박을 겪고 있어요. 이것은 '사회 인적 자본'이라고 하죠. 인간도 자본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 서로가 서로를 자본이라고 생각한다면 관계가 아닌 착취죠. 직위가 아닌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효율성이나 나이 차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해요.



혼자 지낼 때 진짜 꾸밈없는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20대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요. 취업이나 대입 시험을 준비하면서, 무언가를 이루기 전까진 일부러 외부와 단절하고, 친구들도 멀리한 채 혼자 보내죠. 하지만 혼자 보내는 시간을 통해 더욱 침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것이고, 고독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느끼는 것이에요. 외로움은 누군가 같이 함께하면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독은 누군가가 곁에 있어도 치유가 안 돼요. 다만 고독의 장점은 꼭 치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죠. 고독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으니까요.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더 잘 해내요.

고독함은 외부와의 단절과는 다른가요?

다르죠. 단절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글을 쓸 때는 전화도 받지 않고 완전히 몰두해요. 자발적인 단절과 창조적인 단절을 꿈꾸면서요. 고독은 나쁜 게 아니라 고독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나쁘다고 생각해요.

혼자가 되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휴학을 하고도 혼자 있지 않고, 대외활동 등을 하며 미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혼자가 된다는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저도 그런 시간을 오래 보냈어요. 하지만 단지 일자리를 구하는 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짬짬이 하면서 절박한 희열을 느꼈어요. 그때의 고독했던 공부의 기억은 지금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24시간 취직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루 한두 시간만이라도 나만을 위한 자발적인 고독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 그때만큼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정말로 나중에 일을 시작하게 되면, 창조적인 자기 공부를 할 시간조차 만들기 어려워져요.

콤플렉스와 친해질 권리

열등감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자신의 열등감을 타인을 괴롭히는 데 이용하는 방식이야말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책에 쓰셨어요.

열등감은 마치 무기처럼 자신의 마음뿐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찌르지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참 멀고도 지난한 길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스스로의 열등감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극복하기보다는,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해요. 스스로의 마음을 비춰볼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그럴 때도 문제지만, 이런 타인을 만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솔직하게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어려울 때에는, 간접적으로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낫고요. 문제를 일단 인지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이 극복의 시작이니까요.

책에서 "콤플렉스는 암세포처럼 도려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평생 살아가야 할 내면의 동반자"라고도 하셨죠. 그러나 저는 아직도 제 콤플렉스를 솔직히 드러내는 것에 걱정이 듭니다. 사람들이 얕잡아 볼까봐서요. 제 걱정은 기우인가요?

모든 걸 잘 해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남들과 나의 것을 비교한다면,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된다고 봐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한두 가지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기가 아닐까요. 저는 강의를 하려고 나갈 때마다 무대 공포증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 적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냥 '글을 쓰는 나'에 집중하려 하지요. 가뜩이나 글 쓸 시간도 모자라는데 말까지 유창하게 잘하려고 하고 유머 감각까지 키울 힘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 자신의 콤플렉스와 잘 지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욕망의 가짓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학교 강의도 전보다 더 재미있어졌어요. 나를 괴롭히지 않고 그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게 돼요. 자꾸 욕망을 가지치기해서 욕심의 분야가 늘어나면 도저히 열등감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내게 바라는 내 모습을 간결하게 압축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것만 집중하기에도 사실 시간은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을 드러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남들은 나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습니다.(웃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진짜 문제예요.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가혹할 때, 타인의 시선을 확대해석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게 되니까요. 콤플렉스를 화끈하게 인정하고 나면 의외로 마음이 편해져요. 남들 앞에서 인정하기 어렵다면 그냥 종이 위에 한번 써봐도 좋아요. 휴대폰 메모장이라도 좋고요. 내 콤플렉스를 글로 표현하면 그 상처에 대해 객관적인 거리감이 생겨요. 겨우 이런 걸로 나 자신을 괴롭혔나, 하고 피식 웃을 수도 있게 되고요.

나르시시즘을 털어낼 권리

나를 사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나르시시즘에 빠지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된다고 책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애의 극한까지 걸어간 '리어 왕'의 사례가 책에 나옵니다. 자기애를 풀어 쓰자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일 텐데, 나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자존감과, 나에게 빠져 지내는 자기애는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지요?

완전히 다르지는 않아요. 자기애와 자존감의 교집합도 많죠. 자존감은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자기애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그러니 자기 존중과 자기 사랑의 차이는 무얼까요. 자존감은 위기에 처했을 때 빛을 발해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무시할 때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용감하게 저항하기도 하고요.

자존감과 자기애는 어떤 순간에 차이점을 드러내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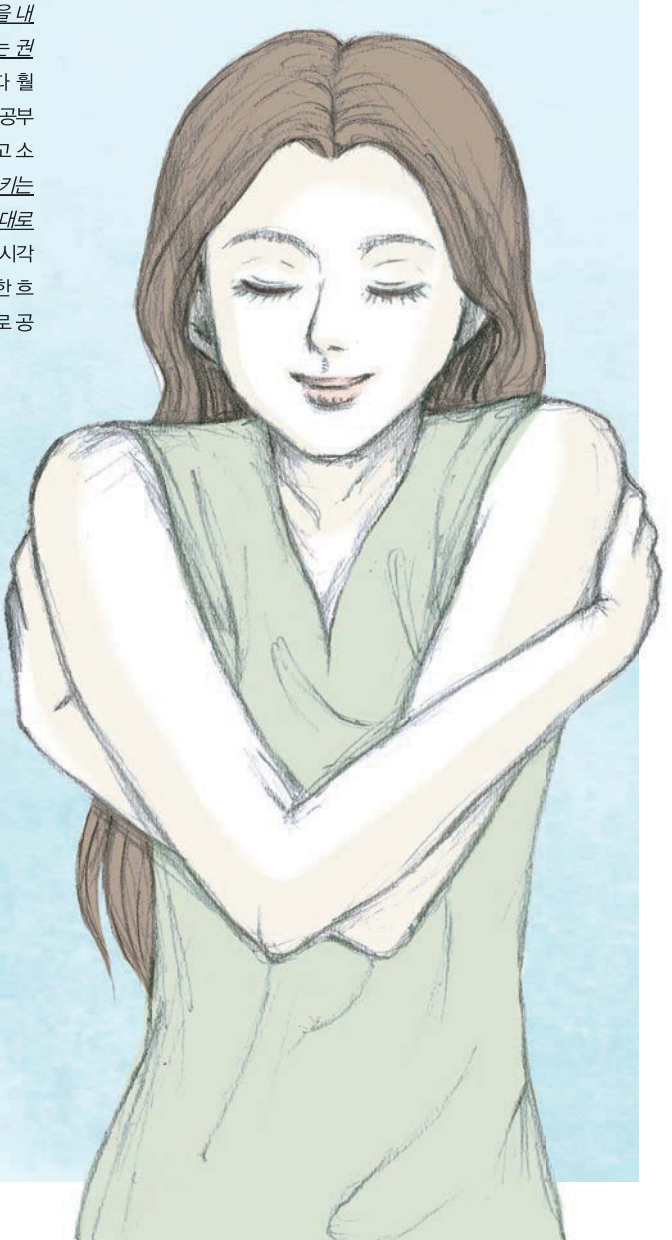
자기애는 강한데 자존감이 약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겨요. 자기를 스스로는 굉장히 아끼는데 남들은 자기를 아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저는 지나친 자기애를 조금 누그러뜨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를 존중하는 기준으로 나의 능력이나 외모 같은 외적인 요소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에게 빠져 지내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나를 존중하는 마음에는 조건이 없어야 해요. 나를 지금의 모습 있는 그대로 최대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죠. 자기애는 노력이 필요 없지만 자존감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자기애는 본능이지만 자존감은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보려면 스스로 무엇을 물어봐야 하지요? '활발하다', '내향적이다' 같은 성격 또는 '친절하다'거나 '무뚝뚝하다' 같은 태도로만은 알 수 없는 것이 나라는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보세요. 그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서서히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사람들과의 충돌 속에서 더 나은 내 자신이 만들어집니다. 둘째로, 자신에게 과도하게 에너지를 집중하지 마세요. '나를 가꾸다', '나에게 투자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데 길들어 있어요. 스스로 관리의 대상이 되려 하지 말고 창조의 주체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많이 읽고 많이 쓰기를 바라요. *공부할 권리란 이 세상을 내 방식대로 바라보고 사유하고 느낄 수 있는 권리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인문학 공부를 통해 저는 저 자신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소중함을 배우고 있어요. *공부할 권리를 지키는 것은, 남들이 명령하거나 권력이 시키는 대로 세상을 보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나의 시각과 나의 마음, 나의 열정으로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공부할 권리입니다.



실패하지 않은 여행

'여행책방 일단멈춤'

송은정

그를 만나기 전에, 그가 독립출판물 「장기여행자」에 기고한 글을 먼저 읽었다. 제목은 '실패한 여행'. 솔직한 글이었다. 털어놓자면, 자신의 여행엔 대접 받은 극진한 식사도, 위험에서 구해준 운명의 은인도 없고, "인스타그램에는 결코 올리지 않을, 괄호 안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어쩌면 날마다 즐거운 일만 가득할 것 같은 '덕업일치'의 다음 페이지도 그렇지 않을까? 솔직한 질문으로 얻어낸 솔직한 답들.

요즘 염리동에는 꽤 많은 독립책방이 문을 열고 있는데, 2014년 말에 문을 연 '일단멈춤'이 이 흐름의 시작인 것 같아요. 왜 염리동이고, 왜 여행책방인가요?

독립출판물을 취급하는 서점을 생각했는데, 이미 좋은 곳이 많았어요. 아직 없는 콘셉트와 나만 할 수 있는 것의 교집합이 여행이었어요. 서울이지만 서울 같지 않은, 여행하는 듯한 느낌의 공간을 찾다가 발견한 동네가 염리동이고요.

책방 주인 은정님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입고할 책을 고르고, 주문하고, 진열하고, 워크숍과 행사도 기획하고, 각종 SNS에 어울릴 만한 사진을 고르고 글도 써요. 손님도 맞고, 온라인 주문과 택배 업무도 처리하고요. 혼자 모든 걸 해야 하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시작하기 전에 현실적 조건도 따져보셨을 것 같아요. 필요한 자본금이나 선택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돈이 많이 들진 않았어요. "책방이 망하더라도 내 인생엔 지장이 없을 만큼만 돈을 쓰자"란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했거든요. 책방을 열기 전, 8개월 정도 회사를 다녔고 그 후에도 1년 정도 외국에 있느라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고요. 포기한 것들엔 뭐가 있을까요? 사실 특별히 뭘 포기했단 생각은 해보지 않아서요. 글쎄요, 안정적인 수입?

솔직히 '힙'해 보이는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부럽단 얘기는 엄청 많이 들어요. 하지만 다들 이 일이 현실적이지도, 쉽지도 않단 걸 알기에 말에서 그치는 거겠죠. 그런 말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너도 해라! 옆집으로 와라! 하면 되죠. (웃음) 사실 좋아하는 일이 생계 수단이 되면, 무게가 달라질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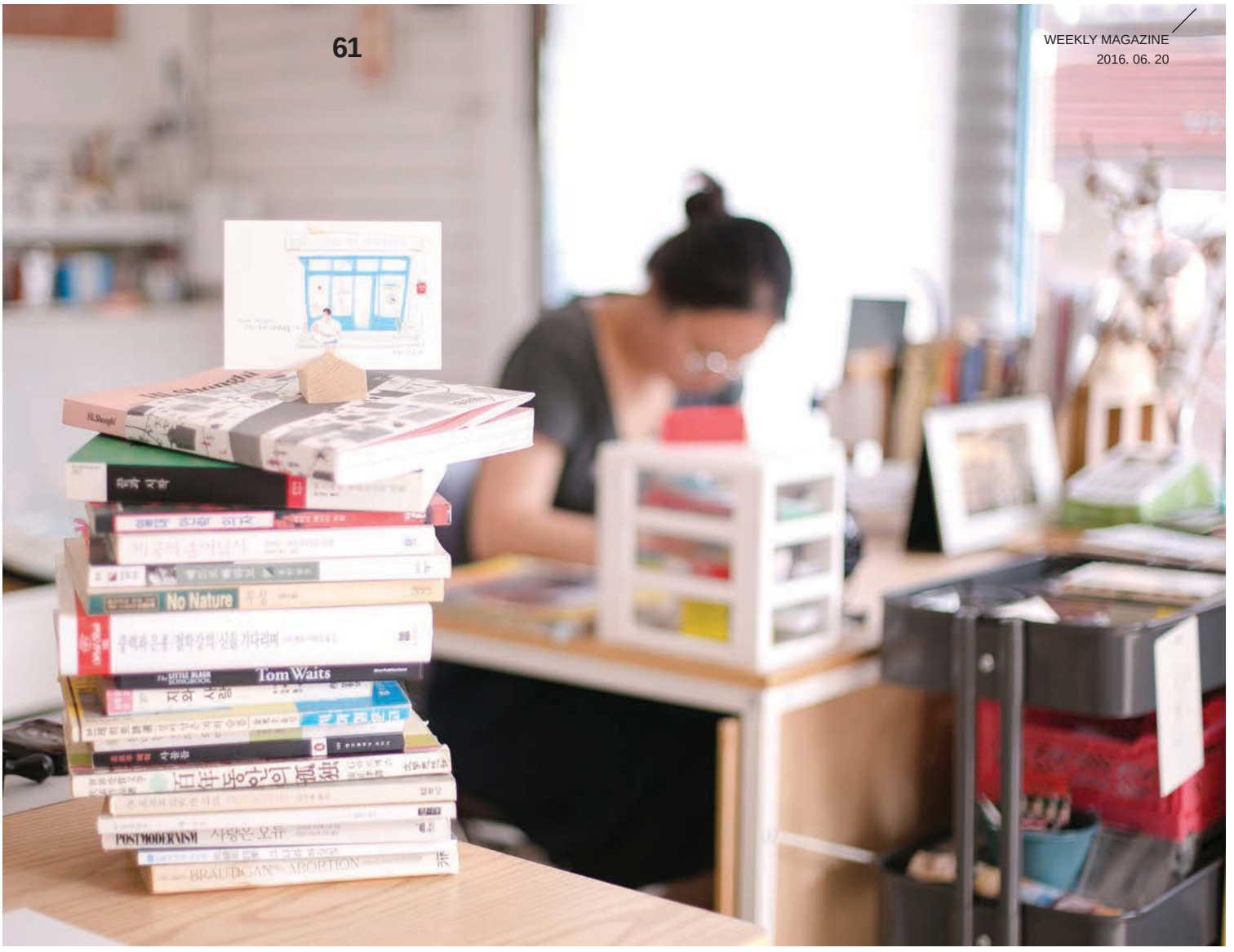
좋아하는 일이든 좋아하지 않는 일이든, 생계를 위해선 무게가 당연히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돈을 벌어서 생활을 꾸리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무게가 실리는 일이니까요.

여행은 여전히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일이 생업이 되면 싫어지니까 취미로 남겨 두란 말들을 하잖아요. 사실 전 그런 경험은 없기도 하고, 좋아하는 걸 여전히 좋아하고 있어요. 대신 여행 책이 있는, 좋아하는 공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싫은 일이 많이 생겼죠. 오히려 직장을 다닐 때보다 쉴 수가 없어요. 책방을 운영하면서는 일요일 하루만 쉬고 모든 걸 혼자서 결정해야 해요. 그렇다고 좋아하는 게 싫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좋아하기에 좀 더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20대엔 어떤 여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독자들의 나이 즈음에요.

여행책방 주인이면 세계일주는 기본일 것 같지만… 평범한 여행을 했어요. 대학생은 돈이 없고, 직장인은 휴가를 내기 쉽지 않잖아요. 다녔던 직장이 휴가가 별로 없는 편이라 회사를 그



만두고 여행을 길게 갔었어요. 이런 답을 원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의외의 답이 더 좋아요. 여행지를 추천받고 싶었지만, 저마다 예산이 제각각이니 방식을 귀띔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여행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첫 배낭여행을 8년 전에 갔는데, 한 달을 파리에만 있었어요. 당시엔 최대한 많은 도시를 가는 게 붐이라, 시간 아깝단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프랑스인이 사는 집을 렌트해서, 장도 보고 산책도 하면서 일상적으로 보냈어요. 그 이후에도 여행을 할 땐 한 도시에 오래 머무르게 되더라고요. 시간은 많고 예산이 적은 대학생에게 좋은 방식인데, 이게 돈도 더 적게 들거든요. 교통비, 외식비 같은 걸 아끼니까.

블로그를 보니 올해 휴가 계획이 꼼꼼하던데요.

작년엔 책방을 시작하던 시기라 여행을 많이 못 갔어요. 그게 아쉬워서 의도적으로 올해는 계획을 더 세운 것도 있죠. 여행책방 주인이니, 여행 많이 간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 이런 마음도 있었고요.

좀 실례가 될 수도 있는 질문인데, 올해 세운 마지막 여행 계획이 11월이고, '일단멈춤'의 부동산 계약기간도 11월까지라기에 이게 딱 맞아서…. 혹시 정리를 하시는 건가 싶고, 다음 계획이 궁금했어요.

올여름이 그걸 고민하는 시기예요. 계속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평소처럼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옮기거나 혹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책방 이름의 출판사를 만들어서 여행 책을 내고 싶기도 해요. 늘 마음에 뒀던 1순위 계획이에요.

책 『덕질로 인생역전』에서 '이 공간에 모든 걸 걸지는 않았다'라고 하셨던 게 기억나요. 그럼에도 '일단멈춤'은 은정님께 많은 걸 가져다줬을 것 같아요.

책방에서 많은 행사와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책상에 앉아 기획한 건 아니었어요. 책방 손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우연히도 이 사람이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즉석에서 행사를 제안했던 거죠. 이런 게 공간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힘이구나, 를 느꼈죠. 가만히 있어도 다양한 분들이 제 발로 찾아오시니까, 원래 일했던 곳에선 상상 못 했던 의외의 일이 많이 생겼어요. 제겐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죠.

운명의 반쪽따위는 없어

세상을 '굳이' 차이는 사람과 차는 사람으로 나눈다면 당신은 어느 쪽의 사람인가? 원래 나는 차이는 쪽이었다. 하하…. 함께한 시간이 짧든 길든, 여지없이 이별을 통보받는 것은 나였다. 그렇다고 연애를 멈추지는 않았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귀고, 헤어지고, 다시 좋아하고, 사귀고….

헤어질 때마다 캄캄한 기억들을 만들었다. 며칠씩 울기만 하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술을 마시고, 자꾸 끼니를 걸렀다. 세상 끝난 것처럼 이별에 괴로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사랑을 필사적으로 찾았다. 그렇게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니, 언제나 사고뭉치일 수밖에. 그런 나 자신을 도통 사랑스러워할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다. 누군가 또 내 연인의 역할을 맡아 나를 사랑해주기만을 고대했다. 왜 그렇게 바보 같아졌을까?

나는 연애가 시작될 때마다, 그 사람이 '나의 반쪽'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우리의 만남은 운명적이라고 생각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매일 보는 드라마, 늘 듣는 노랫말 속의 연애란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다. 누군가가 '나의 반쪽'이란 말은 우리를 하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가 나의 반쪽이고, 너와 함께 있어야만 하나의 원이 되어 굴러갈 수 있다면, 혼자인 나는 불완전한 상태란 뜻이 된다. 너 없는 반쪽짜리 나는 스스로 굴러갈 수도 없다. 절뚝거려야 한다. 그 결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혹은 필수적으로 내 반쪽을 찾으려 들었다. 연애를 해야 비로소 내가 완성된 느낌이었으니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게 영원할 수 없으리란 걸 알고 있었다. 하나가 됐다고 느낄 때도 이 사람이 사라져 내가 다시 반쪽이 될까봐 두려웠다.

그런 불안을 낭만적으로 만드는 건 세상 어딘가에 나만을 위한 '단 하나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믿음이었다. 드라마와 대중가요 세상 속에서 '단 하나의 사랑'은 운명적으로 만들어지며,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등하다. 사랑이란 응당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기적적인 일은, 비현실적인 무언가가 작동해야 가능할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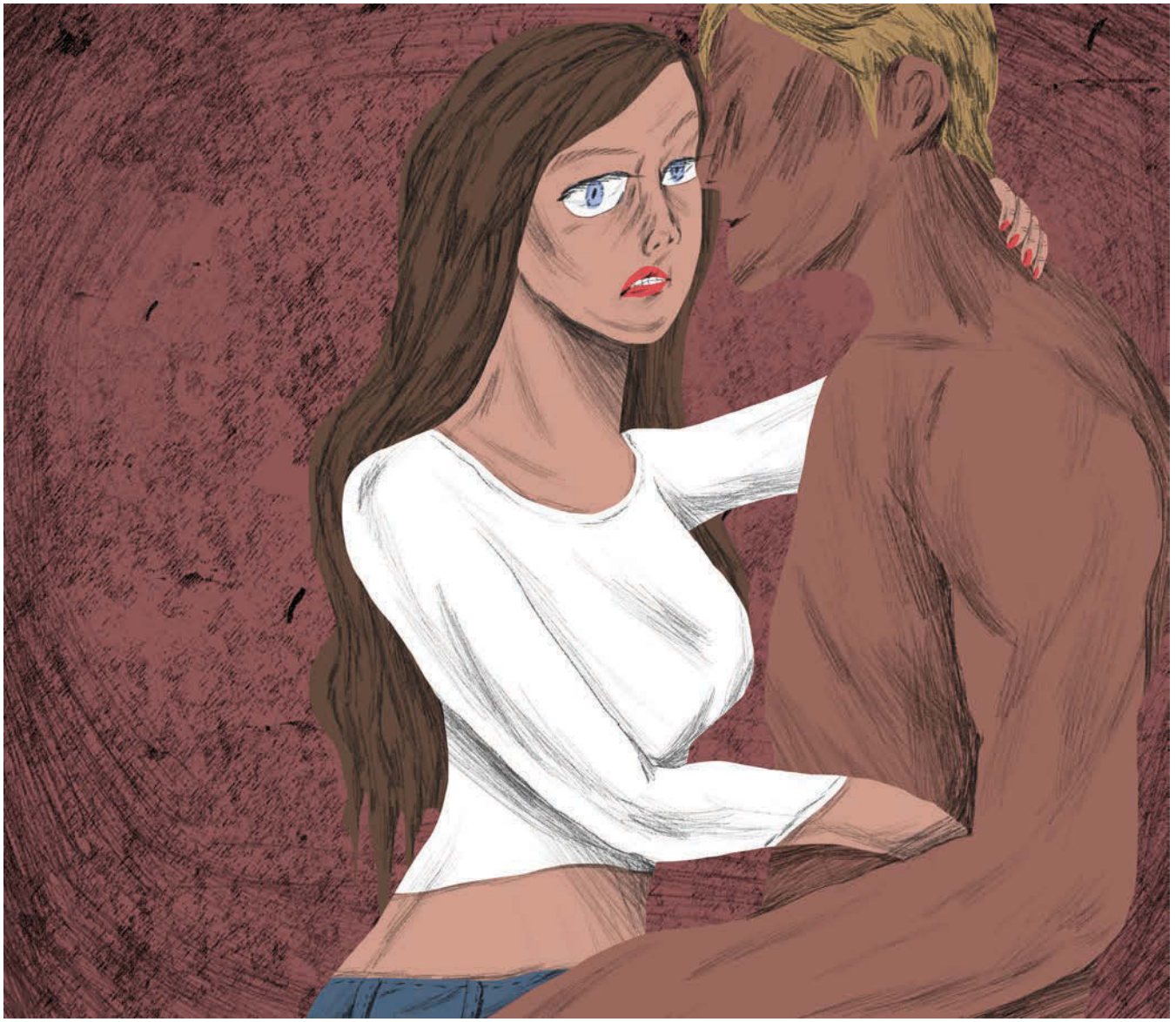
나만을 위해 존재할, 나와 딱 맞는 사람을 만나 사랑한다면 그때부터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그 단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 찾아내기만 한다면 이 모든 외로움과 괴로움은 끝날 일이었다. 이후에는 동화 속 해피엔딩처럼 "오래오래 행복했습니다"라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로써,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고 연애를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사랑이 찾아올 거라는, 우리는 그 사랑에 '빠져들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왜냐고? 그게 더 낭만적이니까.

> 운명적인 '단 하나의 사랑'이라는 건 어디에도 없다.
> 맑은 눈으로 나와 잘 맞을 사람을 찬찬히 살피고
>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알랭 드 보통이 「뉴욕 타임스」에 '우리는 왜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까(Why you will marry the wrong person)'라는 글을 썼다. 그는 말한다. 오랜 옛날에는 결혼이 두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집안 간의 사업이었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수많은 불행이 있었다. 그것이 모두의 트라우마가 되어, 오늘날의 결혼은 본능과 낭만을 중시하게 되었다. 그는 "낭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며 "우리의 비극을 인식할 줄 아는 능력으로 로맨티시즘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존재만으로 행복을 주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분명 어느 순간에는 불행을 가져다준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백 퍼센트 행복일 수 없다. 가끔은 끔찍한 불행이 된다. 하지만 더 자주 행복한 기분을 줄 수 있을 사람을 찾는 건 가능하다. 사소한 행복은 첫눈에 반했던 그 매력, 멋진 몸이나 긴 속눈썹 혹은 예쁜 손 같은 것에서 오지 않는다. 다정한 말투,



혹은 깔깔대며 웃게 할 농담, 좋은 물건을 알아보는 눈썰미, 비슷한 취향. 그런 생각지도 못한 것들에서 비롯된다. 혹은 나를 덜 불행하게 할 사람을 찾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그 사람의 단점 중에 내가 견딜 수 없는 게 있는지, 나의 괴팍한 부분을 상대가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나와 비슷한지…. 이 또한 우리가 인식하는 '로맨틱한 사랑'과는 거리가 있다.

결국 연애는 모두가 꿈꾸는 것처럼 운명적이거나 낭만적이지 않다(아주 가끔은 그렇지만). 절대적이지도, 완벽하지도, 필수적이지도 않다. 운명적인 '단 하나의 사랑'이라는 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맑은 눈으로 나와 잘 맞을 사람을 찬찬히 살피고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에 사소한 행복을 느끼고, 남들보다 예민하게 구는지, 어떤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더 중요한 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야 한다. 반쪽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할 수 있어야 내 옆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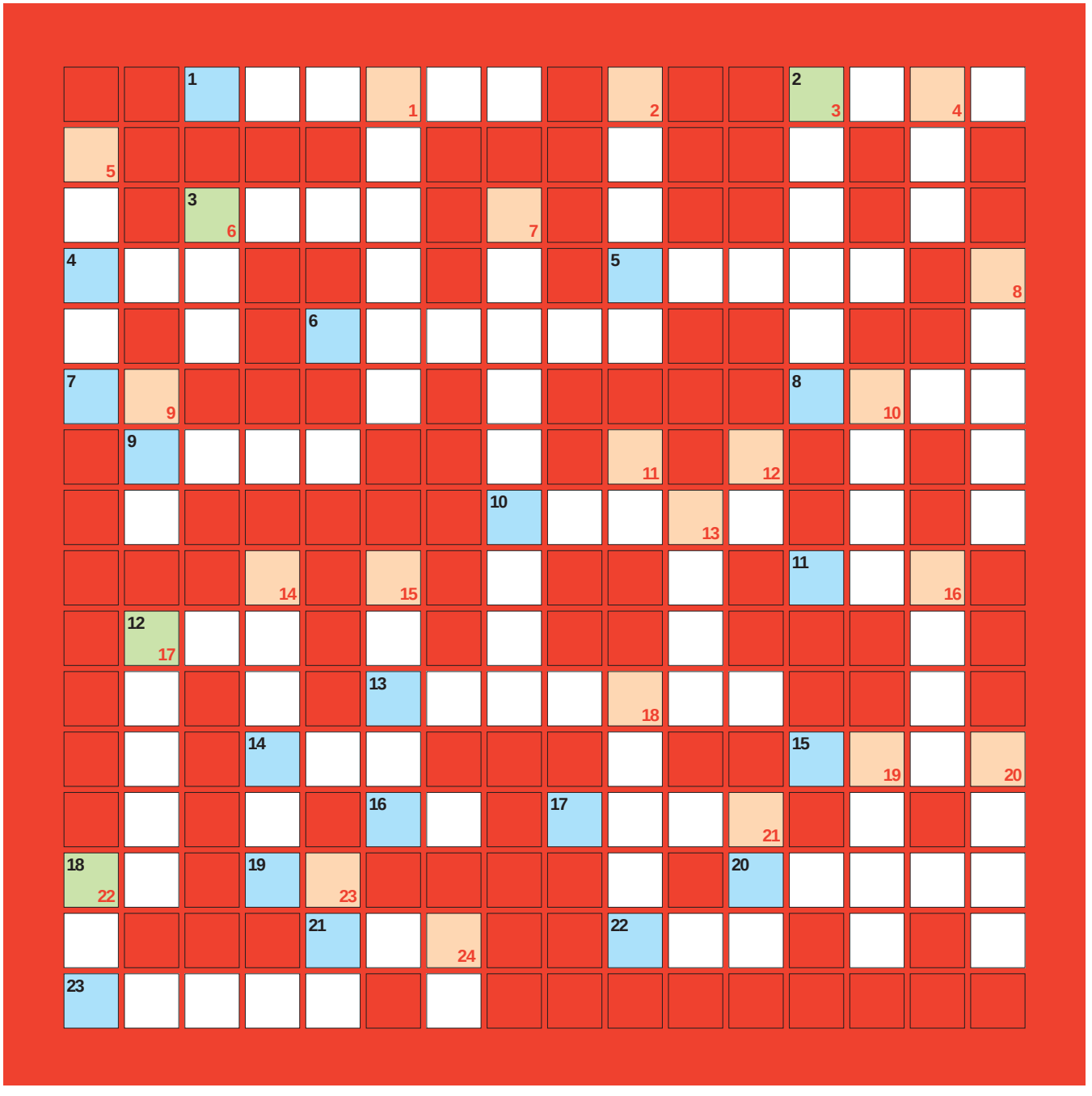
그렇게 좀 더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시작했을 때, (적어도 나는) 더 나은 연애와 더 나은 이별을 할 수 있었다. 내가 반한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애인이 될 사람이냐 아니냐로 판단해버리려는 나쁜 버릇도 고쳤다. 한눈에 반할 만큼 멋진 사람이라고 해서, 나와 맞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매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을 매력적인 그대로 곁에 둘 수도 있게 된 지금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연애와 사랑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던 시절보다 지금의 내가 더 사랑스럽지 않을까. 나는 그런 것 같은데!

기명균의 낱말퍼즐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나는 나는 퍼즐을 만들죠!

Gift
+

퍼즐을 완성해 본인 계정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대학내일)
세 분을 선정해 책 "고맙습니다.(알마)를 보내드립니다.



[가로열쇠]

1. ‘11분’ 만에 ‘흐르는 강물처럼’ ‘죽기로 결심’한 ‘연금술사’. #브라질작가

2.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일컫는 말. 여러분, 곱셈 · 나눗셈은 반드시 덧셈 · 뺄셈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두뇌 풀 가동’해봤자 채연처럼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3. ‘좋은 곳’인 동시에 ‘이 세상에 없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이상 사회. 토머스 모어가 구상한 이곳에서는 하루에 6시간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가를 즐긴다.

4. ‘뼈째 썰어 먹는 회’를 일컫는 말. 어원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발음상 일본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된다. #광어 #도다리 #아나고

5.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한 ‘어벤져스’ 멤버. 특별한 초능력도, 휘황찬란한 장비도 없지만 뛰어난 격투 기술과 센스로 적에 맞선다. #나타샤로마노프

6. 지난 6월 11일 개막한 ‘유로 2016’ 첫 골의 주인공. #프랑스 #아스날

7. ‘아기 공룡’이란 말을 듣고 둘리를 떠올린 당신은 어쩔 수 없는 아재…. 요즘 사람들은 뽀로로가 맡아 기르는 얘를 떠올린다고요!

8. 역대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남자 주인공 중 가장 심장 떨리는 사람, 아니 여우. “Come on, you know you love me.” #풀네임 #NicholasPiberiusWilde

9.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필리핀의 휴양지.

10.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한국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의 대명사. 엔딩 시그널 ‘Part time lover’만 들어도 코앞에 다가온 월요일을 느낄 정도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요즘은 ‘노잼’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다…. #참재밌었었는데

11. 500과 5000원 사이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우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작년 여름 1000호점을 돌파했다. #없는거빼고 #다있어

12. “내 소중한 곤충들아, 착하지만 방법이 없어서, 지겨운 이 사람들만큼 몸무게가 나가지 않아서 너희가 이들에게 그 점을 확신시킬 수 없다면 내가 대신 말해주마. 그들은 너희를 토막 내지만, 나는 살아 있는 너희를 연구한다고 말이다. … 그들은 죽음을 연구하지만 나는 생명을 연구한다.” #곤충밖에모르는바보

13. 피로사회 – 시간의 향기 – 투명사회 – 에로스의 종말 – ?

14. 영화 〈아가씨〉에 대한 「씨네21」 김현수 기자의 단평. “박찬욱 감독은 김민희라는 신비로운 배우의 신세계를 개척했고 OOO라는 기대되는 신인 배우를 발견했다.” #내인생을망치러온나의구원자 #나의타마코 #나의숙희

15. 19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여성 주인공의 주체적인 삶을 그려낸 성장 소설. #샬럿 브론테

16. 사진과 영상 사이. #jpg와avi사이 #gif

17. “OOOO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18.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스티븐 스필버그의 괴수 영화. #상어가나타났다 #블록버스터의시초

19. (1)1년에 하루뿐인 소중한 날 (2)할인 받을 수 있는 날 (3)혼자 집에 있으면 괜히 서글퍼지는 날 (주의: 빠르면 꼬인다)

20. (1)크로캅의 나라 (2)넥타이의 나라 (3)모드리치의 나라

21. “허어어~ 흐어어어~ 허어~” 추임새만으로 감동을 주는 봄의 남자. #봄이좋냐 #그래좋다

22. 기업이나 물건을 자손에게 남겨 그것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 “가난을 OOO하지 않으려고 너를 그렇게 공부시켰는데….”

23.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맨몸 웨이트 트레이닝의 기본. 너무 잘 알려져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전신의 코어 근육을 균형 있게 키우기에 적합하다. #움직이는체육관 #Pushup

[세로열쇠]

1. 1916년 정식으로 처음 개최된 축구대회로, ‘남미의 월드컵’이라 불린다. 가장 많이 우승을 차지한 나라는 우루과이로, 첫 대회에서도 우루과이가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는 대회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남미가 아닌 미국에서 대회가 열렸다. #브라질탈락 #네이마르만있었어도

2. “첫 베이커에 대해 잘 아는 관객이라면 그의 거칠었던 시기를 스크린으로 접하는 재미가 있을 듯. 잘 모르는 관객이라면 위대한 트럼펫 뮤지션을 통해 재즈 음악의 한 자락을 접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by 김형석 영화 저널리스트

3. 이센스와 함께 ‘슈프림팀’의 멤버였던 래퍼로,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졌다. 현재는 박재범과 함께 AOMG의 공동 대표. 작년 여름, 본인 이름과 같은 제목의 싱글을 발표해 ‘무려’ 빅뱅을 누르고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다. #4위먼

4. 최근 몇 년간 트렌디한 카페, 술집이 급격히 늘어난 동네. 잔디밭과 산책로가 있는 경의선 숲길은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나들이하기 좋은 곳으로 사랑받고 있다.

5. 주인공 가츠가 원수 그리피스에게 복수하기 위한 여정을 그린 장편 만화. 장대한 스케일과 높은 퀄리티로 많은 마니아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개가 느려 “죽기 전에 과연 끝이 날까?” 회의에 빠지는 독자들도 함께 늘고 있다. #미우라켄타로

6. 한때 보건복지부 장관, 한때 통합진보당 공동 상임대표, 꾸준히 책을 펴내는 베스트셀러 작가, 현재는 시사 예능 프로그램 〈썰전〉의 진보 측 패널. #경제학카페 #청춘의독서

7. 훈련사 강형욱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의 집을 방문해 행동 치유법을 알려주는 EBS의 교양 프로그램. #우리강아지가달라졌어요

8.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초심은 사라지고, 여성 출연자의 몸매만 부각시키는 구태를 거듭하다 MC 이창명이 사고를 치자 결국 폐지된 KBS의 예능 프로그램. #뜀틀왕자조성모를아시나요

9. 스케이트보드의 한 종류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다운힐 #댄싱 #월터의상상은현실이된다

10. “여기 OOOO 돼요? 비밀번호가 뭐예요?” #데이터가없을때

11. 비행은 기본, 아무리 작은 물체도 감지할 수 있는 어벤져스의 새 멤버. #BirdCostume #캡틴의조력자

12. ‘OO’4 = 2, ‘OO’9 = 3, ‘OO’16 = 4, ‘OO’100 = 10 #거듭제곱근

13. 갑: 우상호, 을: 김영호

14. 송일국과 삼둥이가 ‘갈비만두’ 열 판을 뚝딱 해치운 김밥집. #바른사람이만든바른김밥

15. 코엑스와 롯데월드, 63빌딩의 공통점. #코난의반려낙지사무엘이사는곳

16. ‘신의 물방울’을 감별하고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추천해주는 직업.

17. ‘울타리가 쳐진 곳’이라는 뜻의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말로, 보통 ‘천국’, ‘낙원’을 뜻한다. “Almost OOOOO~ 태양보다 더 눈부신~”

18. 개인적인 가사 · 가정 문제로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 군 복무 기간보다 일찍 제대하는 것.

19. 1959년 프랑스에 설립된 사립 경영대학원. 특정 국가 출신이 1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학생들의 출신 국가가 다양하고, 그래서 ‘작은 UN’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20. 2007년부터 매년 3월 셋째 주 토요일에 한 시간가량 전등을 끄는 환경운동 캠페인. #세계자연보호기금 #WWF

21. 자외선 차단제의 다른 이름. #발라야한다

22. 5만 명에게 4조원의 피해를 남기고 2011년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희대의 ‘다단계’ 사기꾼.

23. 일본의 국기. #베를린올림픽 #손기정 #동아일보

24. 달콤한 칵테일의 한 종류. 이름처럼 벌레가 꼬일 듯 싱그러운 초록빛을 띤다.

782호 해답

가로열쇠 류준열양정원박리다매야근수당어화둥둥백아연픽미한니발레임덕작은것들의신동상이몽무적핑크뭣이중한지도모름서오버워치진에어봉이김선달알박기반기문삼각김밥괜찮아사랑이야백희가돌아왔다공동경비구역 세로열쇠 열대야정의당이매진컨투어링박시백사시미천둥벌거숭이수중발레아이작아시모프픽션들한강임을위한행진곡낙동강오리알싸이보그지만괜찮아무서운이야기오달수박문각인사동반야심경김환희구의역

가장 **인간적인** 인간

Who + 김비밀은? 아직까지 노래방에서 목 쉰 적 없는 게 자랑.

전화 상담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다. '텔레마케터'라고 불리는 그 일, 맞다. 출근한 뒤에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한 권의 책을 외우는 일이었다. 매뉴얼대로 답하는 법이 실려 있는 책이었다. 나는 책에 쓰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도록 훈련받았다. 그러면서도 최대한 윗 담당자에게 전화를 넘기는 일이 없어야 했다. 그러다 보면 폭발하는 고객들이 생긴다. 전화를 돌려도, 돌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객이 욕을 퍼붓더라도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해야 했다. 매뉴얼대로, 도와드릴 수 없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나는 내가 무엇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 것인지, 실체를 느낄 수 없었다. 영혼 없는 사과였다. 그야말로 기계적이었다.

일을 하면서 아이러니했던 점은, 고객과 진심으로 소통해야 할 상담 직원은 절대 인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다. 어떠한 모욕을 당하더라도 기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회사 내에서 훌륭한 직업 정신을 지닌 직원으로 칭송받을 수 있다. 한번은 30대 초반의 남자 고객이 전화 해서 화를 낸 적이 있다. 마감 기한이 지난 일을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처리 기간이 지나서 죄송하다"는 답을 매뉴얼대로 말했다. 그는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전화 상담이나 하고 사는 것"이라는 둥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고객들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텔레마케터들이 사실은 방학을 이용해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떠나버리는 대학생들이라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흥분한 고객이 "정부 기관 게시판에 불만을 올리겠다"는 요상한 협박을 하는 도중에, 나는 나도 모르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끊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윗사람에게 얘기하자 담당자가 녹취록을 들어봤다. 그러더니 "네겐 잘못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녹취록에 남아 있는 침착한 목소리가 내 것처럼 들리지 않았다. 대응은 훌륭했다. 완벽히 사려 깊게 진심을 다해 미안해하고 있었다. 무엇이 죄송한지는 정확히 몰라도 목소리만은 잔뜩 죄송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자리로 돌아왔다. 책상에는 내가 펜으로 적으면서 상담한 내용이 보였다. 마지막으로 적은 것은 아까 그 고객의 전화번호였다.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익명으로 문자를 보내볼까 상상하며 적은 번호였다. 진상 고객들의 번호를 적고 복수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 스트레스가 풀릴 때가 있었다. 그런 상상만으로도 위로를 받다니. 그래, 나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지. 그러니까 화도 났다가 풀리는 것이겠지. 때로는 매뉴얼을 벗어나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매뉴얼은 인간다움을 잃게 만든다. 세상이 내미는 인생의 지침서에는 남들과 똑같이, 비슷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면 바쁘게 남들을 쫓아가느라 기계처럼 살게 된다. 화낼 일엔 화를 내고, 죽을만큼 힘들면 놓고 쉬기도 하고, 꽃을 기르거나 춤을 추면 어떨까. 매뉴얼에 나오지 않은 선택들이 내 인생을 유니크한 한 인간의 삶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으며.

20대라면 누구나, 칼럼 기고나 문의는 ahrajo@univ.me

WEEKLY OUT CAMPUS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빌딩
BI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제8회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 광고 공모전

제천시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제천시
대학생 관광 서포터즈

여러분께 독자 선물을 드립니다

대학내일 지면에 대한 독자 의견을 받습니다. 대학내일의 다양하고
유익한 기사들을 읽어보신 후 readers@univ.me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이름, 주소, 연락처 필수 기재) 지면에 대한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 매주 1명을 뽑아 '글로시박스'를 드립니다.

독자 선물 당첨자 발표 오수민(7658) NO.783
아웃캠퍼스 지면 독자 의견 선정을 축하합니다.^^

GLOSSYDAYS

글로시박스는 전문 뷰티 MD들이 매월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여 새롭고 트렌디한 화장품 5개를 박스에 담아 보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글로시박스를 포함하는 뷰티 맞춤형 포털 서비스 글로시데이즈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매월 구독료 1만 6500원으로 5~6만원 상당의 뷰티 아이템을 만나보세요. 환절기 건조함으로 지금 당신의 피부가 위험해요! 세월로부터 한 살 더 먹은 피부를 보호해줄 제품을 준비했어요. www.glossydays.kr

HOT ISSUE

대학생만의 특권!

Editor 조희원 chw916@univ.me

문화체육관광부

제8회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 광고 공모전

www.mcst-ad.co.kr

문화체육관광부가 〈제8회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 광고 공모전〉을 개최해. 리우 하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응원할 수 있는 메시지 및 아이디어를 인쇄광고와 영상광고로 응모 받는다고 해. 지역과 연령 · 세대 · 문화 차이를 넘어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을 펼치기 위한 화합의 메시지와 열정으로 뭉친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응원 메시지를 담으면 돼.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 참고.

+

일정 2016년 8월 19일(금) 오후 5시 마감

대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상금 대상(1팀) 500만원, 최우수상(1팀) 300만원, 우수상(2팀) 100만원, 장려상(4팀) 50만원

제천시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제천시 대학생 관광 서포터즈

jecheonsupporters.co.kr

제천시에서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제천시 대학생 관광 서포터즈〉를 모집해. 제천시 관광 온라인 홍보, 관광 행사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하고 팀별 팸투어를 가는 대외활동이야. 온 · 오프라인 홍보 활동이 가능한 수도권 및 충북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20명을 선발한다고 해. 발대식 불참 시에는 선발이 취소된다니 유의하자. 자세한 사항은 지원서 작성 홈페이지 참고.

+

모집 2016년 6월 30일(목) 마감

대상 온 · 오프라인 홍보 활동이 가능한 수도권 및 충북 지역 대학생(휴학생 가능)

혜택 활동 수료자 전원 제천시장 명의 수료증 배부, 전체 및 팀별 팸투어 제공 및 최종 활동 우수 팀 포상금 지급, 제천시 관광 행사 참여 기회 제공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빌딩 BI 공모전

www.zebbi.or.kr

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빌딩 BI 공모전〉을 열어.
제로에너지빌딩이란 건축물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최소의 에너지를 소요하는 건축물을 말해.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제로에너지빌딩제의 제도 도입에
맞춰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개념을 쉽게 전달 할 수 있도록 BI를
디자인하면 돼.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 참고.

+

일정 2016년 9월 19일(월) 오후 6시 마감
대상 제로에너지빌딩 사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 고 · 대학생 및 일반인)
상금 대상(1팀) 300만원, 최우수상(1팀) 200만원, 우수상 학생부문(2팀) 50만원 상당 닥터드레 헤드폰,
일반인부문(2팀) 100만원, 장려상(6팀) 공단 이사장상

KGC인삼공사

KGC인삼공사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Ginlus

kgcginius.kr

KGC인삼공사에서 〈KGC인삼공사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Ginlus〉를 모집해. 농촌 봉사활동, 인삼창 견학, 매장 견학, 마케팅 프로모션 기획 등 마케팅에 관심 있는 대학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해. Ginlus를 수료한 사람에게는 KGC인삼공사 공채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 등의 혜택이 있어. 자세한 내용은 KGC인삼공사 Ginlus 공식 페이스북 참고.

+

모집 2016년 6월 27일(월) ~ 7월 6일(수) 자정 마감
대상 마케팅에 관심 있는 대학생 누구나
혜택 KGC인삼공사 공채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 활동 우수자 전원 해외 탐방, 정관장 제품 매월 지원, 마케팅 실무 경험 및 교육

동부문화재단

동부 대학생 봉사단 동하리 2기

www.dongbufoundation.or.kr

동부문화재단이 〈동부 대학생 봉사단 동하리 2기〉를 모집해. 동부화재 프로미 봉사단과 함께 대규모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봉사단이야. 동부문화재단, 동부그룹 관계사 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공공 기관 기업체 봉사단 혹은 기자단 경험자, CSR 관련 공모전 입상자를 우대한다고 해. 자세한 내용은 동부문화재단 홈페이지 참고.

+

모집 2016년 7월 1일(금) ~ 7월 18일(월) 오후 5시 마감
대상 국내 대학(4년제) 3, 4학년 재(휴)학생으로 성적 평점 평균 B0 이상,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8분위 이하
혜택 2017년 1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우수 봉사자 해외 연수 및 본인 희망 시 3기 봉사자로 우선 선발

우리는 EDCF 서포터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더 많은 사람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관해 알 수 있도록 캠퍼스 안팎에서 애쓰는 EDCD 서포터즈! 이들의 다양한 활동을 모아보았다. 2013년 1기 활동을 시작으로 매년 3월과 9월, 12명 내외의 대학(원)생을 선발한다니, 꼼꼼하게 살펴보고 흥미롭다면 도전해볼 것!

01. EDCF란?
02. EDCF 해외인턴
03. EDCF 서포터즈

따뜻한 나눔, 아름다운 기적 :
Contents
EDCF 가까이 보기

EDCF 서포터즈 주요활동

1 고교생 대상 ODA 강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법! 공적개발원조(ODA)가 무엇이냐 물으면, 대답할 수 있도록 EDCF 서포터즈는 공부하고 또 공부한다. 직접 준비한 자료를 들고 영신고(3기), 서울국제고, 이화여고(4기)를 찾아간 서포터즈들. 강연을 통해서 고등학생과 함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공적개발원조(ODA)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 캠퍼스 홍보활동

관심사를 공유하고 같은 것을 배우는 또래 친구들에게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공적개발원조(ODA)를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서포터즈는 연세대(2기), 동국대(4기), 서울시립대(5기) 캠퍼스에 부스를 설치했다. 게임을 통해서 친근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푸짐한 선물도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3 EDCF 홍보대사(박찬호/양학선) 활동 지원

EDCF 홍보대사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서포터즈가 함께 한다. 박찬호 선수의 유소년야구캠프 현장을 찾아, 꿈을 키워가는 어린 선수의 훈련을 지원했다(3기). 또, 양학선 선수의 광주유니버시아드 기계체조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했으며(4기), 군사훈련을 마치고 퇴소하는 현장을 찾아서 앞으로의 좋은 활동을 격려했다(5기).

4 자원봉사

공적개발원조(ODA)의 핵심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것! 이것을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서포터즈들은 의미 있는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아현 노인복지센터 봉사, 다문화 어린이 합창대회 도우미 활동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초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워크숍 현장에서 의전 활동도 펼쳤다.

5 블로그 기사 작성

많은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기사 작성은 서포터즈의 핵심 활동. 기획안을 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초본을 작성하면 월례회의 때 수출입은행 담당자와 다른 서포터즈들의 피드백을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수정한 최종 원고를 포스팅한다. 심사숙고 끝에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친근하게 작성한 콘텐츠로 공적개발원조(ODA) 알리기 성공!

http://blog.naver.com/edcfkorea

3 INTERVIEW

EDCF 서포터즈가 전하는 몇 가지 핵심

송준우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 11

친구 추천으로 EDCF 서포터즈에 대해 알았어요. 서포터즈 지원 전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려고 EDCF 대학생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관심이 생겨서 지금은 수출입은행 인턴 활동 중입니다.

활동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서울국제고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EDCF와 ODA에 관해 강연한 겁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이 많아서 놀랐고,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깊이 공부해볼 수 있었어요. 또 딱딱하게 강연만 한 게 아니라 대학입시 및 대학생활에 관해서 형으로서 따뜻한 조언도 해주었기 때문에 호응이 괜찮았고 보람찼습니다. 해외 원조에 관해 처음 접했을 때, '국내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얼마 없는 돈을 해외에 기부할까?' 생각했어요. 그러나 EDCF는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기부가 아니라 '상생의 길'이라는 것을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배웠습니다.

EDCF 서포터즈 활동에 지원하려는 친구들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첫째, 서포터즈가 되어 EDCF 관련 기사를 작성하고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하면서 개발과 원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서 어울리고 좋은 정보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출입은행에 입행하고 싶다면 서포터즈 활동은 수출입은행에 대한 관심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서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 13

고등학교 때 기획재정부 탐방을 가서 ODA 강의를 들은 적 있어요. 원조에는 '무상원조'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개도국에 대여해주고 오랫동안 낮은 금리로 돈을 상환하게 하는 '유상원조'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EDCF캠프에 참여하면서 국제원조와 수출입은행에 관심이 생겨서 EDCF 서포터즈 활동에 지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EDCF에 관심을 가지고 친숙해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조별활동의 일환으로 기획한 오프라인 활동인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어택'이 생각납니다. 대학교에 찾아가 EDCF가 무엇인지 홍보하고, 재밌는 게임을 진행하며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대학생의 인식과 관심이 조금이나마 높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어서 서포터즈로서 뿌듯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은 대학생의 시선으로 EDCF를 이해하고, 친근하게 홍보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비슷한 관심과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값진 경험을 해보세요.

김양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12

경제학을 복수전공 하고 있어서 수출입은행과 EDCF 업무에 관심이 많았는데, 관심보다 제가 아는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수출입은행 및 EDCF 활동의 면면을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의 진로 방향을 설정하고 싶었어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좋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싶다는 바람도 있었고요.

'12회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학(원)생 캠프'에 참여한 경험은 잊지 못할 거예요. 원래 이 프로그램은 서포터즈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닌데, 운 좋게 기회가 생겨 캠프에 참여했어요. 2박 3일 동안 실무 담당자에게 EDCF에 대한 특강을 듣고 실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를 수립하고 평가받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도우면서 진로의 방향을 잡는 데에 큰 도움이 됐어요!

6개월 동안의 EDCF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제가 정립한 EDCF란 '부메랑'이에요. 과거 우리나라가 해외차관을 지원받아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듯, 우리가 돕는 수혜국도 EDCF를 발판삼아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 과정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해 경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EDCF를 던지면 돌아오는 긍정의 부메랑이라고 생각해요.

EDCF 사업은 빈곤한 국가에 도움을 주되 그들이 자생적으로 사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에요. 이러한 유상원조를 전담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상원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수출입 은행이에요. 관심이 생긴다면 서포터즈에 지원해보세요. '지원해보고 싶지만, EDCF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망설여진다'는 고민을 참 많이 듣는데, 열정이 있다면 차근차근 알아가는 데에 문제없을 거예요.

HR

기업명	직무	홈페이지	지원 마감	기타
풀무원샘물㈜	2016년 하반기 공채	http://www.pulmuonewater.com/	~ 6.26	직무별 선착순 마감 및 면접 진행 예정
KB손해보험	2016년 대졸 하계 인턴 사원 모집	http://recruit.kbinsure.co.kr	~ 7.01	인턴 수료자 중 임원 면접을 통해 하반기 정규직 대졸 신입사원 채용 예정

공모전

주최	공모전명	분야	지원 마감	상금
희망제작소	2016 시니어사회공헌 아이디어 대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아이디어	~ 6.26	1등 300만원, 2등 200만원, 3등 100만원 장려상 부상
국정원	제1회 안보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 6.30	대상 200만원, 비주얼 부문 최우수상(1팀) 100만원, 우수상(2팀) 50만원, 텍스트 부문 최우수상(1팀) 100만원, 우수상(2팀) 50만원
한국환경공단	2016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사진 · 광고 · 이모티콘 · 정크아트	~ 7.15	총 수상작 56점, 총 상금 6,200만원
캐논코리아컨슈머 이미징㈜	2016 플레이샷 콘테스트 얼리라운드 사전 공모전	사진	~ 7.18	대상 200만원, 캐논코리아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삼성전기	제12회 삼성전기 논문대상 공모	논문	~ 7.31	대상(1편) 1,000만원, 금상(1편) 500만원, 은상(4편) 300만원, 동상(5편) 100만원, 특별상(1편) 300만원 *특별상: 최다 눈문 제출 LAB
넥슨컴퓨터박물관	가상현실 페스티벌 〈VR Open Call〉	VR	~ 8.12	우수상(4팀) 100만원, VR존 단독 전시 기회, Develop Week, Artist Talk 지원, 아차상(2팀) 50만원, VR 전시 기회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빌딩 BI 공모전	디자인	~ 9.19	대상(1팀) 300만원, 최우수상(1팀) 200만원, 우수상(4팀) 100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제9회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논문	~ 10.04	최우수상(1팀) 500만원, 우수상(2팀) 300만원, 장려상(3팀) 100만원, 본선 진출팀 30만원,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 지도교수 격려금 100만원

대외활동

주최	활동명	활동 기간	지원 마감	혜택
CJ CGV	대학생 마케터 CGV T.O.C. 9기	6개월	~ 6.23	최우수 활동 팀 글로벌 해외연수, CGV 공채 및 인턴십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매월 20회 무료 영화 관람 지원, 활동비 지원, 우수 활동 팀 추가 시상
현대자동차	영현대 글로벌 대학생 기자단 13기	6개월	~ 6.24	매월 팀/개인 활동비 및 콘텐츠 제작비 지원, 우수 활동자 해외 취재 기회 제공
현대제철	현대제철 해피예스 대학생봉사단 8기	6개월	~ 6.26	수료 시 현대제철 신입사원 채용 우대 및 우수자 해피무브 홍보단 파견 기회 제공
한국전력공사	KEPCO 대학생 서포터즈 4기	5개월	~ 6.24	인증서, 활동비, 한전 체험형 인턴 지원 시 서류 심사 면제 및 사장상 수상자 면접 전형 10% 가점, 우수 활동자 해외 봉사활동 참여 기회, 최종 우수 팀 포상금
SK그룹	SK Careers Editor 4기	6개월	~ 6.30	SK그룹 공채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 SK그룹 내 관계사 채용 담당자와의 만남, 월 활동비 지원, 콘텐츠 작성법 특강 진행
KGC인삼공사	KGC인삼공사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Ginlus	5개월	~ 7.06	KGC인삼공사 공채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 활동 우수자 전원 해외 탐방, 매월 정관장 제품 지원, 마케팅 실무 경험 및 교육
동부문화재단	2016년 동부 대학생 봉사단 동하리 2기	6개월	~ 7.18	2017년 1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우수 봉사자 해외 연수

강연 · 이벤트

주최	행사명	홈페이지	일정	기타
(재)두산연강재단	공연 〈인터넷 이즈 씨리어스 비즈니스〉	doosanartcenter.com	~ 6.25	대학생 특별 할인 1만 5천원
MBC아카데미 문화연출학부	2016년 하반기 57기 3개월 정규과정 모집	http://mbcac.or.kr/	~ 6.27	교육 수료 기간: 2016년 7월 ~ 9월(3개월)
KB금융그룹	KB생명 KBA DREAM 프로그램 5기	http://kbadvisordream.modoo.at/	~ 6.27	모집 대상: 대학교 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5세 이하
삼성그룹	2016 플레이 더 챌린지 청춘문답	http://www.samsung.co.kr/answer/apply/25	6.29	〈청춘문답〉 홈페이지에서 사전 지원 필수, 장소: 서울 블루스퀘어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K-Move 멘티 모집	www.worldjob.or.kr	~ 6.29	우수 활동 멘티 시상, 해외 현지 멘토링 및 기업 탐방 참가 기회 제공, 오프라인 멘토링 참가 시 교통비 지원, 멘토 특강 참여
문화체육관광부	제12회 한국MICE 취업아카데미	miceacademy.net	~ 6.30	MICE산업의 이해, 멘토링, 취업 인터뷰, 현장견학, 팀 프로젝트, 취업교육

CJ CHEILJEDANG

햇반이 차린
더 맛있는 가정식 밥상을 드립니다

햇반이 들어있어 더 맛있는 한끼, 햇반 컵반.
햇반 컵반은 햇반에 엄마의 정성으로 만든 요리를 더해
따뜻한 한 끼를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햇반이 들어있는 가정식 햇반 컵반

- CJ온마트(www.cjonmart.net)에서 다양한 햇반 컵반 제품을 만나보세요
- 기타 제품관련 문의는 고객행복센터(080-850-1200) 또는 제일제당 홈페이지(www.cj.co.kr)로 연락 바랍니다

진지충이라서 고민입니다

Who + 소설가 최민석씨는?
2010년 창비 신인소설상을 받고 등단. 2012년 오늘의 작가상을 받았다. 쓴 책으로는 『능력자』 『풍의 역사』 『쿨한 여자』 『시티투어버스를 탈취하라』 등이 있다.

Question

올해 입학한 16학번 신입생입니다.

+

새내기답게 싱그러운 분위기를 풍겨야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지충이기 때문이죠. 이런 성격 때문에 대인 관계도 넓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채 혼자 속을 끓이다가 놓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제 성격 어떡하면 좋죠?

소설가 최민석씨가 20대 독자들이 보내온 사연에 답변 비스름한 것을 드립니다. 인간관계, 진로, 외모, 취향 등등 그 어떤 고민이라도 메일로 보내주셔요. 고민 당첨자(?)에겐 메일로 '당신의 고민이 다음 주에 실릴 예정이오'라며 알려드리고, 기사는 익명으로 나갑니다. 고민 메일은 gomin10000@naver.com

Answer

+

구텐 탁(Guten Tag)! 진지하다고 하셔서, 독일어로 인사해봤습니다. '진지' 하면 또 독일 아닙니까. 독일은 철학, 문학은 물론, 음악까지도 진중한 클래식으로 유명하죠. 오죽하면, 진지해서 알아듣기 힘들다는 '독일식 농담'이라는 장르까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제 생각에는 진지한 본인의 모습을 더욱 계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씩 농담을 하면 가볍다고 비난받고, 쉴새없이 농담을 하면 명랑하다고 좋아합니다. 마찬가집니다. 약간 진지하면 '진지충'이라 비난하지만, 배려심 있고, 사려 깊게 진지하면 '저 친구에게는 배울 점이 있다', '사람이 가볍지 않다', '진중하다', '독일식이다!' 하며 칭찬해줄지 모릅니다. '진지한 면'이 캐릭터가 되는 것이지요.

질문자님은 이제 스무 살입니다. 아직 자신의 진면모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은 잘 가꾸기만 한다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유가 잔뜩 매장돼 있는 산유지 같은 존재가 바로 질문자님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진지한 모습'을 비관하지 마시고 더 깊이 계발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사람에게 깊이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다양한 사고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고는 직 · 간접 경험을 통한 깨달음에서 옵니다. 살면서 겪는 일들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곰곰이 복기해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창 시절을 거의 매일을 복기하며 보냈습니다. 칼럼들을 보면 제가 가벼워 보여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 역시 '진지충'인지라 '매사에 교훈 얻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학창시절, 혼자 골방에 턱을 괴고 앉아, 자주 골몰하곤 했습니다. 예컨대, '음. 오늘 화장실에서 바지 지퍼 올리는 걸 잊고 나온 행위의 철학적 교훈은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철학자처럼요).

하지만, 직접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간접경험을 잘 활용해야합니다. '영화', '뉴스', '들은 이야기' 등도 좋지만, 아무래도 '독서'가 제일입니다. 그럼, 어떤 책이 읽기 좋냐고요? 간단합니다. '당기는 책'이 최고입니다. 교양을 쌓고 싶을 때는 교양 서적, 인문학이 고플 때는 인문 서적, 재미있는 이야기가 당길 때는 소설(『능력자』라는 소설을 추천합니다. 물론, 제 책입니다), 비 오는 날 감성을 적시고 싶을 때는 시집! 결론인즉, 아무것이나 좋다는 겁니다. 떡볶이가 먹고 싶을 땐 스테이크를 먹어도 별로이듯, 독서는 항상 '당기는 때'에 '당기는 책'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깊이를 추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쓰기'입니다. 글을 쓰는 것은 자아의 상태를 종이에 활자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럼 활자는 '마음의 거울'이 됩니다. 활자를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아'와 온전히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 글쓴이는 성장합니다. 글을 쓰다 보면 주변적 사고(思考)는 날아가고, 핵심만 남습니다. 이런 혼자만의 시간을 자주 보내다 보면, 질문자님의 진지함에 '깊이'가 더해질 겁니다. "오빤, 진지해서 좋아요!" 하며, 후배가 고백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안 오면 말고요. 쿨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여유를 가지시길'. 모든 내면의 성숙 과정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 어떠한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달라진 모습으로 인해, 가장 기뻐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그럼, 건승하시길. 아우 피더젠(Auf Wiedersehen)!

LOTTE

롯데칠성음료
유통기간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칠성사이다 X kakaotalk 선물하기

칠성사이다 마시고 속 시원~한 경품 받자!!

QR코드를 찍어 kakaotalk 선물하기 에 접속 제품 뚜껑 속 난수 7자리 입력

Event 1

kakaotalk 선물하기 에서 난수 입력하고 100% 임시완 이모티콘 받자

기간 : 4.25 ~ 5.22

이모티콘은 다운로드 후 30일간 사용 가능합니다

임시완과 함께 속 시원한 Talk 하기

Event 2

럭키박스 속 행운 찾고 속 시원한 여행 떠나자

기간 : 4.25 ~ 7.3

아이슬란드 / 그랜드 캐니언 / 몰디브 / 하와이

1등 해외여행 10쌍 (20명)

아이슬란드 / 그랜드 캐니언 / 몰디브 / 하와이 중 택1

1등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22% 본인 부담

2등 액션캠 50명 (고프로 HERO4 블랙)

3등 블루투스 헤드폰 150명 (소니 MDR-XB950BT)

4등 캐리어 250명 (아메리칸 투어리스터 PUZZLE-LIte 59라임)

2등 액션캠 50명 (고프로 HERO4 블랙)

3등 블루투스 헤드폰 150명 (소니 MDR-XB950BT)

4등 캐리어 250명 (아메리칸 투어리스터 PUZZLE-LIte 59라임)

SAMSUNG 삼성전기

제12회 삼성전기 논문대상 공모

- **초록 접수** 6월 13일(월) ~ 7월 31일(일)
- **본문 접수** 8월 29일(월) ~ 9월 25일(일)
- **발표 심사** 11월 9일(수)

- **삼성전기 논문대상 사무국**

E-mail sem_thesis@samsung.com

www.samsungSEM.com